

2002년 설교

홍순관 전도사

- [2002.01.02] 열매없는 무화과나무 (마가복음 11:12~21)
- [2002.01.13]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15~23)
- [2002.01.27] 짐이 무겁습니까? (마태복음 11:25~30)
- [2002.02.03]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야죠! (로마서 8:18~28)
- [2002.02.10] 주기철, 손양원, 애양원 (빌립보서 2:1~11)
- [2002.02.24] 아곱아, 이 눈뜬 소경아! (창세기 32:1~20)
- [2002.03.03] 아곱아! 너, 이스라엘아! (창세기 32:21~33:4)
- [2002.03.17] 元祖, 죽으면 죽으리라 (창세기 43:1~17)
- [2002.03.31] 먹고 즐기자 (누가복음 15:21~23)
- [2002.04.14]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신명기 5:12~15)
- [2002.05.19] 믿는 티를 내라 (에스겔서 20:10~17)
- [2002.06.02] 도저히 빛을 갚을 수 없으면? (마태복음 18:21~35)
- [2002.06.16] 예라, 신학이나 할까? (신명기 4:1~8)
- [2002.06.23] 교회는 은사공동체 (고린도전서 12:12~31)
- [2002.07.07] 기억하라! 광야의 고생길을 (신명기 8:1~20)
- [2002.07.14] 이 수련(修鍊)의 계절에 (누가복음 10:38~42)
- [2002.07.28]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신명기 11:8~25)
- [2002.08.04] 평신도 선교사 아모스 (아모스 7:10~17)
- [2002.08.11] 이유도 없이 왜? (욥기 42:1~17)
- [2002.08.18] 요나단의 꿈, 요나단의 행복 (사무엘상 23:13~18)
- [2002.09.22] 달콤한 뱀의 유혹 (창세기 3:1~7)
- [2002.10.20] 예수님의 첫 유언 (요한복음 13:1~17)
- [2002.11.10] 칠칠절을 즐거워하라 (신명기 16:9~12)
- [2002.12.01]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 (누가복음 19:1~10)
- [2002.12.08] 말씀의 기갈 (아모스 8:1~14)
- [2002.12.15] 기념일을 챙기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2:13-14)
- [2002.12.29]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을 뻔했다! (여호수아 1:1~9)

열매없는 무화과나무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이들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개역, 마가복음 11:12-21]

설

교 제목을 미리 보셨으면 신경이 좀 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매 얘기만 나오면 자신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사실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있었던 말씀 중에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항이 옛날에는 좀 거친 동네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무슨 행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가두 시위를 하느라고 전교생이 시내로 나왔습니다. 도중에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전교생이 길 한쪽을 차지하고 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옛장수 아저씨가 그 틈새를 밀고 들어와서 엽을 팔았죠. 처음에는 별일 없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마는 애들이 몰려드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안낸 놈도 냈다고 하면서 마구 집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엽판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걸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에 밀고 들어온 아저씨가 생각을 잘못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장수 아저씨도 조금 무리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좀 거칠어야죠! 결국 옛장수 아저씨는 선생님들을 붙들고 물어내라고 야단법석을 쳐서 학교에서 물어낸 걸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몰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대군이 밀려들면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무리들과 함께 ‘저는 자, 소경, 어린아이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던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는 이방인은 전부 사형에 처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소경과 저는 자들이 그 안까지 들어갔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들까지 들어갔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전 내에서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모든 얘기들을 다 생략하고 딱 한가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곳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마가가 관심을 가진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앞뒤에 짚막하게 열매없는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린 사건을 끼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청결은 이해하기 쉽다 해도 앞뒤로 붙여놓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예수님께서 많이 시장해서서 화김에 실수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해도 그건 조금 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께서 크게 잘못하신 것입니다. 가령 얘기가 운다고 해서 엄마가 얘기를 보고 짜증을 내면 누가 잘못하는 거죠? 물론 얘기가 너무 심하게 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면 누가 잘못된 겁니다? 물을 것도 없이 그건 엄마가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 하더라도 나무를 향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떻게 나무를 향해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화를 내셨는데 아직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철도 아닌 나무를 향해서 화를 내고 저주를 하셨다?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죠. 한가지 사건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잘 안되는 사건이 생기면 이 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일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더군다나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이 '시장할텐데 온 천지에 널려 있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을 때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깨끗하게 이겨내신 분입니다.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 후의 그 굶주림조차 너끈하게 이겨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셨는지 모르지만 시장하셔서 화김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이 좀 짧다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함과 배부름을 위해서는 단 한번도 이런 기적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을 몹시 시장하셔서 실수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가끔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자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 나가보면 아이들 눈에는 온통 먹는 간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켄터기집, 중국집, 피자집... 잘도 찾아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술꾼 눈에는 시내가 온통 술집 뿐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 눈에는...

자기 눈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밖에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수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과 시장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전혀 아니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고의로 하셨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끼워넣은 성전 청결 사건을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저주가 따라 붙은 유일한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함부로 저주를 행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11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셨던 그 날에 특별히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지만 이 날에 대한 기록은 마가가 아무 것도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나가셨다는 것으로 매듭지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성전을 꼭 둘러보시면서 뭔가 결심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결심하시고 그 이튿날 다시 들어오면서 큰 일을 하나 저지를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일어날 그 일을 제자들이 오래 동안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비상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게 위해서 뭔가를 작정하셨습니다. 성전 청결의 의미를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일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한 탓도 있겠지만 의미를 이해하기 좋도록 성전 청결 사건 양쪽에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붙여 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을 좀 살펴봅시다. 15절부터 보시면 제일 처음에 누구를 상대로 일을 하셨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스스로 정결하고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아주 제사하기에 좋은 것을 잘 골라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 도중에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정성 들여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보고 이건 불합격품이라 하고 퇴짜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불합격품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한쪽 눈이 조금 크고 한쪽 눈이 조금 작아서 좌우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도 불합격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때문에 집에서 가져오느니 돈만 가져와서 조금 비싸더라도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간편할지도 모릅니다. 불합격될 위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

다.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자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세를 받을 때에 지금 식으로 얘기한다면 외국돈은 안 받았습시다.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는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시다. 그런데 외국 돈은 안 받았습시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주었습시다. 환전해 주는,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시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죠. 비둘기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던 제사였습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파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교'라고 말씀하십시다. 성전 안에 뭔가를 들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못 다니게 막아버렸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성전 마당을 지름길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시다.

어쨌든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시다.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허가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부 내어쫓고 문을 닫으라고 해버렸습시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에게 도전하는 셈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죽기 위해서 약을 쓰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성전 청결이라는 것이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목사님에게 도전을 해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하물며 대제사장에게 감히 도전하다니...

더군다나 여기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성전 밖에서 했습시다.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그것을 성전 안에서 합법화시키면서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전매사업화 해버린 겁니다. 이걸 엄청나게 돈이 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조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되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이들은 전부 대제사장의 하수인이었다는 얘기죠.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였습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도대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시다. 조금 더 뒤에 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시다.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거대한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은 깨끗이 무너져 버립시다.

하나님없이 인간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성전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나무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열매가 요구될 때 열매없는 나무가 이렇게 마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성전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인간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형식과 외식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성전은 저 무화과나무처럼 말라 사라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 볼 필요가 있습시다. 상당히 궁금합니다마는 성도 여러분께 꼭 물어보고 싶습시다. 여러분은 열매있는 무화과나무인지 아니면 열매없는 무화과나무인지 냉정하게 판정을 하고 지나갑시다. 나는 열매있는 무화과다 하는 사람은 손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세 분입니다. 정말 세 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 분밖에 안 나오면 다른 교회라면 더 안 나오습시다. 그럼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바짝 말라 없어질 것입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열매없는 무화과나무가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면 무엇보다 생각하시죠? 제일 먼저?

전도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나? 전도 별로 한 것 없네. 그럼 열매 없다? 전도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습니까? 전도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건 해당이 안 됩니까? 열매가 있는데 손을 안 드는 겁니까? 열매있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전도하는 것 외에 교회의 직책을

말아서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도 열매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간혹... 꼭 예수님의 표현이 아니라도 비슷한 표현 있죠. 마태복음 3장 10절, 또 누가복음 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열매없는 나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좀 두려운 말씀이죠? 좋은 열매 안 맺으면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끔찍한 말씀이 많아서 큰 일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이 나무라면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가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열매 맺자 맺자 한다고 맺어집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아니, 나무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을 해요? 도끼는 나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맺을래? 안 맺으면 찍어 버린다! 어떻게 맺어요? 열매 맺고 있지도 않고 열매 맺는 방법도 모르고... 완전히 구제불능이네요. 좋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누구한테 달린 문제입니까? 농부에게 달린 문제죠. 나무가 어떻게요? 나무는 할 말이 있습니다. 종자가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무로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가서 접을 붙여 놓던지 아니면 땅이 나빠서 그러면 좋은 거름을 주든지... 이건 농부한테 달린 문제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나무 스스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떨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와서 나를 좋은 가지에 접을 붙여 주든지, 좋은 거름을 많이 주든지 해야지요. 이 본문은 세례요한이 하는 말인데 세례요한이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7절을 봅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라오 시작하죠? 이들을 향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공갈을 치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충격요법을 쓰는 셈입니다.

요한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얘길 하신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맞겠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릴 찍어버려요? 그것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워온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지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거기에도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끔찍한 말씀입니다. 열매 못 맺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불신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본문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

예, 15절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는 관정이 나오는 경우 이게 열매없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참 이런 말씀드리기 무섭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설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습고 슬픈 현상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라고 하여야 한다는 얘깁니다. 가끔, 아주 무서운 심판과 저주에 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을 잘

보십시오. 최후 심판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최후 심판 때는 용서가 없을 겁니다. 그 심판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부르지 않는 것 같던데 옛날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 다음은 뭐죠?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죄가 내 죄 가리네' 우산처럼 퍼진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다 막아주신다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효과적으로 다 가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열매 없다고 찍혀서 불에 태워져요? 왜 그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열매없는 무화과입니까? 열매 있는 무화과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가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 이상의 큰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늘의 상급과 관련된 것이지 그게 좀 없다고, 좀 부족하다고, 좀 작다고 해서 찍혀 불에 던지울 일은 아니라는 애깁니다. 열매없는 나무란 말만 들으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공로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돌아가심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장 크고도 유일한 열매입니다.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열매 있냐고 따지면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찍혀 불에 던지우지 않기 위해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결코 전도, 봉사, 구제가 아닌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서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애깁니다. 하나님 없이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던 유대교가 그렇게 몰락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설 것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검해서 한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무화과나무가 입이 있다면 말라 죽으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까?

목 마르다.

무화과도 목이 마르다하고 죽어요?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이것이 내 탓입니까?

불만이 있다는 말이죠? 열매 열 때도 안되었는데 나를 마르게 하신다면 불만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성미가 조금 급한 분이나 성깔 있는 분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래도 됩니까?' 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 철은 아니라 할지라도 설익은 무화과 한 두 개 정도는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그것조차 없었으니까 이건 말라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무화과나무에게서 무슨 죄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무화과나무가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죽는 사람이 꼭 자기 죄로만 죽습니까? 제자들이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교자 하심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요 9:2-3). 그러니까 부모 죄냐 자기 죄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무화과나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따지지 말라는 애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혹시 이웃집에 누가 심하게 아프거나 큰 일이 생기면 걸으러는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또 한편으론 우리 모르게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하는 곡 잘 부르시죠?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부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도록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세요라고 노래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있는데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달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노릇입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사라지게 하고 그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희생되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게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고생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잘못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물은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가 과일을 제공합니다. 나무가 좋은 과일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때 나무에게 감정이 있다면 참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라고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왜 나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말라죽게 하십니까?'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소중한 교육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음을 감사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안강에서 오시는 배 집사님과 최 집사님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기회가 있거든 들어보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얘기 풀어놓으면 밤새도록 갈 겁니다. 20년 쯤 전에 두 분이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최 집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안강 육통에서 내려오는 청년의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최 집사님이 아주 심하게 다치셨답니다. 그런데 충돌한 그 청년은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었답니다. 주일에 엄마가 제사 지내는데 가야 된다고 억지로 끌고 육통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최 집사님은 얼굴이 완전히 다 깨어져서 입원을 했고 이 청년은 멀쩡하더라는 겁니다.

첫날에는 모친과 인사하러 찾아왔었는데 하룻가 이틀인가 뒤에 이 청년은 갑자기 죽어 버렸고 최 집사님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 집에 누군가가 전도하러 왔더라는 겁니다. 꿈에 보니까 당신 아들이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걸 봤다. 천국으로 가는 걸 봤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죽은 청년의 모친이 최 집사님 집에 찾아와서 '아무런 보상도 필요 없다. 우리 아들이 믿었던 그 예수를 믿겠느냐? 그것만 믿는다면 아무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두 분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청년의 어머니도 지금은 권사가 되었는데 온가족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죽은 청년 말입니다. 우리가 욕을 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제사 지내는 곳에 갔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청년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모친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결코 헛된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쓰시려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로 사용되건 다른 모양으로 사용되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집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습니까? 목사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주면 어떻게 하죠?" 그 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주리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요? 이번 기회에 이 나무를 특별하게 써야겠다고 예수님께서 마음 먹었으면 그 무화과나무도 기꺼운 마음으로 "예, 주님 쓰십시오. 나를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교육의 도구로 쓰십시오."라고 기꺼이 내어드렸을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입이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말라야 합니까?" 이 얘기는 무화과나무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렇게 설명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내 놓으라고 할 때 내 놓을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방식으로 쓰시겠다고 말할 때 기꺼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윗보다 요나단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간성을 봐도 그렇고, 부모에 대한 일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요나단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남아서 온갖 부를 다 누렸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적의 손에 죽

고 말았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더 잘 살아야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원사에서도 맡아야 할 배역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역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일찍 하나님 앞으로 가는 역을 맡았던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세가 없다면 현실은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이겠지만 나중에 거기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억울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나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무화과를 바라보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목숨을 걸었던 그들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이웃들이 화평하게 지내기 위한 평화의 도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회사라는 곳이 얼마나 살벌한 곳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할 경우가 종종 생겨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 위대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정말 멋지지만 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은 결국은 열매없는 무화과처럼 곧 시들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잘난 인생은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열매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결코 보잘 것 없는 열매없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노력해서 맺어야 하는 조그만 열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맺고 있는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후에 이것을 닦은 더 풍성한 열매들이 속속 맺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적절한 필요에 따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무화과나무는 감정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무화과나무처럼 시들어 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면, 성도들간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면 그것을 덮어내는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개역, 요한복음 21:15~23]

오 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만약에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꼭 그려보고 싶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장면들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를 즐기는 기분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음악은 반복해서 들어도 즐거운 법입니다. 좋아하는 그림은 보고 또 보는 법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즐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고 태양도 빛을 잃었습니다. 그 날 흘린 수 많은 눈물 가운데 불순물이 좀 끼어 있었습니다. 성분이 다른 눈물이 하나 끼였더라는 말입니다. 무슨 불순물이 끼였을까요? 그 날의 모든 눈물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 성질이 다른 눈물 하나가 끼여 있었습니다. 무슨 눈물이죠?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라 회한의 눈물이요, 자책의 눈물이요, 통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면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는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어떤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 할 때 부인하면서 '얘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7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른다. 만약에 알거든 내 손에 장을 지저라."는 식이죠. 세 번째는 74절입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무슨 맹세를 했을까요? 무슨 저주를 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다른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노라고 얼마나 큰소리 쳤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하루밤 사이에, 세상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누가복음에는 바로 이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눈길이 마주친 그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베드로의 아픔은 도대체 어떤 아픔일까요? 아픔 중에 아픔은 자기 자신의 비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눈길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키가 작다고 비난하면 그거 참을 수 있습니다. 키 크고 안 싱거운 놈 봤냐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면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작다고 비난해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눈이 작으면 간이 커요. 눈이 작운데 왜 간이 큼니까?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것은 다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질? 베드로가 성질이 보통 급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조상 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을 해놓고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느냐?고 자신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돌아보셨을 뿐입니다. 변명할 기회도 없었어요. 돌아보는 그 순간에 온 몸의 힘이 썩 빠져 버렸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베드로는 한없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난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학교 다니실 때 특별히 좋아하신 선생님 계셨습니까? 다른 과목 시험을 다 잘 못 쳐도 괜찮은데 그 선생님 시험 점수만큼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기억이 전혀 없으면 정말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낸 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누굴 한번이라도 몸서리나게 좋아해 보지도 못하나요? 다른 시험 다 망쳐도 견딜 수 있는데 그 선생님 시험은 점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견디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복된 아이입니다. 그런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복된 겁니다. 요즘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모든 사람의 비난은 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없이 돌아보는 그 눈길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당이 내려와서 총칼을 들이밀고 목숨을 내 놓으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계집아이 앞에서 그렇게 발뺌을 하고 비굴하게 굴었으니 무슨 낮짜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전 이야긴데 일가족이 어느 공원에 산보를 갔던 모양입니다. 자리를 깔아 놓고 있는데 동네 깡패들이 와서 비켜라 해서 쫓겨났습니다. 조금 비켰는데 또 따라와서 온갖 시비를 다 걸고 또 쫓겨났습니다. 결국은 쫓겨다니다가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가진 것 다 뺏기고 물러 나왔습니다. 그 집 아이가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왜요? “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힘없고 비굴한 사람인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날 밤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 놈들 찾으러 나간 겁니다. 그 놈들 찾아서 자기도 많이 터졌지만 완전히 분풀이를 다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자가 왜 그랬냐고 했을 때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자식 앞에서 비굴한 아버지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낮에는 왜 그렇게 비굴했을까요? 함께 있는 처자식이 혹시 다 칠까 싶어서 그 때는 비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서 자식이 아버지를 비굴하다고 하는데는 견딜 수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비굴한 모습을 절대로 보일 수 없다는 이 아픔이 베드로의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나약한 모습이 없는지 한 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기회만 되면 작정도 하고 뭐도 한 번 해 보겠노라 했는데 그게 보통 얼마쯤 갑니까? 삼일요? 그건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삼일했지 지금도 삼일입니까?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가야죠. 한 번 작정했다 하면 그대로 일년 못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작정은 조금 더 길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 한마디에 대해서 평생 신의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면 방학이라도 있죠. 교회는 방학도 없습니다. 한 번 작정했으면 주님 만날 그 날까지 좌악 가야 옳는데 해 보면 안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베드로의 후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그 날 밖으로 나와서 한없이 통곡하면서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백배 사죄하고 그 날의 일은 결코 내 본의가 아니었노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지냈습니다. 이젠 만날 길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말 한마디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낮짜므로 용서를 빌겠습니까만 본의는 아니었노라고

말하지 않고는 건딜 수 없었습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속에 너무 묻어 놓으면 병이 됩니다.

우리 옛날 동화에 비슷한 것이 있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어디 가서 그랬습니까?

대나무밭에요.

왜요? 사람이 있는 데서는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안되면 하지 않으면 되지 사람 없는 곳에서라도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속에 든 걸 그대로 참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 답답하면 사람 없는 숲에 가서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통곡이라도 해야 합니다. 병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 오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라’ 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뛰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달리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겼습니다. 요한이 가버렸나봐요. 굴속에는 누가 먼저 들어갔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달리기는 요한이 잘 하고, 무덤에 먼저 왔는데 요한이 과연 그런가 해서 들여다 보고 있을 때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생각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을까요? 아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고 간 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뛰어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면 내 속에 있는 이 웅어리를 풀어버릴 기회가 있겠구나 싶었겠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이상하게 떠 얘기만 자꾸 하셨습니다. 어디 생선 있느냐 하시더니 그것을 자시더니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베드로는 꼭 한마디 해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과 살짜기 나가서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 번 해야 하는데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 또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누군가 나타나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보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렸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은 항상 요한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요한이 ‘주님이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벗어 놓았던 옷을 입고 묶은 채 그대로 물로 뛰어 들어서 나옵니다. 관찰하는 사람은 요한이고 그 말을 들으면 행동으로 바로 뛰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은 콤포로 참 잘 맞아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이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잘 안돼요. 항상 한 사람은 관찰하고 한 사람은 뛰는데 참 조화를 잘 이룹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그물을 끌고 곧 따라 나옵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뭔가 한마디 좀 해야겠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바로 따라왔습니다. ‘아, 이놈들 천천히 오면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뭔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뛰어가서 생선을 끌어올리고 헤아려 보니까 몇 마리가 나왔죠? 백 쉰 세 마리 하는 것 보니까 경상도 아닌 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나봐요. 경상도 분들 분명히 백 오십 세 마리 그러거든요. 옛날 모나미 하얀 볼펜 아시죠? 그 볼펜에 153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왜 그걸 썼을까요? 모나미 회사 사장님이 처음 필기구를 만들면서 여기 나온 고기를 생각하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썼답니다. 그런데 그 모나미 볼펜이 우리나라 볼펜의 대명사처럼 되었거든요. 참 복을 많이 받았습시다. 저도 앞으로 무엇을 하거든 거기다가 153이라고 쓸까요?

이 숫자가 그렇게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면 성경퀴즈 할 때 도움이 될지 압니까? 그 식사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짬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당장, 아니 이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따로 부를 겁니다. ‘화장실 뒤로 좀 와 봐라. 니가 내 제자 맞느냐?’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옳았을까요? 그렇게 통곡을 해야 했고, 속에 웅어리가 쌓여 있는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죠? 성경을 읽으실 때 제발 이런 고민을 하고 읽으십시오. 새해에는 새벽기도

가겠노라고 굳게 굳게 결심하고 삼일은 간신히 채웠는데 4일째 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래야 이 장면이 아름다워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상에 이런 답이 어디 있어요? 전 베드로의 이 대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말 못 해요. 지은 죄가 있는데...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살린다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더 줄이면 ‘아시면서...’일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까?’라기보다는 ‘주님, 아시면서 알면서 왜 자꾸 물으십니까?’ 이 표현입니다. ‘주님, 차마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라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예수를 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렇게 뻔뻔하나요?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했었느냐는 것입니다. 큰 차이는 비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 내놓을 만한 능력은 없었지만 작은 사랑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떳떳하게 자랑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그런 사랑은 못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실수하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한 채 ‘주님 아시잖아요’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우리는 흔히 우리의 행동을 먼저 살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것부터 살피는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살피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피 보았더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다고 여겨지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대체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보시지 않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보니까 능력도 없고, 큰 실수를 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아시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때는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원래 제가 그렇게 능력 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것이 절대로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런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헬라어의 어순대로 바꾼다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런 번역이 됩니다. 앞에 나오는 단어는 항상 ‘주님’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못 믿으셔서 자꾸 그러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다고 예수님께서도 야단삼아 세 번이나 묻는 걸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런 느낌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을 덧붙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약해서 그랬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떡하다는 것,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라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밖에 없는데 저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보면서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가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가슴 속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못내 풀지 못한 한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만 해도 다 되는 겁니다.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고 힘들 때 ‘주님 아시지요’만 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좋은 기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지요’ 한마디로 감사도 되고, 회개도 되고... 다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라는 얘기 외에는 할 말이 더 없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부활하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이것 아닐까요? 저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독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장 큰 임무를 맡을 수제자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상한 마음을 깨끗이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운 게 많고 내가 이 모양밖에 안되냐는 안타까움이 들 때에 내 속에 있는 그런 아픔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길을 뒤로 하고 문 밖에 나가서 평평 울 때에 그 울음은 베드로 혼자만의 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울어본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우십시오. 어디 가서 읊니까? 새벽기도 와서 울기도 하고 골방이 있으면 골방에 가서 울기도 하고..., 우리 교회당에는 낮에 조용하게 혼자 와서 앉았다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 날 위해 뭐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물론 찬송가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해 놓은 게 무어나고 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픈 마음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오래 전 애깁니다마는 어느 대통령을 수행하던 비서가 실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 복장을 잘못 갖추어 드렸습니다. 어느 연회에 갔는데 대통령 혼자 옷을 잘못 입고 온 겁니다. 다들 제대로 갖추어 입었는데 대통령 혼자 어색한 복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특송한다고 나왔는데 전부 양복 입었는데 혼자 티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한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평소애 편안하게 입고 잘 들락거리는데 나가보니 다른 친구들이 전부 정장을 차려 입은 것 있죠. 아 그거 참 어렵대요. 가시방석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통령을 그런 꼴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 비서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없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저 한강물에 가서 빠져 죽어라' 대화는 그것 뿐이었습니다.

이 비서가 그 날 차라리 자기가 당하는 무안은 견디겠는데 각하께서 저 모양이다 생각을 하니 죽을 마음인데 한강물에 빠져 죽으라 그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요. 그 말마저 안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마저 안하면 더 괴롭습니다. 그 말은 상당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얼마만큼 열매를 남겼느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에게는 대답할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우리 스스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능력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 난 사람이나를 살펴보면 항상 불합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아픈 과거를 깨끗이 잊고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중에 혹시 통곡하는 베드로가 있습니까? 날마다 통곡만 하는 베드로가 있습니까?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통곡할 일은 아닙니다. 왜요? 이렇게 능력 없고 이렇게 아픈 가슴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묻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 뿐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능력은 없지만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예수님께서서는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초월한 것입니다. 다 받았습시다. 내가 주님

을 사랑하느냐 그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잘못과 베드로의 잘못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정말 면목없다 싶을 때 베드로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저도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만큼 잘 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예배시간에 많이 졸았습니다마는 베드로 만큼 졸진 않았어요. 신앙으로 산다하면서도 그렇게 뻗뻗하고 자랑스럽게 살지 못했던 시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베드로 만큼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린 양떼를 돌아보며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바탕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한 번 아픔을 겪었으니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힘든 고비를 잘 넘어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에 깔린 그 후에 예수님의 양떼를 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모든 일의 바탕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지 않으면 그 헌금, 선교, 봉사...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봉사도 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을 잘 하고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리느냐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사랑이 바탕에 깔려지지 않은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상관 없는 일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참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은 강대상 앞에 잘 나오지 않지만 작년에만 해도 예배시간에 여기까지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더러 있었잖아요? 뭇게 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조용하라고 해도 조용하지 않고 떠드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게 미워지면 선생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말썽피워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꼭 깔려 있어야 교사로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행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힘든 일이 운전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일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참 하다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돼요. '저게 밥만 먹고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그냥 밥만 먹고 싹 사라져?' 운전하다 보면 '내가 저거집 기사가?'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때려치워 버립니까? 일보다는 사랑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교회 차 타실 때 운전하는 집사님들에게 꼭 '수고하십니다'는 정도의 인사는 하고 타십시오. 내릴 때요?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십시오. 타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인사 안 하고 오르고 타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라는 마음이 들어야 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설거지 하나 하는 것 없이 밥만 싹 먹고 사라지더라도 그게 이뻐 보여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식당 봉사나 차량 운전이나 모든 일의 바탕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빠졌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면 안되지요? 빠져도 이뻐야지요! 주일날 낮에 오래간만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다고 집사가 되어서 저러면 되냐고 그럴 게 아니고 그래도 찾아오는 성도들이 이뻐 보여야 교회를 섬길 자격이 있습니다.

오래 전의 일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안건을 하나 냈는데 통과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어떤 남자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둘 많아요. 갑자기 박수를 막 치면서 좋아하더라구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안건을 내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한 사람이 독주를 했다는 말이지요. 능력도 추진력도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그 분이 좋은 안건을 내고 강하게 밀어 붙여서 일을 잘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힘도 약하고 능력도 조금 덜한 분들이 상처를 입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내가 능력 있고 잘 할 때라도 항상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회의할 때나 함께 봉사할 때나 함께 섬길 때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있고 내 생각이 옳다고 느껴질 때에도 한 번쯤 반드시 주변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 배려가 사랑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는 말은 추구할 때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통용됩니다.

회장님들 중에 자원해서 회장 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 중에서 억지로 떠밀려서 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것도 없어요? 안 묻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투표하려고 모였는데 내가 뽑히지 않기 위해서 껌싸게 다른 사람을 추천해 본 적이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내가 안 뽑히기 위해서 껌싸게 다른 사람을 빨리 추천해서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소위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겁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형제를 상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회장 뽑는데 이런 잔머리를 굴러가면서 피해야 합니까? 그게 어떻게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잔머리를 굴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잘못도 유다의 잘못 못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유다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되었고 사랑이 없던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채 비참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담대함이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작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의 아픈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능력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아주 소중하게 보시며 위로하시고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누렸던 이 행복한 장면이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짐이 무겁습니까?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개역, 마태복음 11:25~30]

요

즘 직장 구하기 어려운데 사원모집 광고를 내겠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300만원, 승용차와 사택 제공하고 일년에 보너스 900%, 담당 업무는 없습니다. 그냥 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구인광고 보고 그 회사에 출근해 보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요? 아무도 안 가실래요?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안 가시려 하죠?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광고를 보고 그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배척을 받으셨습니까?

배척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는데요?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배를 띄워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육지로 올라오시지 않고 그 길로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서 좀 쉬셨습니까? 사람들이 행선지를 미리 짐작하고 앞질러 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배척을 받으셨습니까?

배척...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에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고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배척을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배척...

그럼 이렇게 따라 다닌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대답을 참 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받은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까? 그런 반면 또 한편으로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때 환영을 받았고 어떤 때 배척을 받았는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과 권능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배척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할 때에, 그것도 나라의 독립을 추구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 나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무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아는 듯 싶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를 성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대한 영웅으로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를 배척하고 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선이 세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고라신과 벳새다입니다. 20절에 이 두 고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

맞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답은 아닙니다. 이 두 도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회개치 아니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고을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도시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너희 아닌 두로와 시돈이 심판 날에 오히려 심판을 건디기가 쉬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바깥 이방나라입니다. 마치 자기 집 아들에게 많은 돈과 정열을 투자해서 과외공부시키고, 좋은 옷 좋은 약을 먹여가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었는데 대학 시험에 보기 좋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내가 6년 동안 네게 투자한 돈이 얼마데...’ 그러고 있다고 칩시다. 뭐가 지금 아까운 거예요? 돈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돈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그 소리하고 있는 거죠. 돈 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답답하고 처참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새다에서 행한 기적이 아까워서 그렇니까? 아니요. 그렇게 했음에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한 것에 대한 처참한 심정입니다. 안타까움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 십일조 떼먹는 것입니까? 뭐니 뭐니해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소돔에 가서 이 정도 능력을 행했으면 소돔도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가장 아낀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을들을 바라보시며, 책망하며, 가슴아파 하시다가 시선이 바뀝니다. 25절 보세요. ‘그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하시는데 누가 질문을 한 모양이죠? 예수께서 누구에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천재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즉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동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자들이 누구입니까? 앞에 나오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고, 애타하고, 힘들어하던 주님께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옳소이다’ 하는 표현이 바로 감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 참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표현을 조금 바꿔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서는 마음 속에 감격을 누리시며 또 자신의 존재 의의와 역할을 파악하셨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지내보면 실망하고 힘들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좋긴 좋은가 봐요. 사람을 바라보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이만하면 되었다 싶어도 그 만족감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 의의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뜻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담을 많이 보셨습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지요. 아담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핑계는 다른 사람에게 대죠. 여러분 주변에 하와도 참 많습니다. 팬스리 따먹어 가지고 내 신체를 이렇게 망쳐 놓은 여자가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주위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볼 때마다 어떡하라고 그랬죠?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분위기 좋은 우리 교회들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

를 볼 때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이것 저것 물으시면서 끝내는 회복의 길을 살짝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 저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더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살펴보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담이요 대부분이 하와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초대 말씀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다 싶으면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곳이 세상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곳에 진정한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었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사실은 이 본문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이 본문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25절을 잘 보십시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누구에게요?

어린아이에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좀 전의 얘기를 조금 더 되풀이 해 볼까요? 왜 멋진 구인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갑니까? 안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아닌 다시 말하면 슬기롭고 똑똑하고 그 정도는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좋은 조건을 보고 믿지 않는 겁니다. 머리가 돌아간다면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많다. 아마 사기일거야 하고 안 가는 겁니다. 누가 같까요? 어린아이가 가는 겁니다.

여기에 슬기롭다는 건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야라고 밝혔을 때에 '그래, 기적을 행할 능력도 좋고 권능도 좋다 이거야' 그것은 다 인정하는데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더라는 얘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슬기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하늘까지 닿으려는 교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어린아이에게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니까? 남의 말을 잘 믿죠? 순진하지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놀고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먹고, 자고, 입고, 용돈 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잘 놀면 됩니다. 그래도 용돈 달라는 자세는 한달 내내 고생하고 월급타는 사람보다 더 당당합니다. 내 참!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좀 점잖게 표현하면 일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놀고 먹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구인 광고를 내도 똑똑한 어른들은 안 옵니다. 누가 와요? 어린아이들은 옵니다. 특징이 뭔데요? 순진하게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와서 그저 놀고 먹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지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놀고 먹는 거와 같은 겁니다. 오늘 낮 예배시간에도 복권 사지 말라고 그랬죠? 믿는 우리는 복권 뿐만 아니라 요행수나 노력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아예 바라지도 마십시오. 사기꾼들이 제일 잘 노리는 사

람이 노력하지 않고 뭔가 하나 얻어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들에게 걸린 사람들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하지만 자기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걸린 것이지 공짜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에게 잘 안 걸려요. 버스 타고 가다보면 쪽지 쪽 나눠주고 '아, 손님 당첨되었습니다' 하지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딱 보고 압니다. 돈이 될만한 사람에게 준 번호를 나중에 '당첨입니다' 하고 부르는 겁니다. 괜히 당첨되었다고 기분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물찾기나 행운권 추첨에는 전혀 안 걸리는데 이런 것은 잘 걸리더라면 회개(?)하십시오. 원인이 자신에게 조금은 있기 때문입니다. 거저 얻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사람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뭔가를 거저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공짜 혹은 요행수로 생기는 것은 아예 바라지도 마십시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갓난 아기와 어머니 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받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물어제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얻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공짜로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건 사람끼리의 이야기입니다. 갓난 애기가 엄마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것보다 더 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너무 당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노력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성경에 일하지 않고 월급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는 대답이 잘 안 나와야 제가 안심하고 전도사 노릇을 하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월급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물론 월급이라는 표현은 없죠.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로마서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일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월급이라는 말을 써서 좀 헛갈리긴 했지만 잘 보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엄청난 걸 얻었다는 말인데 바로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받은 것이 월급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일한 것 없이 엄청난 재산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행복을 다윗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게으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이 딱 한 가지만은 놓고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으로 직원을 구하면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누가 온다고요? 어린아이가 옵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얼마나 좋은 것 줄지도 모르고 그냥 노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구원이 '월급 한 달에 삼백만원, 승용차 제공, 사택 제공, 보너스 900%'보다 못한 것입니까? 아니 비교는 되는 겁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일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일하지 않고 이 좋은 회사에 들어와서 놓고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대답 않으신 분들은 '내가 어찌서 놓고 먹고 있는데?' 하시는 겁니까?

효자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처음부터 '전도사 처음 할 때 코피가 좀 터져야지'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코피 터지도록 해 보았는데 전 원래 체질적으로 코피가 잘 안 터집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안 터지더라구요. 간신히 입술이 조금 터져가지고 체면이 서나 싶은데... 적당히 쉬어가면서 해서 안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많을 때는 일주일에 설교 15편, 보통은 매주 7편은 했거든요. 제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까요? 놓고 먹었다고 생각할까요? 좋아서 한 것이니 물을 필요도 없네요.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행사 한 번 있으면 입술 터져 가면서 죽네사네 하고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놓고 먹는다고 하면 됩니까? 날이면 날마다 교회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몇 년치 할 일을 일년만에 다 해치워 버리는데... 공산당 같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교회생활 하고 있는데 놓고 먹는다니 그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코피가 터지든 입술이 부르트든 여러분들은 지금 놓고 먹

고 있는 겁니다.

‘일’이란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조건입니까? 아니죠? 그럼 그건 ‘일’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고, 즉 놀고 먹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할 만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놀고 먹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 좋은 회사에 와서 월급 엄청나게 주길래 ‘뭐 할까요?’ 하니까 ‘그냥 놀으래요’ 좋죠? 얼마쯤 놀다보니 ‘이것 참 너무 놀아 안되겠다. 뭐 좀 할 일 없을까요?’ 스스로 찾아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게 우리 교회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뭔가를 한 번 해 봐야겠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의 소일거리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벌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하시는 얘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전부 짐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놀라운 복이 있다고 부르실 때 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요.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들어오신 분인 걸로 믿습니다. 혹시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나의 것으로, 천국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면 그냥 들어오세요.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무슨 복이 있느냐? 놀고 먹는 복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것을 우리 주님께서 거저 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말을 믿고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조금 걱정되는 게 아까 한 분밖에 손을 안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믿고 들어오라고 할 때 거기에 선뜻 들어갈 수 있는 건 정말 어린아이여야 합니다. 설마 그럴까 진짜 그럴까 따져보는 것은 아주 슬기로운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꼼꼼하게 따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 제발 따지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들어가 버리십시오.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 버리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이 교회로 나오기로 결정을 하는데 몇 달씩 심지어 육 개월 이상씩 걸린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심지어 별별 것 다 따져 가면서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몇 년마다 교회를 옮기셨어요?” “7년”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남으셨나요?” 그 때 15년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던가 14년이라고 했다던가요. “그러면 한 번 더 옮기시겠네요?” 사모님이 옆에서 눈치를 채고 “젊었을 때나 그렇지. 이제 목사님 힘 다 빠져서 무슨 객기가 있겠어요? 이제 안 옮길 겁니다.” 그래서 온 분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까지 따져 가면서 교회 옮겨요?

이 중에는 스파이도 더러 있었습니다. 스파이 미리 보내서 탐색 다 한 후에 어느 날 보니까 하나 붙어 오고 둘 붙어오고... 이렇게 스파이 노릇을 하신 분들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세 사람입니다. 예배에 늦게 살짝 들어와서 일찍 내빼면 ‘아, 스파이구나’ 이제 저도 분간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들락거리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씩 둘씩 가족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교회를 정하는 것도 이것 저것, 얼마나 따지고 따지고 망설이다가 겨우 한 발짝 딱 들었는데 들여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렇게 따져야 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따지지 말고 그냥 들어서십시오.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의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갈 때 들어갈까 말까 이게 내가 바보짓 아닌가 싶은지 모르지만 ‘에라 모르겠다’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얼마만큼 놀라운 평강이 있는지,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들어가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찬송 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 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사람들이 왜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뭐가 무서워서요? 바닷가에 있는 작은 파도 때문입니다. 그 작은 파도를 뚫고 배를 띄워서 조금 들어가면 안에는 잔잔합니다. 찰싹거리리는 작은 파도가 무서워서 갈싹갈싹거리다가 못 들어가죠.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애들 싸움도 그래요. 덩치 큰 녀석과 싸울까 말까 망설이다가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우려고 슬슬 빼고 있는데 저 놈이 때리면 아파요. 몇 대 맞다가 성질이 나서 '에라, 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들면 맞아도 안 아픕니다. 맞아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 열심히 싸웁니다. 언제 아프죠? 싸움이 다 끝난 뒤에 보면 온 몸이 멍들고 아프고... 형편 없습시다. 그러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싸울 때는 아프지 않아요. 좋은 비유는 아닌 듯 합니다만 예수님의 그 부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까 저렇까 고민도 많겠지만 들어가 보면 아프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시다.

이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효자제일교회로 오세요 하는 이 초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교회를 가든지 저 교회를 가든지 제대로 말씀만 증거되는 교회로 간다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응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흔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내가 메고 있던 짐을 전부 예수님께 맡기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짐을 내려놓은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고 있던 멍에와 짐을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다시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처럼 왔는데 또 지워버리면 본전 아닙니까?

우리나라 멍에는 소 한 마리에 하나를 씌우지만 이스라엘의 멍에는 좀 다릅니다. 십자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멍에 하나를 소 두 마리가 끌고 갑니다. 내 멍에를 메라는 것은 한쪽을 예수님께서 메고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들어 못 가면 예수님이 끌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난 보조 맞춰서 적당히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짐 중에 무겁지 않은 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는 짐은 안 무거워요. '새벽기도 안 가면 또 뭐라 할건데...' 하고 나오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나가 봐야겠다' 싶어 나서는 짐의 무게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는 짐은 무겁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이 왜 스스로 짐을 질까요? 예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면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짐을 지는 겁니다. 스스로 지는 짐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한다고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녀도 그게 일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머니 속에 돈이 있으면 한끼 굶어도 배가 덜 고프죠.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한끼 거르면 배가 대단히 고프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배가 덜 고프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천국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돈보다 더 큰 수표책입니다.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 짜증나는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주머니가 든든하면 신경이 덜 쓰입니다. 직장 일이나 가정 일이나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임하셔야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합니다. 수고하는 자는 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나 내가 뭔가를 한 번 해봐야겠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짐진 자는 '도대체 내가 이 짓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 있죠. 내가 어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나 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는 사람이 짐진 자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내게 누군가가 이 무거운 짐을 지워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질 수도 있고, 지기는 그냥 지는데도 그게 굉장히 가벼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정말 무겁거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오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9절 제일 끝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쉽을 얻으리라.

그냥 쉽을 얻으리라 하면 안되고 '마음이 쉽을 얻으리라' 입니다.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그냥 '쉽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그 앞에 '마음이라고 붙여 놓은 점입니다. 마음이 쉽을 얻어야 진정한 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서 산 너머 산이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것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시집 안 가겠다고 어릴 때부터 버티더라고요. 시집 가서 고생하느니 혼자 살겠다는 거죠.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아서 그럴까요?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모 세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혼자 살면 정말 편할까요? 그것 역시 또 산입니다. 혼자 살든지 결혼해서 살든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직장이 없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 번 둘러 보십시오.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나 하고 싶은 사람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래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도 정작 본인은 참으로 평안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 친구가 암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별 가망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병에 걸린 환자나 거기 간호하고 있는 부인이나 도대체 태도가 어떠했길래 새로 오는 간호사마다 부인을 살짝 불러낸답니다. 불러내서 "남편 병이 뭔지 아세요?" 하고 묻는데 "예, 압니다" 그러면 고개를 짤래짤래 흔들며 간대요. 아니 간호사가 바뀌면 왜 물을까요? 도대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같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마 죽을 지도 모른다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표정이 밝더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얘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렇게 어떻게 사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것이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고린도후서 4:8-9)'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래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도 안 넘어진단 얘깁니다. 제가 읽다가 딱 끊을테니까 그 다음 짤막하게 이어주십시오. 한 번 해봅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잘 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아무 것도 없어요. 아주 근심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근심은커녕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정말 가난한 것 같은데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마음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 둘러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라고 해서 왔죠. 와서 내가 가진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아니면 와서도 내가 지고 있습니까? 지고 있어요? 그것 왜 지고 있어요? 빨리 내려놓지! 예배 마치고 나가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고 '아이고 이래가 어찌 사노' '야, 이놈아, 내가 누구 믿고 살란 말이고?' 이런 소리 나오면 그것은 내 짐을 내가 여전히 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 보겠다고요? 깨끗이 버리십시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보면서도 실제로 보아야 할 분은 이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짐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짐만 내려놓고 혼자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짐만 내려놓고 '아이고 모르겠다. 까짓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죠' 이런 분은 짐을 내려놓은 분이 아니라, 퍼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짐을 내려놓은 다음 예수님의 멍에를 다시 지라는 겁니다. 져야 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합니다. 이것은 짐 맡긴 태도가 아닙니다. 그 짐을 맡겨놓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그래 여태까지 네 이익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노력했지? 이제는 내가 도와 줄 테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 내가 밀어 줄테니까 해라’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은 따 논 당상 아니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주면 되지? 자기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지 않으면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언뜻 보면 힘들어 보이지만 덮어쓰고 끌어보면 의외로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선 내 짐이 늘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짐을 졌지만 그것을 정말 가볍게 여긴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 있죠? 물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은 아니지만... 누구요? 예, 야곱입니다. 7년만 봉사하면 네가 연애하는 딸을 줄게. 7년 뒤에 외삼촌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다시 7년간 일을 시작하죠. 그런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고요. 이유가 뭐니까? 라헬을 연애하므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고요 합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아무 걱정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보람을 느끼고 비지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배우시다. 그 분이 피뎀은 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것 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처럼 놀고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고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놀기 바빠서 옷에 똥싸는 아이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야죠!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개역, 로마서 8:18~28]



늘 제목이 성경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울의 말입니까? 아니면 홍 전도사 말입니까?

내 말...

권사님 말씀이라시네요. 좌우간 우리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성경말씀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반성을 좀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꼬아 놓았거든요. 사도 바울의 말도 아닙니다. 물론 제 말도 아닙니다. 의외로 이런 말을 쓰시는 분이 많아서 이런 말 좀 쓰지 말자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들은 말인데요, 어떤 분이 날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는 길에 남의 채소밭에 들어가서 잘 익은 것을 따서 아침 반찬을 해 먹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러니 주인이 화가 몹시 나서 '도대체 어느 놈이야?'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잡았답니다.

잡아서 두들겨 패 버린 모양이죠.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목사님이 심방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가 차더랍니다. 남의 것 훔쳐 먹다가 두들겨 맞아 입원을 했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심방이 제일 어렵답니다.

"집사님 이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분 대답이 "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도 당하셨는데 이 정도야..." 거기서 끝내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남의 것을 훔쳐 먹다가 두들겨 맞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데 '잘 했습니다.'고 해야 합니까? 본문 8장 28절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을 유지한 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눈만으로 삽니다. 그 하나의 눈에 보이는 걸 현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도는 현실을 보는 눈 외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볼 눈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성도는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보고 삽니다. 그것은 현재의 고난이고 또 하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에 너무 치중하면 안됩니다.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아웅다웅하며 산다면 성도라고 하기 곤란합니다. 반대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결코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 부를 때도 조심해야 할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노래를 부르면 그만 살고 빨리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그 찬송이 옛날 가사에는

‘괴롭과 죄만 있는 곳 나 어이 여기 살리까?’ 그럼 뭘해야 되죠? 빨리 가야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그러니까 현재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이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가올 놀라운 영광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비록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남이 볼 때 번쩍거리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곧 장차 나타날 몸의 구속을 뜻합니다. 우린 양자를 잘 안 들이니까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 분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미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찾아 보셨어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25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며 그렇더라도 장차 나타날 그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참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왜 고난이 닥칩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먼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몸의 구속 곧 양자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어리석고, 게을러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면 그걸 고난이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겪으셨는데 나도 이 정도의 고난이야...’ 이러면 안됩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고 죄의 값을 받는 겁니다. 실수에 대한 벌이죠.

죄라고 하기는 어쩔지 몰라도 우리가 받는 것이 정말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 실수나 내 잘못에 의해서 받는 벌이나 정도는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가 부족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희생적이어야 하고 더욱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애매하게 받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절을 봅시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21절 표현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성도가 원래 있었던 자리, 즉 범죄하고 쫓겨났던 그 자리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 위치를 회복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광스런 그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왜 그걸 바라보고 있나요? 더군다나 탄식하면서... 20절에 볼 것 같으면 피조물이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는 피조물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굴복케 하신 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피조물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결국 따져보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시다. 누구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 때문이죠. 말하자면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래 위치를 회복하게 되면 피조물들도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모든 피조물들도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을 만물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성도들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이렇게 간구하시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27절 중간쯤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엉뚱한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합당하게 간구하시니까 우리 기도보다 더욱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심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복도 등급이 있습니다. 심복 중에 좀 낮은 등급은 하라하는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심복은 하라하는대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거꾸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속으로 의도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마음을 읽어서 대통령의 지시와는 동떨어진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심복입니다. 왜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쓸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각하의 말은 이렇게지만 의중은 아마 이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소견대로 판단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잘 되면 각하의 의중을 제대로 읽은 아주 충실한 심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 읽었으면, 아니 의중은 빠르게 읽었음에도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통령 대신에 자기가 다 덮어쓰고 물러납니다.

이런 유의 심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죠? 진짜 심복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 대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아주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속을 잘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28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돈을 해보면, 성도는 장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이 내용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줄여놓은 표현이 28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28절을 애용하면서도 이 부분을 잘라먹는 것입니다. 28절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앞쪽은 '만약에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이 되고 뒤쪽은 '뭐뭐 할 것이다'라는 결과를 뜻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이란 이 말은 표현을 조금 바꾸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누구의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이걸 우리 일입니다.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이 중요합니까 뒷부분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간에 어쨌거나 하나님이 무조건 좋은 걸로 바꾸어 주시면 고맙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없이 앞부분은 잘라내 버리고 뒷부분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소위 땡깡을 놓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뒷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하고 뒷부분만 자꾸 강조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애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이러시지 않을까요?

대학교 시험 치러 간 녀석이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뭐라고 하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떨어졌다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미루는 행위입니다. 영락없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왜 떨어졌어요?

공부를 안 해서...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요? 시험에 왜 떨어졌어요?

점수가 안되어서 떨어지죠.

맞습니다. 점수가 안되어서 떨어졌죠.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원서를 여기 저기 막 갖다 넣어보고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점수가 안돼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노력을 덜 해서 떨어지거나, 욕심을 너무 부려서 떨어지는 것이죠.

전에 누가 아주 재미나는 문제를 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같은 곳에 같이 원서를 냈습니다. 9명 정원에 10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한 사람은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떨어뜨릴까요? 필로 떨어뜨려요? 정답은 하나님도 점수로 떨어뜨린답니다. 하나님도 점수 보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졌으면 당장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옳은 처사입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 '비록 노력이 부족하고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노력하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단 말입니다. 떨어지면 무조건하고 하나님 핑계대는 버릇은 고쳐야 합니다. 자기 실력 부족으로 떨어져 놓고 또 이 구절을 갖다대는 것은 성경을 너무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문제가 생겼거나 일이 잘 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겠지요?' 이 말 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새옹지마라는 말 있죠? 塞翁은 변방의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변방에 어떤 늙은 사람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이 한 필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자가용 1호인데 이게 집을 나가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이 귀한 말이 도망가버려서 어떡합니까?' 하고 위로했더니 이 노인이 한다는 대답이 '뭐 그게 꼭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이 말이 다른 암말을 여럿 거느리고 돌아왔어요. 이걸 황재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또 몰려 왔습니다. '아이고 복도 많지...'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꼭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를 못쓰게 되었어요. 그 소릴 듣고 동네 분들이 또 왔습니다. '이래서 어찌겠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하는 말 '뭐 그렇다고 그게 꼭 잘못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에 나갔는데 다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다리 부러진 그 아들만 살아 남았죠.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 새옹지마란 말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 즉 저 변방 늙은이의 말처럼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슬픈 일이 생겼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아주 흡사한 얘기가 '전화위복'이라는 말입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화위복이 있으면 전복위화는 없을까요? 복이 변해서 화가 되는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고진감래, 고생이 다 하면 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아, 그 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의 짝이 있었었습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 밑에 한 줄 더 있어요. 흥진비래(興盡悲來), 기쁨이 다하면 슬픔이 온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픈 일이 생겨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요? 슬퍼도 뭐 그리 슬퍼할 것도 없고 기뻐도 별로 기뻐할 일도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요? 목석(木石)이 되는 거죠.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는, 감정이라곤 없는 바위처럼 사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말을 쓸 때는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말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이나 새옹지마라는 말이 오늘 본문과 다른 점이 뭘니까? 전화위복이나 새옹지마란 말이 적용되는 대상이 누구니까? 이 말의 적용대상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입니다. 특별한 누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은 여기에도 일어날 수 있고 저기에도 일어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동시에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롬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선으로 끝납니다. 좋은 길로 바뀌어집니다. 전화위복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전복위화가 될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그 차이를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대단히 달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때 '모든 것'은 좋은 일을 가리킬까요? 나쁜 일을 의미할까요? 좋은 것이 협력하여 좋은 것이 되는 것 이걸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느낌으로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실수, 다른 사람의 악의, 이런 것들로 해서 잘못된 일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로 하여 생긴 잘못들이 다 협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고야 만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처음 이야기처럼 새벽기도 다니면서 남의 것 따먹었고 두들겨 맞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18절에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앞서고 손해 볼 것을 안 한다는 비난을 참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돕는 일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쟁이들이 참 짝니다. 남모르게 후원도 하고 현금해야 될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짝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았으면 합니다.

오랜만에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같이 근무할 때는 그 분이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는데 몇 년만에 소식을 들었더니 어느 교회 장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아는 것 아니냐고 물었어. 옆자리에 2년이나 같이 있어도 교회 다니는 것조차 몰랐거든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질이 조금 고약하더라구요. 그 분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악착같이 따지는 것을 보고 제가 말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장로라는 겁니다. 같이 근무할 때 알았더라도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마음은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싫은 소리를 왜 듣는지 잘 한 번 살펴보세요. 정말 이유없이 당하는 겁니까? 너무나 신앙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신앙을 빙자한 이기적인 행동 때문입니까? 신앙적인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이기적이고 양보할 줄 몰라서 그런가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조금 멋진 영감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선생님들이 울릉도 들어가는 이유는 진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울릉도 갔다오면 벽지 점수가 아주 많아서 진급이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발령받아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울릉도 들어가서 1년 만에 튕겨 나왔습니다. 들어갔다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3년은 버티고 나오거든요. 3년은 버티야 일이 되는 겁니다. 점수 때문에 교장, 교감선생님에게는 완전히 입안의 혀같이 놀아야 합니다. 가족을 다 놔두고 들어간 이상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점수는 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1년 만에 교감하고 싸워서 쫓겨나와 버렸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일입니다. 그 바람에 자기 후배는 훨씬 먼저 진급하고 이 분은 그 이후에도 여러 해 더 고생하고 지지막하게 교감이 되어 저 시골 △△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몇 개월만에 만났더니 이 분이 남들보다 훨씬 늦게 교감이 되었으면서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좋은 교감되기 그것 일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일 이백 켠더니 △△군내에 멋진 교감이라고 소문나 버렸다'는 거죠.

교감선생님쯤 되면 어디 회식하러 나가면 자기 돈 잘 안 쓰려고 그러합니다. 안 쓰고 받아먹기만 하는 풍토인데 자기가 좀 썼다는 거죠. 좀 썼더니마는 멋쟁이 교감이라고 소문이 돌더라는 겁니다. 일등 교감되기 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듣고 좋은 소리 듣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욕심 덜 부리고 조금만 풀어 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놈 멋지다라는 소리 듣기 아주 쉽습니다.

현금도 해야 되고 불우한 이웃도 도와야 되고 후원해야 될 것도 많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풀고 사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과 살다보면 속 터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양보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본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성질 같으면 한방 해 버리겠는데 내가 다른 이유로 참는 게 아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님 생각해서 참는다.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내가 보는 거다라는 말이 나온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덕에 누가 덕을 봅니까? 아무도 덕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 깊이 반성을 하셔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시어머니 아침도 안 해주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며느리가 우리 옆집에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 할머니 불쌍하다고 아침을 갖다드리곤 하더라고요. 새벽기도는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시어머니를 저렇게 구박을 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술집에 가기 싫은데 안 믿는 사람들 회식한다고 자꾸 끌고 가지요. 안 오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왔으니 너희도 혼 줘 나 바라 하고는 마이크 잡고 찬송가 불러 버려요? 가끔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지 한번 볼래? 술집에서 마이크 잡고 찬송가 불러 버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위기 영 영 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있죠.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양보하고 물러서 주세요. 뭘 위해서요?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를 위해서 물러서고 물러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 하는 문제에 걸리면 칼이 들어와도 안된다고 버틸 때에 불신자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적절한 고난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누구 얘기죠? 그건 자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틀렸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판단 착오로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된 결국은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어린애가 '아빠 구두 닦아 줄게' 하면서 열심히 구두 닦습니다. 애들에게 구두 맡겨 두지 마십시오. 버려놓습니다. 열심히 닦느라고 온통 구두약을 칠한 것까진 좋은데 바닥도 닦고, 속도 닦고... 어떻게 해요? 구두 속까지 다 닦아놨어요. 어떻게 할거예요? 야단을 칠 수 있습니까? 바닥까지 닦은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분명히 잘못을 저질러 놓았지만 어떡해요? 다음 번에는 구두를 감추는 한이 있더라도 잘 했다고 칭찬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아직 어려서, 판단이 미숙해서 잘못하는 것은 구두 닦으면서 속까지 닦

은 셈입니다. 잘못은 했을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함이나 환경이 잘못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총리가 십여년 전에 자기들이 죽이려다 팔아버린 동생인 것을 알고는 기절초풍을 하지요. 요셉이 옛날의 원한을 갚지 않을까 싶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뭐니까? '형님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형님들이 잘 팔았네요? 형님들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하여 상을 받아야 되겠죠? '야 우리가 옛날에 너를 팔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총리되었겠냐?' 그렇습니까? 형님들은 그 말할 자격은 절대로 없습니다. 동생을 판 것은 세상에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이용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를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일이 잘못되었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일은 잘못되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관계없이 우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 보는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뭣 때문에 손해를 봐요? 내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손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 때문에 물러서다 보면 손해 볼 수도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난 지고는 못 산다!'라는 분 더러 계시죠? '지고는 못 산다!' 여러분, 목숨 걸만한 일에는 목숨을 걸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될만한 일은 좀 지고 사십시오. 물러서고 양보하고 그래서 손해봐야 할 경우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적잖게 있을 것입니다. 물러서십시오! 이게 내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아니다 싶으면 물러서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직도 자존심 싸움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직도 부부 사이에 자존심 싸움하고 계신다면 아마 아주 젊은 분일 겁니다. 나이 좀 들면 그런 것 가지고는 안 싸우지요? 웃는 것이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그런 싸움 안 하시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싸우실 덕이 없죠.

부부 사이에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이 없는 가정이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서퍽어치도 안되는 자존심일랑 빨리 버리십시오. '당신 하는 짓 봐서는 도저히 못 물러선다. 그러나 명색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전에 우선 당신한테 내가 양보를 좀 해야 되겠다. 내 말이 틀려서 물러서는 것 아니다!' 그렇게 악을 쓰면서도 지십시오. 여러분, 조금 물러서면서 삽시다. 내가 어리석어서 물러서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손해 볼 줄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무엘하 16장 한 번 봅시다.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입니다.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죽으라는 얘깁니다. 야, 이 놈이 잘 되었다 너도 한 번 죽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10절 보십시오. 신하들이 임금님 가서 한 칼에 죽여 버릴까요 그랬더니 10절에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와 두라는 얘기죠.

와두라는 첫째 이유가 뭐니까? 저주를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는 거니까 와두라는 얘깁니다. 11절, '또 아버지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와두라는 두 번째 이유가 뭐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저러는 판인데 하물며 옛날 왕족이었던 사울의 집안 시므이가 그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굉장히 느그럽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12절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배게 갇아 주시리라' 와두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좋은 대답입니다만 다윗의 대답은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신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으시리라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욱을 퍼붓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은 스스로가 억울하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시므이가 저렇게 욱을 퍼붓고 있지만 내가 저 욱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내가 참고 넘기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오히려 내게 선으로 갚으실 줄 어찌 알겠느냐? 이게 다윗의 심사입니다. 보세요. 지금 아무리 도망가고 있는 왕이지만 저 시므이가 하는 저 저주를 단 칼에 저지시킬 수 있음에도 놔두라는 겁니다. 그 욱 다 들으면서 그냥 갑니다. 시므이는 신이 나서 따라오며 욱을 퍼붓지요. 다윗은 그 억울함을 그대로 다 뒤집어 씹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다윗이 괜히 복을 받은 것 아닙니다. 다윗의 이런 자세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보면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억울하다, 분하다, 손해본다 이런 느낌이 들 때에 너무 값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억울함도 받아넘깁시다. 큰 고기를 잡기 위한 낚시 떡밥일 뿐입니다. 떡밥 던지면서 아까워하시는 분은 낚시를 그만 두셔야지요. 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다면 더 큰 것으로 갚으시리라는 믿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정리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먼저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 복 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자꾸 주장하지 말란 뜻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마 6:33절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지요?' 하고 따지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지난 주 설교에서 '성도가 열심히 봉사하는 일도 사실은 놀고 먹기 미안해서 재미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 아이의 신앙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가 좀 자라나면 부모를 위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리다면 어떻게 해도 귀엽습니다.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이제 조금씩 어른스러워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기철, 손양원, 애양원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개역, 빌립보서 2:1-11]

지난 주, 2박 3일 동안 목사님 인도로 전도사님들과 사모님들까지 6명이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과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애양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말만 듣던 곳이어서 가 보았으면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솔하신 우리 주 목사님과 뒤에서 도와주신 성도님들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둘러보면서 느꼈던 소감과 생각났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목에 사람 이름이 몇 명이지요? 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이라 하셔야지요. 세 사람이라 하신 분은 공부를 조금 더 합시다. 최소한 애양원이 어떤 곳인지는 알아야지요. 주기철, 손양원, 애양원 이러니까 비슷해서 세 사람 같아 보입니다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곳을 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곳을 소개하는 책자도 많이 있으니 꼭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곳을 돌아보면서 제게 특별히 다가왔던 성경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을 좀 더 살펴본 뒤에 다녀온 소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장 1절을 한 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 길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에 권면이라고 한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 격려나 위로로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가 있거든...' 남을 격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격려를 받는 것일 수도 있는데 문맥을 보면 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위로를 받았거든...'이란 뜻입니다. 수식어가 많아서 애매한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이 조금 더 길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데 상당히 깁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떻게 할까요?

봉사...

봉사라고 하셔도 됩니다만 '한마음' '같은 마음' '뜻을 합하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가 되라.

그럼요.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하고 뭐 하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오늘 은혜 받았습시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혼자 즐겁니까? 은혜 받고 나가다가 문지방에 딱 걸려 넘어지면 뭐라 하죠?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아이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것 맞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감사한 일이지요. 은혜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 가다가 딱

없어지면 ‘에이, 재수 없다?’ 이걸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현관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고함을 질러요? 이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혼자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형제와 함께 하나가 되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교회 문밖에만 나가면 자기 이익을 챙기고 남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이걸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뜻입니다. 적어도 본문 1, 2절을 요약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거든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가능합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건 상상이 안되는 일입니다. 다투느니 차라리 지고 마십시오. 다투느니 손해보고 끝내십시오. 다툼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허영으로도 안됩니다. 은혜 받고 한 마음이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없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겸손합니까? 본문을 계속 보세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죠.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퀴즈 문제를 내면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 틀린 부분을 고치시오 했는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본문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고 ‘낮게’라는 말의 받침을 ‘ㅈ’으로 바꾸었거든요. 어떻게 읽어야 하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걸 곤란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란 말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말이죠? 실체는 누가 높은데요? 내가 높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란 건 실제 내가 높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일도 더 많이 했지만 저 사람을 낮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힘이 약한데 덩치 커다란 녀석이 시비를 걸어요. 한 번 붙으려다가 ‘겸손해야지. 그래 내가 너한테 못 이기잖아. 우리 싸우지 말자’ 이걸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뉘니까? 비굴함이죠. 질 때 지더라도 한판 붙어 보는 게 차라리 용감하다는 소리라도 듣지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힘 없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려면 먼저 저 사람보다 힘이 세든지 아는 게 더 많든지 뭔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겸손해 질 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허술한 옷을 입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두쇠라고 그래요.

구두쇠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겸소하다고 말하죠. 돈 없는 사람이 허술한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그건 아무도 겸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지요. 겸손을 말하기 전에 내가 겸손할 건 디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돈도 많아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있는데도 그를 더 낮게 여기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저 사람보다 낮지만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만 돌아볼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전부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낮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아보아 주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실력이 나운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는지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5절부터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셨는데 그 분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길어요. 또 간단하게 줄입니다. 그 분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을 어디에다 비유를 할까요?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형편이 뒤집어져서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때에 주인이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하고 조금 비슷할까요? 주인이 종된 것이라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어떤 분이 군에서 고참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고참이 줄병 애를 굉장히 많이 먹었던 모양이죠.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제철에 와서 만났습니다. 웃으시는 것 보니 짐작하시네요. 구박 많이 받았던 줄병이 자기 직속 상관이 되어 만난 거지요. 직장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안될까요? 지금도 계신대요. 회식할 때 그 고참이었던 부하직원은 잘 안 간대요. 왜 안 가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른대요. 군에서 그렇게 괴롭혔는데 자기 직속 상관이 되어 있으니 웬만하면 회사 때려치우고 싶을 겁니다.

군대 고참이 회사 부하직원이 된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한 것이 주인이었다가 종이 된 것 아닐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린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얘기할 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늘을 마음껏 날던 새가 어느 날 지렁이가 되어서 땅바닥을 기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좀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마음대로 날던 새가 땅에서 지렁이가 되어서 꾸물꾸물 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을 가리켜 종의 형체를 지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더러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나를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높이셨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 묘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땅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땅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의미죠. 9절 10절 11절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눈에 확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으니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리라’** 그래서 은혜가 되시면 아직은 조금 더 은혜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높이 올리시는 것 그건 하

나눔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작 우리가 겸손해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짜 은혜는 맨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뭘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높아지려면 이 땅에서 어둠이 이처럼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춘다? 글썄요, 이건 아직도 천국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렇게 낮아짐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도 높아지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왜 교역자수련회 갔다오면서 이 구절이 특별히 은혜가 되고 이 구절을 살피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연극을 벌써 두 번이나 했거든요. 그 분이 왜 그렇게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에 참배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는 우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일본 순사들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질책했습니다.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옥고를 치르고 결국은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라에서 독립 유공자로 인정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했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일제와 싸웠다는 것을 나라가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사각오를 주장하시며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없다고 버텼던 목사님의 이야기는 책을 꼭 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기념관이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상 진해라고 하시네요. 진해와 창원 그 중간 어디쯤 같은데 웅천면 웅천교회당 안에 자그마한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 앞에서 목사님이 사진 찍자 하셔서 다 찍었습니다. 제가 별 능력은 없어도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하셨던 토마스 목사님의 고향 교회에서도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 때는 이런 분의 고향 교회에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가는 게 영광이겠다 싶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순교기념관에서는 주기철 목사님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장소에서 있는 것 자체가 참 은혜가 되더라구요.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애양원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기회가 되면 한번 가 봐야 될 곳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곳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필로 유명합니까?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졌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했고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내서 양자로 삼고 그를 키워 목사로 만들었던 분입니다. 오죽하면 여동생이 '오빠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오빠로 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난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집을 뛰쳐나가 버렸답니다. 바로 그 분이 재작년 신대원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많이 감격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일로 유명합니까라는 자기 자신도 사실은 6.25사변 때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신 분입니다. 아들 둘도 순교했고 본인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둘러보면서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점입니다.

나환자, 지금은 한센씨병이고 하는데 옛날에는 문둥이라 그랬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기 문둥이 온다 하면 죽어라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문둥이 오면 왜 도망가죠? 애들 간 빼먹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후에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나환자라 했다가 지금은 이 병의 균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씨병이라고 합니다. 이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나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목회했던 분을 보면서 차라리 순교보다 이게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나환자들의 모습이 참 흉합니다. 애양원에서도 환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사진만 자세히 보았습니다. 나환자촌에서 나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면서 나환자 몸에서 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치료하는 장면의 그림이 있더라구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했다는 것이 어찌면 순교보다 더 위대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한다면 전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어요. 예삿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식탁에서 계란 하나 삶아 주면서 나환자촌에서 나온 건데 먹으라 하면 먹겠습니까? 나환자가 문드러진 손으로 계란 하나 집어 주면 받아먹겠습니까? 나병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금도 함께 있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꺼림칙하게 여기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1930년대니까 나환자라면 도망가기 바쁘던 그 시절에 거기 가서 나환자들을 섬기고 목회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었다는 얘깁니다. 애양원이라는 곳은 여수 근처에 반도 비슷하게 바닷가에서 툭 튀어나온 곳에 나환자들만 수용해서 치료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한 나환자 집단 거주지입니다.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6.25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대충 아는데 둘러보면서 놀란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생겼죠? 천사 보셨어요? 얘기같이 생겼습니까?

얘기같이 예쁘장한데 날개가 달렸어요.

전 거기 다녀오면서 천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코 크고 잘 생긴 서양 사람들로... 1900년대 초반에 어느 선교사님이 광주로 가던 길에 나환자 여자 한 분을 발견하고 안아서 말에 태워 가지고 광주로 갔답니다. 치료하려고 광주로 가니까 사람들이 모래를 던지고 자갈을 던지며 가까이 못 오게 했답니다. 문둥이를 어디 데리고 오느냐는 거지요.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판국에 문둥병 걸린 여자를 데리고 가서 치료하려고 애쓰다가 그 여자는 결국 죽었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닐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나환자 치료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집을 구해서 나환자들을 몇 십명씩 수용해서 치료하다가 옮겨가서 정착한 곳이 여수의 애양원이었습니다. 이 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쳐다보는 제가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정말 천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분들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의 한국이면 서양에서 볼 때 어떤 나라입니까? 80년대만 해도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일본 사람이나고 물었답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중국 사람이나고 묻죠. 세 번째도 한국 사람이나고 잘 안 묻는데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모른답니다. 기껏 아는 사람 만나면 알긴 알아요. 6.25 사변 때 깨지고 형편없이 부서진 나라로만 생각하지 현재의 한국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때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자존심 몹시 상해서 돌아왔다고 그러합니다. 그나마 한국을 알아주기 시작한 것이 88년도 올림픽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1900년대 초반의 한국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라 축에 들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 복음을 들고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주로 의사더라구요. 여러분, 의사 되기가 보통 어렵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 공부 다 마치고 의사 자격증을 딴 후에 이름도 없는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겠다고 하면 보내겠어요? 세상 어느 곳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마한 나라에 와서 문둥병 걸린 환자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천사 아니겠어요? 천사가 뭐 얘기같이 생겨 가지고 이쁜 날개 달고 귀엽게 생겼어요? 바깥사.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일을 했던 이 분들이 참 천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유심히 보았습니다. 옛날 성경이 그렇게 종류가 많으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쓰던 성경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더라구요. 꼼꼼하게 한참을 봤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싶었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남의 말을 배워 가면서 성경을 그 쪽 말로 옮겨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다음 주까지 설교 한편 써 오십시오!' 하면 한 번 해 보시렵니까? 글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같이 근무하던 어떤 선생님이 “야, 목사 월급 많더라” 자꾸 그래요. 사례를 많이 받는 특별한 목사님 얘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한번 바꿔 볼래? 일단 대학원 졸업하고 일주일에 30분 내지 40분짜리 설교 3편은 기본으로 작성하고 새벽기도 20분, 30분짜리 설교 날마다 작성하고, 밤낮 없이 전화만 오면 뛰어나가고 그러면서 그 월급 받고 한번 해 볼래?” 하니깐 안 하겠대요. 어디서 못하겠다고 손 떼버리냐 하면 ‘40분짜리 일주일에 3편’ 이 말 한 마디에 아무리 월급 많이 준다고 해도 못하겠다고는 거죠. 글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공부 많이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처음 우리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1900년대 경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나라인 데다 사람이 많으면 해 볼만 하겠지만 중국 대륙의 한 모퉁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조그마한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말을 배워가면서 번역하다가 잘 안되니까 스코틀랜드에 도움을 요청했지요. 목회 잘 하고 계시는 언어학에 뛰어난 목사님을 중국으로 파견해서 우리말 성경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한국사람을 고용해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번역본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구요. 번역본이 많다는 것은 그런 비슷한 작업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래요. 아주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나라, 이 먼 곳까지 와서 그런 작업을 하고 그 흔적을 남겨 놓았더라는 말입니다. 그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앞날이 창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좋은 것 다 버려두고 여기 와서 그 나환자들과 생활하며 그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을 하고, 몇 되지도 않는 낯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을 배워가며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만해도 조선시대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번역은 해야 하고 알맞은 단어는 없으니 재미있는 현상이 생깁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사밧일이라고 적어놓았어요. 영어로 하면 *sabbath day*거든요. 우리말로 옮기려니까 맞는 용어가 없어서 비슷한 발음대로 해 놓고 그 밑에 설명을 달아 놓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진 책이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 한 번 읽는데 얼마 걸리세요? 기록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저 우리에게 온 책이 아닙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성경이 얼마나 고마운 책인지 모릅니다. 연애편지 읽듯이, 연애편지는 한꺼번에 왕창 읽어 제끼지 않잖아요. 아껴가며 읽고 또 읽는 것이 연애편지인데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이 성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성경이 더욱 사랑스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스스로 자청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을 빌립보서 2장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했던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이나, 나환자를 위해 일평생을 바친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춘 겁니다. 어디까지 낮췄어요? 선진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에서 어디까지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조그마한 나라의 그 가난하고 험벗고 병든 사람에게까지 자신을 낮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도 다 뛰어난 수재들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었던 뜻입니다. 그 능력을 낮추고 낮춰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자기를 비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까지 낮아지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고 수련회를 통해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성깔이 좀 못돼서 싸울 일이 생기면 가끔 싸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한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려다 보면 싸울 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도 성질 고약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못 참아서 싸울 일이 생기면 바깥에서는 성질을 풀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안 싸우겠다는 것이 나름대로는 제 자신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곳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더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름도 알 수 없는 저 먼 나라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런 기회가 함부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그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르심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비워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나 자신을 얼마든지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누구 앞에서 낮추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부부 사이에 자존심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큼 자신을 낮추셨다고 믿는 사람이 부부끼리 아직도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앞에서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철저히 섬기는 자세로 좀 살아보십시오. 내가 낮추어야 할 대상, 내가 높여야 할 대상이 남편이요, 아내요, 대문만 열면 마주치는 옆집 사람입니다. 운전하고 가시면 저 앞에 알짱거리고 있는 초보운전자 있죠? 초보운전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도 내가 높여줘야 할 대상입니다. 왜 운전대만 잡으면 목사님 입에서도 욕이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 놓았더라구요. 선하디 선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는 저 초보운전자도 내가 높여야 할 대상으로 여깁시다. 직장에 가면 정말 나쁜 동료들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그를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직장 상사요? 다시는 함께 있고 싶지도 않은 동료에게 여러분이 천사가 되십시오. 그 나환자요? 한국사람들도 싫어하고 가족도 버린 그 나환자들에게 천사가 되어 다가갔던 그 분들 말이예요, 그 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라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 이웃에게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어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추면 내가 높아진다' 그런 계산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런 삶을 살 때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런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자기의 욕심인데도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개꿈하고 하나님의 계시하고 어떻게 분간합니까? 자고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그거 개꿈이야' 하는데 본인은 계시를 받았답니다. 개꿈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분간해 냅니까? 꿈을 잘 안 꾸시는가 보죠? 꿈에 하나님을 봤다는데 정말 하나님을 본 겁니까 아니면 개꿈을 꾸 겁니까? 분간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죠. 개꿈이나 성령의 역사냐는 것은 그 꿈을 보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느냐 아니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난 후에 크게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오늘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복권을 사러 가는 사람은 개꿈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여러분에게 복권 당첨시켜주려고 그걸 계시하고 계시요? 제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분으로 만들지 맙시다. 의외로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더러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는 애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높은 곳에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던 그곳에서 좋은 환경 다 버려두고 이 험한 곳에 와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 놓고 도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힘은 들겠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케 될 것입니다.

야곱아, 이 눈뜬 소경아!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려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옵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심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 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이백이요 숫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숫양이 이십이요 젖나는 약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나귀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삼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문기를 내가 뒤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엿 것은 뒤 것이나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들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역, 창세기 32:1~20]

어는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신학기에 새로 오신 여선생님께 인사하기를 ‘보기보다는 호봉이 참 높으시네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선생님이 기분이 아주 나빴다고 해요. ‘내가 호봉 높는데 자기가 도움을 준 게 있나? 자기 돈 가지고 월급 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월급 주는 것도 아니면서 웬 시비냐는 말이죠. 내색은 안 했지만 속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얼마쯤 지나고 보니까 그 교감선생님의 인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도 통하고 여유도 생기니까 어느 날 그 교감선생님께 물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에 교감선생님이 ‘보기보다는 호봉이 참 높네요?’ 하시는 말에 제가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교감선생님 그 때에 왜 그랬어요?” 하고 물었더니 교감선생님의 대답은 “나는 그게 보기보다는 젊다는 뜻이었는데...” 하더라고요.

좋은 뜻으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나쁜 뜻으로 받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뭣합니까? 우리는 흔히 대화 중에 좋은 말도 나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이 나보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좋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병이기는 하지만 병치고는 좋은 병에 해당됩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그걸 좋게 해석하는 것은 생존에 아주 유용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부친께 종종 부탁을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잘 빠져요. 어른 보고 잘 빠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보고 만만하게 보거나 깔볼 사람이 아버지 아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 저 얘기는 내 듣기에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 날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신신당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홍보고 깔볼 사람이 없는데도 조그마한 일에 토라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무조건하고 저건 내 듣기에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고 가끔 당부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병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연애결혼과 중매결혼 중에 이혼율이 어느 쪽이 높을까요? 연애결혼은 두 사람이 잘 맞춰서 한 것입니다. 반면에 옛날의 중매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이 이혼율이 높으

나는 말입니다. 묘하게도 연애결혼이 이혼율이 높아요. 연애결혼의 이혼율이 더 높다는 것은 내 눈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한 것이 별로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몇 년을 들여다 보면 뭐해요? 눈에 뭐가 썩여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럴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내 눈을 믿지 말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보여주면 뭘 하고, 좋은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면 뭘합니까?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주변의 믿을만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본 것은 대단히 많지만 실컷 보고 듣고 했음에도 정작 중요한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어떤 닮은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어릴 때 고향에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목숨이 위태로웠고 형님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외갓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머나먼 외갓집에 가서 한 20년 고생을 했죠. 고생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무사히 고향 가까이 오니까 불현듯 옛날 생각이 나고 형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난관이 형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사자를 자기 형님에게로 보냈습니다.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주인의 형님이 사백인을 거느리고 오더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백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대단히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야곱이 취한 조치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식구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왜 두 떼로 나누죠?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도망을 간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머리를 많이 쓰기는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사백명을 이끌고 오는 형님이 무장이 안된 그리고 가축만 거느린 야곱을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쪽만 치겠습니까? 이백명씩 갈라서 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듯 싶은데도 어쨌든 둘로 나눕니다.

만약에 형님이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까? 소떼와 양떼를 끌고 어디로 도망을 간단 말입니까? 정 안되면 절반만 잊어버리고 절반이라도 건지자는 심산에서 떼를 나누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봐도 별 소용없는 것인 것 같아요.

두번째는 답답해지면 우리도 잘 하는 것이지요. 답답해지면 하는 게 뭐지요? 평소애 잘 지낼 때에는 좀 잊어버리고 있더라도 답답해지면 하나님 찾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취한 세 번째 조치는 뭘니까? 13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예물을 택하니라'고 합니다. 형님에게 줄 예물의 목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는 없으니 예물을 준비해서 형님의 마음을 어떻게 좀 돌려봐야 되겠다는 속셈이지요.

이 세 가지 작전 중에 특별히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야곱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신을 나타낼 때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 부르나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실 때에 특히 야곱과 관련해서 읽으실 때에 관심있게 보십시오. 야곱은 단 한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다. 어디에 가서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비슷하게라도 표현하는지 찾으면서 읽어보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두 군데쯤 발견할 겁니다. 열심히 찾다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아마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다. 항상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만 불렀습다. 여기서도 위험하니까 매달리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형태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합니다.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는 기도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께 가르쳐 드리며, 다른 말로 하면 상기시켜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지요? 밧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약 20년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외삼촌의 낫빛이 안 좋아요. 잘 부러먹을 때는 좋아하시더니 요즘은 보니까 어찌 안색이 안 좋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야곱이 우리의 재산을 다 떨어먹고...' 하는 눈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날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봅시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이 건 지나간 20년을 요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만 겨우 들고 갔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땡전 한푼없이 갔는데 그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하는 표현이지요. '여기서 형님 손에 망하게 하려고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아니지요?' 하는 뜻이겠지요.

28장에 벨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때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 그것만 주신다면 그리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먹을 양식과 입을 옷 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입을 옷하고 먹을 양식 정도가 아니에요. 자그마치 부인이 넷이죠.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식이 남자아이만 현재 열 하나입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자식이 몇 명인데요?

한 명.

한 명, 그것도 몇 년이나 기다려서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오, 육십년은 힘들게 기다렸다가 하나 얻었는데 그리 똑똑한 아들은 아닌 거 같아요. 이삭은 몇 명이죠?

두 명.

그 두 명을 얻기 위해 얼마나 용을 썼을까요? 40세에 결혼해서 20년을 용썼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손이 귀한 집안입니다. 손이 귀한 집인 것을 감안하면 야곱은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겨우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원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12절을 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도 벨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약속하셨던 것인데 야곱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 형 에서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야곱은 에서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잘 지켜주셨네요!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네!' 할 법도 한데 고민에 고민을, 온 걱정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잘 하는 기도인 듯 싶는데 앞뒤 정황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답답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냥 입에 발린 기도 같다는 얘기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자기의 피를 더 의지하는 이것이 야곱만의 얘기냐는 겁니다.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묘하게도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내 작은 피를 믿고 의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지난 주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어느 분이 “전도사님! 날 보고 그러셨죠?” 했어요. 흔히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면 ‘날 찌르는 거지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럼요!”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찌리지 않는 설교라면 문제가 있지요. 한 사람만 찌르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찌르는 설교여야 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날보고 하신 얘기죠?” “그럼요!”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설교이기 이전에 저 자신을 보고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런 기도 자세가 어떻게 보면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슬프게도 우리는 이런 류의 삶을, 이런 류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던 그가 예물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준비를 하면서 돈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현재로 하면 얼마쯤 될까? 제가 값을 잘 몰라서 어렵짐작으로 해 보니까 형님에게 주려고 떼어낸 가축만 약 4억이나 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염소 200마리이면 얼마쯤 합니까? 한 마리에 얼마쯤 하는지는 모르지만 암염소 200마리에 수염소 20마리를 보태면 대략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는 4억이나 5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예물입니까? 예물이라기보다 뇌물입니다. 세상에 무슨 뇌물을 이렇게 많이 갖다 드려요? 4, 5억 정도 되는 뇌물은 한꺼번에 갖다드리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나누어서 드리는 게 효력이 있습니까?

야곱이 몇 때로 나누어서 드렸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세 때나 네 때 정도로 나누어서 보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암염소 200마리를 먼저 보냈습니다. 일차로 1억을 보내고 한참 있다가 양 200마리니까 그러면 또 1억입니다. 그 다음에는 암소, 황소를 합쳐서 이것은 약 2, 3억이 될 거 같네요. 그렇게 뇌물을 쓰고 싶으면 이때 쓰지 말고 처음에 사자를 보낼 때에 보내지요. 처음에 형님에게 사자를 보낼 때에는 어떻게 보내었어요? 맨입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왕창 먹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 가려는 듯 하더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형님에게 이렇게 뇌물 공세를 퍼부어서라도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겠습니까?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20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누구 생각이죠? 야곱의 생각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피가 많은 사람이예요. 나름대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일 것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문제를 만듭니다. 이 ‘자기생각’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빠진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물론 자기 아버지도 또 자기의 아버지한테 배운 거지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옛날에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겼거든요. 아비멜렉이 속았음을 알고 난 후에 추궁합니다. 왜 그랬느냐고 했을 때 이삭이 해명하면서 한 말이 ‘내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구 생각이요? 이삭의 생각입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내 생각’ ‘야곱의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다가 돌이켜 잘된 사람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죠. 그가 문둥병이 들어서 고치려고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번 씻어라’ 나아만이 몹시 기분이 상했죠. 내가 아무리 문둥병자지만 이 강대국의 위대한 장군을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환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옳다는 얘기죠. 누구의 생각요? 나아만의 생각이지요.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는 그 때에 충실한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결국은 엘리사의 말대로 행하고 병을 깨끗이 고치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복을 받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옳지도 않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고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사고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겠고, 무엇보다 귀기울여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냐고 하시는지 예민해야 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생각 우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두려워 말라고 야구감독이 사인 내듯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인을 많이 보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쳤을 때 외삼촌이 사흘 뒤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격합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그래서 7일만에 따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따라잡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 위기를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외삼촌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 어제 밤에 너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는 거다’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억울했지만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말하지 말라’ 했더니 ‘잘 됐다’ 하고 원한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삼촌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앞부분에 보시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문장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주었던 말입니다. 그 곳 이름을 야곱은 마하나임이라고 붙였는데 그 뜻이 바로 앞에 있죠. 하나님의 군대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군대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사인이지요. 여기에서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되돌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확실한 사인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인은 안 보이고 보이는 것은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 뿐입니다. 보여야 할 것은 안 보이고 보지 않고 무시해도 좋을 것은 눈에 왜 이렇게 잘 들어옵니까? 귀 어두운 사람 홍보지 마세요. 좋은 얘기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욕하는 말은 금방 알아들습니다. 귀 어두운 사람이 높임말은 못 알아들어도 반말하는 것은 금방 알아들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말의 높임말은 끝에 입이 모아지는데 반말은 입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리를 안 들어도 입 모양을 보면 금방 압니다.

야곱이 꼭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귀중한 사인은 하나도 못 보고, 그 대신 들을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무시해도 좋은 형이 온다는 것은 왜 그렇게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고 있는 사인, 지난 날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돌아보겠다고 하는 약속보다 무엇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이 성질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들을 가만히 따져 보십시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일에, 그리고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는 일에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꿀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꿀하고 가짜 꿀하고 분간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는 부모님을 돕느라고 꿀 장사를 잘 했습니다. 가끔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고 물으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 진짜하고 가짜하고 구분할 능력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만약에 구분할 수 있다면 걱정말고 가져가라.”고 하지요. 그런데 거의 모두가 그런 능력은 없다고 그래요. “능력도 없으면서 진짜 꿀 가짜 꿀을 왜 따지냐? 능력이 없으면 내가 갖다가 주는 꿀을 진짜라고 믿고 사 가면 네가 속이 제일 편하다.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구분할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갖다가 먹어. 그게 속이 제일 편한 거야. 그리고 불안하거든 먹을 생각 하지마.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능력이 없으니까 안 먹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잘 팔리더군요. 순 배짱으로 많이 팔았어요. 물론 질이 나쁜 것 가지고 이룬다고 직장 동료들에게 통할 리는 없겠지요. 시시한 그런 일에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꿀, 가짜 꿀 분간하는 방법이 많습니까는 거의 다 별 도움이 안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믿고 먹는 게 최고입니다. 믿을 수 없으면 안 먹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것 저것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 머리로 잘 안될 때는 제일 속 편한 게 ‘에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맡기겠습니다’ 하고 믿어버리는 것이 제일 속 편합니다. 야곱의 눈에 많은 것이 보였고 야곱이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무시해도 좋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 형 에서가 아무리 자기를 죽인다고 공격을 해와도 야곱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요? 야곱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하는 말씀이 있죠.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기로 작정해 두셨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에서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작정하신지 오래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알지 못할지라도 야곱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믿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잔머리 굴러가며 바둥바둥 살아야 할 처지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떨며 자기 나름대로 온갖 머리를 다 굴리고 있을 그 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를 통해서 이 구원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꾀에만 한없이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만으로 안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도 매달려 보고 그렇다고 하나님만 믿어 가지고 되냐? 뇌물도 써 봐야지!

하나님도 믿어보고, 부처님도 믿어보고, 성당에도 좀 나가봐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셋 중에 하나 짚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큰 처남의 얘기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시는데 성당에 가서도 헌금을 하고, 교회에 가서도 헌금을 하고, 절에 가서도 시주를 하면서 자랑을 아주 크게 하더라구요. ‘나 머리 좋지? 이래야 교인도 오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오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올 것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반쯤 믿고 내 노력도 적당하게 좀 보태니까? 이런 것을 두고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하죠? 양다리 걸치기지요. 반쯤은 이쪽에 걸치고 반쯤은 저쪽에 걸치고...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셔서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머리 굴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꿀 얘기를 했는데 양봉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가끔 '두번째 뜯 꿀 좀 줘' 그래요. 왜 두번째 뜯 꿀을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첫번째 뜯 꿀에는 설탕이 좀 들어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봄에 벌을 키울 때에 양식을 주다가 꽃에 꿀이 날 때가 되면 양식이 딱 떨어지도록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꿀이 언제 날지 예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벌통 안에 양식으로 두었던 설탕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첫번째 뜯 꿀에는 그렇게 설탕이 조금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두번째 뜯 꿀을 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또 묻지요. "너 이게 첫번째 뜯 것인지 두번째 뜯 것인지 분간할 수 있냐?" 못하죠. 그러면 잔피를 부리지 말고 주는 대로 갖다가 먹어. 이게 제가 꿀 장사를 했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것? 나름대로는 머리를 많이 쓴 겁니다. 그런데 분간도 못하면서 무슨 피는 자꾸 부리려는지... 사람이 믿을만 하면 믿고, 주는 대로 먹던지 믿을만 하지 않으면 안 먹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잔피부려 보려는 노력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답답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평안한 방법은 하나님을 상대로 잔피를 부리지 말고 아예 맡겨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진짜 꿀, 가짜 꿀 따지느니 믿고 갖다 먹는 게 낫고, 믿을 수 없다 싶으면 안 먹는 게 속이 편합니다. 보고 분간 할 능력도 없으면서 보거나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함부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느냐구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실망하거나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죄송하지만 눈쁜 소경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물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쳐다보니까 무엇이 보이죠? 성질 더러운 게 보여요? 그래도 이 형제는 좀 나아 보여요? 아무리 잘 봐도 그것은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성질 더럽고 좋고에 관계없이 이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보이면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집의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말썹만 많이 부리고 때로는 꿀도 보기 싫은 때가 생길지라도 그게 그 아이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아이이지만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본다고 보는 그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살피지 않고 함부로 내 판단 내 생각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지 않으면 눈쁜 소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싶는데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슴을 치고 울 일입니다. 직장의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직장 상사 더러운 거 만나가지고 일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버리면 차라리 속 편합니다. 그게 이 땅을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노력과 내가 해야 할 마땅한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나는 노력을 하지만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편안해 질 수 있습니다. 선린병원에 가보면 벽에 크게 적어 놓은 글귀가 하나 있죠.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의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의사가 고친다는 생각이 아니고 의사는 그냥 봉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봉사한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나온 생각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진급이 안되어 괴롭고, 직장의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일은 하나님을 믿고 싶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이 일이 가장 괴로운 일이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울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게 정말 하나님 모습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라고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사생결단하는 각오로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엎드려서 기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야곱보다 피가 더 많습니까? 야곱만큼 피 많은 사람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야곱보다 많습니까?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야곱보다 머리로 안 좋고 재산도 많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재산도 많지 않고 머리로 안 좋지만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야곱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야곱을 닮았나 안 닮았나 생각해 보세요. 안 닮은 분이 훨씬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야곱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야곱하고 정말 닮았다. 특별히 무엇을 닮아요? 피부리는 것만 닮았다면 야곱만큼 고생을 더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생하게 될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을 닮았든 닮지 않았든 야곱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고생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는 있지만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눈앞에 닥치는 작은 일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 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무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개역, 창세기 32:21~33:4]**

제가 담임했던 아이 중에 참으로 뛰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에서 수석을 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를 했죠. 시험 치고 오면 선생님들은 “너, 다 맞추었냐?” “몇 개 틀렸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시험 치고 온 애를 보고 “다 맞추었냐?”니까 다 맞추었대요. 그럼 수석이죠. 다 맞추면 만점이 10명이 나와도 다 수석입니다. 그 날 ‘경사가 났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석이 아니에요. 다 맞추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싶어서 뒤로 알아보니까 한 개 틀렸대요. 그래서 4등을 했습니다.

중학교에서 학교 명예를 높이는데 가장 큰 일이 아마 고입에서 수석하는 것일 겁니다. 은근히 기대했다가 많은 분이 섭섭하게 여겼죠. 그 아이를 불러 놓고 말했습니다. “네가 수석을 하면 너도 영광스럽고 학교도 이름을 날리고 담임인 나도 기분 좋은 일이겠지마는 수석이라는 것이 너한테는 좋은 게 아니다. 차라리 하나쯤 틀린 게 잘한 일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들어갈 때 수석이라 하면 3년동안 그것이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수석이나 100등이나 경우에 따라서 실력 차가 얼마 안됩니다. 그 해에 우리 반에서 2등 하던 아이가 들어갈 때 칠십 몇등으로 들어갔는데 2학년 때 이 두 녀석이 하나는 문과 수석하고 하나는 이과 수석을 했습니다. 일등이나 칠십 몇등이 실력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수석으로 들어가도 조금만 잘못하면 오십등 육십등 밀리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밀리면 ‘너는 수석으로 들어온 게 어찌 그러냐?’ 합니다. 칠십등으로 들어간 애는 이십등, 삼십등 하면 ‘야, 잘한다.’ 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수석은 무거운 굴레를 지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수석은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너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 틀린 것 잘했다. 들어가서 잘하면 된다’ 그렇게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학할 때 수석! 이렇게 이름이 한 번 잘못 붙으면 이름값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름값 못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성경에서 이름값을 제대로 못한 사람을 꼽으라면 일 번이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입니다. 몇 개국요?

열 개국.

그게 열 개국 아닙니다. 열 개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열 개국이라고 하십니다. 그 ‘열’자는 열십자가 아니고 ‘여럿’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후대에 많은 민족이 생겨날 거라는 얘긴데 자식이 몇 명이나 되지요? 백세 넘어서 낳은, 그것도 좀 어리숙해 보이는 어린

에 하나밖에 없는 판에 이름은 아주 거창합니다. 열국의 아비! 이름값 못하는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름값을 잘 할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름값을 잘 하려면 우선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이름을 거창하게 지어놓으면 이름값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자! 이 이름값 하려면 얼마나 힘들니까? 차라리 미련이라 지어놓으면 이름값 하기 아주 좋습니다(우리 교회에 이 이름을 가진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이름을 잘 지어놓으면 이름값 하기 쉽지만 잘못 지어놓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글썽... 이성자 집사님은 아무리 애를 쓴들 성자 소리 들을 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름값을 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제가 붙인 야곱의 다른 이름이 눈뜬 소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으며 기적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야곱의 눈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형님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것만 보이니 야곱은 눈 뜬 소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이름값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가리켜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그걸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피와 자기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길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형님이 온다고 해서 뇌물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조금씩 갈라서, 조금이라 해도 우리 식으로 몇 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나누어 여러 차례 형님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봅시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우리 가운데 밤에 경야 하다가', 22절에, 밤에 압복 나루를 건넵니다. 왜 밤중에 강을 건넜을까요? 이 강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왜 밤중에 강을 건넜을까요? 밤에 이동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야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군인들입니다. 이동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별통은 밤에만 이동합니다. 낮엔 이동을 못해요.

야곱이 밤중에 강을 건넌 것은 아무래도 군인들이 이동한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형님이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강을 건너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둔 상태에서 강을 건너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강을 건네 놓고 자기는 왜 안 건너고 혼자 남습니까? 지금 야곱은 여전히 굉장한 두려움에 잠겨 있습니다.

떼를 나누어서 형님이 한 떼를 치면 한 떼를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야, 도저히 안되겠다. 건너자!' 그래서 밤중에 다 건네 놓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요? 아마 가족들을 건네 놓고 혼자 두려움에 떨면서 무슨 일이라도 해보려는 것이었겠지요. 무슨 일이라고 해봐야 하나님께 매달리든지 아니면 혼자 앉아서 펄펄 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꼴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혼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좌우간 야곱은 지금 처참한 심정입니다.

IMF 터지자 직장에서 나와서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도시락 싸 들고 산에 가서 하루종일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합니다. 그런 심정이나 지금 야곱의 아픔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곱은 너무 처참한 심경이 되어서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이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뭘 했죠? 그 밤에 야곱이 거기서 뭘 합니까?

씨름요.

운동하는 겁니까? 그렇게 가슴 아픈 이 상황에 웬 씨름을 합니까? 아마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씨름입니까? 문장을 잘 보시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씨름을 해요? '야곱이 하다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한 건, 같이 했으니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씨름을 하자고 덤빈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이 지금 괴로움에 못 이겨서 힘들어 하는 이 때에 웬 사람이 온 겁니까. 그 들판에 웬 사람요? 더

군다나 이 밤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찾아온 거예요. 와서 씨름하자고 한다고 야곱이 붙었겠습니까? 이 씨름을 한국식 씨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살마는 어디서 구해서 붙였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하시면 안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름을 해도 우리처럼 씨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을 우리말로 옮길 때 비슷한 단어를 쓴 것이 씨름일 뿐입니다. 씨름과 비슷한 몸싸움이었겠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러냐? 무슨 일이나? 나한테 이야기 해봐라.'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임마, 시끄럽다. 어디서 온 놈이나?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좀 비켜 줘!' 이런 식으로 싸움이 붙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보통 질긴 사람입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들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야곱이 밤새 기도했다고 말을 하지만 이 상황을 잘 보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붙은 겁니다. 무슨 씨름을 밤새도록 합니까? 붙어서 싸우는 거지요.

이 씨름을 가만히 보세요. 참 이상해요. 밤새도록 싸우는 것도 이상하죠? 낯선 사람이, 그것도 밤중에 찾아와서 씨름을 거는 것도 이상하죠?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그러면 찾아온 사람이 못 이겼는데, 못 이긴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 버립니까? 반칙을 한 건가요? 정상적으로 못 이기니까 반칙을 해서 환도뼈를 위골시켜 버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야곱은 그래서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절면서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진 사람이 '갈란다 놈아!' 하니까 이긴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못 보낸다고 매달리는 겁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이리고 있던 말입니다. 가만히 상황을 한 번 보세요.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상한 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와서 옆에서 '야곱아 내가 왔다' 그렇게 자꾸 집적거리는 거예요. 야곱이 붙어서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사람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겠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야곱이 눈치챌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나 씨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야곱이 '야, 하나님이겠다 아니면 천사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뭇 갑니다' 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야곱이 딴 것은 못해도 한 번 물었다 하면 안 놓는 사람이거든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매어 달리는데 이때쯤은 아마 야곱이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겠거니 하고 죽자살자 매달리는 겁니다.

다리를 절어가면서 매달리는 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보여줬는데도 야곱이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다가 도저히 안되는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몇 시간이나 씨름을 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께 기를 쓰고 매어 달립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겨서 복을 받아 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야곱과 씨름하면 못 이깁니까? 아이들과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더니 싱거운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연세가 하도 많으셔서...' 왜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까지 왔으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싱거운 녀석이 그런 소리를 하기는 합디다마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해서 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겨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겨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도 맞긴 하지만 여기서는 더 구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연히 찾아오셔서 집적거리고, 실컷 싸우고는 겨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지 않고, 실컷 싸우고 나서 겨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일부러 지고서는 '야,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너 이름 바꿔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

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데 본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이름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피는 그만 부리고, 너 재주껏 살아보겠다는 그 재주 그만 부리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지 않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으면 그 다음 상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넌 이제 누구와 싸워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환도뼈를 찢을까요? 참 재미있습시다. 환도뼈라는 것이 지금 그런 명칭을 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도를 다른 말로 하면 군도라고 할까요? 군인들이 허리에 차는 칼입니다. 군인들이 칼을 차는 부위라고 해서 환도뼈라고 붙인 것 같은데 허리부터 시작해서 종아리까지를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찢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골반이나 대퇴뼈 근처를 찢 모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면 곱게 지지 하필 거기를 찢느냐 하는 애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야곱의 특기가 뭘니까? 많아요.

속이는 것.

그래요. 야곱의 특기가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이것도 잘 합니다. 그것 말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 한 번 보세요. 몇 번이나 도망갔어요? 형님과 아버지를 속인 죄로 결국은 외삼촌 집까지 도망갔죠. 거기서 오랜 세월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당하게 떠났으면 좋았을텐데 외삼촌 가족들이 없을 때 몰래 도망을 치거든요. 그렇게 도망친 야곱이 지금 자기 형님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또 뭐합니까?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둘로 나누어 이 쪽을 치면 한 쪽이 피해야지... 또 도망칠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뒤통에는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 그렇게 도망 잘한다 말이지! 너 그렇게 도망 잘 가? 그럼 또 어디 한 번 도망쳐 봐!'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만 부리는 야곱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할까요?

야곱은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그 날 아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가에서요. 다리를 절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느낌은 밤새도록 철야하고 난 기쁨일까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안 절면서 받았으면 더욱 좋았겠죠.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피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에 대한 징벌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피를 아예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한 대 맞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리를 저는 야곱이 사실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를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한 대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이라면 그건 행복입니다. 야곱은 이 날 아침 하나님에게 한 대 맞고 다리를 절면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정말 기뻐야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고 계심을 보고 감사하며 용감하게 나아가야 했는데 야곱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 연약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러면 말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잘 보시면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28절인가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사람으로'란 말이 하나 더 붙었느냐는 애깁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과 겨루어도 이긴다는 의미가 이 속에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아마 에서를 옆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앞으로 어떤 사람과 겨루어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뜻입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떨쳐 버려도 좋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알면서 묻습니다. 알면서 묻는다는 것은 너 자신을 한 번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의 발을 잡고 나왔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잡다'는 말은 '속이다, 간사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말은 발꿈치가 이런 용도로 잘 안 쓰이는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아, 그 사람 남의 등을 잘 치는 사람이다' 조금 표현이 험해지면 '등쳐먹는 사람이다'가 됩니다. '등친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등친다고 말할 때 이것은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꿈치를 잡는다, 발꿈치를 든다처럼 발꿈치가 관계되면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우리 말에 등쳐먹는다는 말과 거의 어감이 같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발꿈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한 군데 나오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창 3:15).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수난을 시편에서는 '발꿈치를 든다'고 표현합니다(시 41:9). 발꿈치를 든다는 것이 사람을 아주 해롭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바로 그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야곱이 이름값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이름값을 아주 훌륭하게 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너 아직도 간사하게 살거냐 그 말입니다. 여전히 네 힘과 네 피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멋진 이름대로 남은 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형 에서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내가 형 에서를 두려워 하겠느냐? 그런 자세로 남은 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간 후에야 이 말씀에 걸맞은 생을 살게 되더라는 얘깁니다.

33절입니다. 그 말씀 후에 식구를 또 나누죠. 식구를 네 때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무슨 순서로 나누었습니까? 부인 네 사람이 있었는데 제일 아끼고 좋아했던 부인은 제일 뒤에 그럼 제일 앞에는? 덜 좋아했던 부인부터 앞에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넷으로 나누어서 제일 사랑했던 부인은 제일 뒤에 놓은 채 나아갑니다. 왜 그러는대요? 여전히 형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귀한 성도가 되었지만 정말 성도답게 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력하는 가운데 점점 자라가야 하겠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어째 저 모양일까? 너무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또 똥판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점잖게 표현되었지만 쉬운 말로 하면 당신의 이름이 뭐니까 하는 얘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거의 대답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합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일이 되어가는 걸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는 얘깁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이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지금도 이 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아직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아 그렇게 보고도... 도대체 네 눈에는 보이는 게 그렇게 없냐?'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돌아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피부리는 것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데에는 굉장히 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늦어요? 굉장히 늦어요. 하나님을 알아채는 데는 참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만도 한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묻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은 드디어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형님이 언제 변했을까요? 형님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이끌고 오다가 언제 변해서 동생을 반가워하고 평평 울었을까요? 야곱이 기도할 때? 뇌물에 녹아서?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왔으니까 분명히 죽이겠다고 왔다?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님을 만났을 때에 일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이미 결정난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대책도 없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까?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예서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형님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었는데 혼자 생고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두 가지로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야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야곱 편에서 이야기를 해 보고 하나님 편에서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야곱 편에서 먼저 해 볼까요? 이제 형님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식구들 다 보내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새 씨름이 붙었는데 아무래도 수상하다 하나님인 것 같다. 그래서 거기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름도 바꿔 주셨다. 그런 이후에 형님 만나는 게 두려웠지만 만나봤더니 별일 없더라 이게 야곱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얘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지켜주었건만 또 강가에서 저러고 있던 말입니다. '저 놈의 자식, 저거, 아무리 눈치를 쥐도 도대체 안되네. 결국 확실한 사인을 보여 주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눈치 챌 때까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 너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좀 살아라.

야곱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싸인만 보내시던 그 하나님이 정말 안되겠다 싶으니까 막판에 직접 뛰어든 것입니다. 축구 감독이 소리소리 지르다가 운동장에 직접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제 용기를 내고 겁내지 말고 건너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론 우리의 생애가 나의 이야기인 것보다는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야곱을 닮아서 여러분 주변에서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쥐지 않아도 될 고통을 스스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바깥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장면으로 기억하십시오.

또 한가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이라고 이름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니까? 우리 자신들의 이름은 뭐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들은 대체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믿는 아이들 모아놓고 애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하고 물어 보았는데 성경적인 이름은 별로 없습디다. 지금은 좀 많아졌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길다란 찬송을 짝막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라. 그리고 그 문장에서 두 글자만 뽑아서 애 이름을 지어 보라고 문제를 냈거든요. 저는 그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로 요약하고 우리 딸 이름을 은영이라고 지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하고 '하은'이란 이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녀석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셨습니다'고 대답을 하더라구요 '야, 그거 괜찮네. 애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으냐?' 했더니 '메주하는 바람에 웃음을 못 참아서 한 20분동안 공부를 중단하기도 했답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이름이 그렇게 성경적인 바탕을 갖고 있지 않더라 말입니다. 제 이름에 관해서도 별 할 말이 없습니다. 큰아버지가 한학을 하시면서 사주팔자에다 음양오행설에 잘 맞춰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물론 그 이름 덕을 좀 보긴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성경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좀 섭섭하긴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자기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성도라서 이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욕 얻어먹을 짓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성도란 생각이 확실하면 우리의 행동이 대단히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란 말에 좀 언짢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란 단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흔히 쓰는 성도라는 단어의 용도가 뭐니까? 집사도 아니고 별다른 호칭이 없으면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데 장로도, 집사도 아니니까 성도? 이것 좀 이러지 맙시다. 굳이 성도라는 단어를 쓰려면 목사님도 성도, 장로님도 성도, 다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야곱을 향해서 너 이름이 뭐냐고 묻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름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바꾸란 말입니다.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네 이름이 성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뭐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다르게 살았으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의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기주의자? 말만 많은 사람? 깐깐한 사람? 여러분을 아는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표나게 삼시다. 마음은 그런데 뜻대로 잘 안된다고요?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는 그렇게 되고 맙니다. 지금 당장의 이름이야 야곱일 수도 있고 무석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미련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만 잡히면 됩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입니다. 결국은 이름값을 하고 맙니다. 결국은 성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元祖 죽으면 죽으리라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업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이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몰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없으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개역, 창세기 43:1~17]

원 조(元祖)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한 집에서 '원조 곰탕'이라니까 그 옆집은 '시조(始祖) 곰탕'이라고 간판을 붙여놓더군요. 우리나라만큼 원조(元祖), 시조(始祖), 본가(本家), 종가(宗家) 타령하는 나라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오늘은 원조 타령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하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안이숙, 에스더.

두 사람이 나오네요. 아마 안이숙 여사가 에스더 본을 봤겠죠. 그런데 안이숙이란 분은 무엇을 한 사람 입니까?

.....

여기서 막히면 책을 좀 사 보시기 바랍니다. 안이숙 여사가 무엇을 한 분인지 알기 위해서 책값 정도는 투자하셔도 됩니다. 안이숙과 죽으면 죽으리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안이숙 씨가 쓴 책 이름이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고생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그 분이 설교집도 몇 권 쓴 걸로 압니다. 어떤 분인지 책을 좀 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분이 작사한 찬송이 있는데 제목이 뭐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그 분이 아마 에스더를 본받아서 일제 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사 주시지요? 아이들 책값을 아낄 일은 아님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책값이 들어갑니다. 수능대비 한국문학 전집? 웬만큼 공부 좀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다 있습니다. 한 질씩 사면 돈이 꽤 들죠? 저는 몇 년을 버르고 버르다가 겨우 한 질을 구해 가지고 와서 웃고 있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비싼 책이 그냥 팍팍 들어오더라고요. 영양가는 훨씬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신앙 인물들에 관한 책을 읽도록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의 원조(元祖)가 에스더입니까? 저는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어쩌면 에스더의 이 신앙도 야곱에게서 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 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는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죠?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자신이 죽는 것과 자식을 죽게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잃으면...’ 하는 얘기는 ‘자식이 죽으면 죽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강렬한 각오의 표현이 아닐까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원조가 야곱이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죠? 37장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부모님을 숙이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고생한 이야기는 35장 이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37장은 다시 돌아와서 고향 땅에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어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리하니라’ 여기에 약전(略傳)이란 말이 나옵니다. 약전이란 간략하게 간추린 이야기라고 할까요? 야곱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난 것 같은 시점에 ‘야곱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잠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다시 뒤에 야곱이 등장했다가 죽는 것은 49장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49장에 가서 끝나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얼마나 길게 묘사되어 있는지 아시겠지요?

지나간 이야기의 복습입니다. 야곱의 집안은 도대체 어떤 집안 같아요? 부인이 넷이나 되죠. 그 부인이 아들 낳기 시합을 하다시피 싸웠습니다. 딸도 사고를 쳤죠. 그로 인해서 레위와 시몬이 한 마을 주민 모두를 죽이는 사건을 저지르는 바람에 또 도망을 칩니다. 유다도 이 사건 바로 뒤에 보면 사고를 하나 칩니다. 유다는 나중에 떠느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만이요? 만이 르우벤도 서모와 간통을 하는 바람에 만이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좌우간 야곱의 집안에 좋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고 해요?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요?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지 옛날에 참 궁금했어요. 왜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머리가 번쩍하는 겁니다. 저의 어머니께 물어봤죠. “어머니, 콩가루는 반죽이 안 됩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반죽이 안 된대요. 아! 그 말이구나. 밀가루에 물을 부으면 반죽이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데 콩가루는 물을 부어도 뭉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제 각각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콩가루 집안이구나! 야곱의 집안은 영락없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래도 됩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뭔가 좋은 것을 좀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을 들여다 보니까 배울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이래도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성경책을 읽어라. 성경책을 읽으면 좋은 얘기 참 많다.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좋은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 숙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옛날에 자기 형님을 숙이고, 아버지 숙이고, 외삼촌하고 숙고 숙이고... 이런 얘기들이 쭉 계속됩니다.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성경은 누구 이야기지요? 여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언급되지만 성경은 절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요? 하나님 이야기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오해가 없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이런 모양이지만 이런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읽어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찾아내지 못하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쫓기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열심히 쫓겼어요. 처음에 형님과 아버지를 숙였다가 쫓겨났죠. 죽지 않으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도망치죠. 그 많은 가축과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쳐서 나온 겁니다. 그를 잡아서 재산을 빼앗고, 죽

이겠다고 외삼촌이 아들들을 데리고 추격해왔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야곱의 인생은 끝이 났을 겁니다.

그가 도망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형님을 만나야 하는 그 아픔도 목숨이 왔다갔다 아팠이었습니다. 무사히 형님을 만나서 세겜 근처에서 생활하다가 세겜 주민 들한테 또 한번 쫓기죠. 그렇게 쫓겨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평온한 생활을 하는가 싶었는데 또 일이 터진 거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버렸죠. 죽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분명히 짐승에게 찢겨서 죽어버렸습니다. 야곱이 그 아픔을 못 잊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고통이지만 얼마쯤 지나면 잊혀지는 것 아닙니까? 자식이 죽은 아픔은 얼마쯤 지나면 잊혀질 것 같습니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데...

그래요. 20년이 지난 후에도 야곱은 요셉의 죽음을 결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동안 아픔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야곱의 삶에 평온한 세월이 찾아오려는지...

이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한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별로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는 표현이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말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는 것이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가 생각을 해도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평안하게 살 때에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주 극심한 흉년이 닥쳐서 아들들을 곡식 사러 보냈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들을 또 하나 잃어버렸어요. 열 명을 보냈는데 아홉 명이 돌아온 겁니다. 또 하나 잃었어요. 그런데 더 열나게 하는 소리는 **‘우리가 다시 곡식을 사러 갈 때에 간혀 있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야곱이 그저 피져버리는 겁니다. 맥이 탁 풀려버리는 거죠. **‘죽어도 안된다. 다 죽으면 죽었지 이 막내아들은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곡식 사러 못 가는 거죠. 아무리 버틴들 어떻게 합니까? 사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걸요. 양식은 다 떨어져 가는데 야곱은 베냐민만은 죽어도 안된다고 버티고...

버티봐도 다른 방법이 없으면 항복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죠. 그러자 아들들이 **‘저 막내를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경상도 식으로 말하면 **‘말라꼬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이 말이죠.

야곱이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누가 대답을 하죠? 유다가 혼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이 합세해서 대답합니다. **‘데모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부러 말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도 꼬치꼬치 묻길래 별 의미없이 대답을 하다보니 일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야곱인들 모르겠습니까? 답답하니까 아들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이라고 해서, 또 만만하다고 해서 말 안되는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키울 때 꾸중이던 칭찬이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내 형편 어렵고, 내 성질이 좀 난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남편 여러분, 밖에서 화가 몹시 나면 어디 가서 푸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술집에 가서 잘 푸는데 어디 가서 푸세요? 집에 가서 푸시면 안됩니다. 제일 만만한 게 집에 있는 가족입니까? 그래도 집에 가서 푸시면 안됩니다.

아내 여러분은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즘 불쌍한 남편들 참 많아요. 아무리 화나고 열나도 남편에게 풀지 마십시오. 거기에다 안 풀면 어디에다가 합니까? 글썄요. 평소에 잘 해두었다가 한번쯤 화풀이를 해도 이해해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든지...

애매한 소리를 가족 간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열 많이 받았다고 아이들에게 푸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경향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원만한 삶을 위해서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들들에게 괜히 애매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아들들이 단체로 항의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험악해진 겁니다. '우리가 어디 고의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유다가 다른 아들들의 반발을 가라앉히고 아버지를 설득한 모양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 말이 참 겁납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이를 보내면 가고, 보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고 말 것입니다. 대화가 아니고 일종의 공갈이라고 할까요? 지금 아비에게 거의 협박하듯이 대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죽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든지... 상황이 아주 절박합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또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오죽하면 유다가 '만일 내가 가서 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맡길 테니까 아들을 죽이시오' 이진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상황이 험하다는 뜻이겠지요. 유다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 되면 야곱은 특유의 특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살아나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특기가 무엇이죠?

기도.

기도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에 관한 설교를 두 번 했었는데 그 때마다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야곱의 특기가 뭐죠?

잔머리.

잔머리 굴리기가 특기이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특기가 있어요. 양다리 걸치기라고, 잔머리도 굴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지요. 여기서도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준비를 할까? 예물을 준비하죠? 예물인지 뇌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귀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번 경우에 이 예물이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잔머리를 굴리려면 얼마든지 굴려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 소용없는 짓인데도 열심히 굴리고 있는 겁니다. 형 만날 때도 그랬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잔머리를 굴러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기에서 또 한 가지는 뭘니까? 잔머리를 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아주 신앙적입니다.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아들이지요. 야곱은 지금 답답해서 이려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 국무총리.

물론 요셉이고 국무총리이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 정확한 대답은 '자기 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줄 아들이란 말입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지 않을까요? 전혀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답답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입학시즌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죠. 어디 어디에 붐뵈니까? 절에도 붐뵈고, 저기 팔공산 갖바위는 미어터지고, 새벽 기도도 좀 늘고... 여러분, 너무 알팍하게 살지 맙시다. 시험 철이 다가와서 새벽기도를 나오고 싶거든 그 때 가서 열심히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좀 덜 미안하겠지요. 답답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만하면 잔머리를 굴리고... 너무 이렇게 얇게 살고 있거나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고통을 보면서 그 아들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버지가 막내 베나민을 저렇게 안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죽은 자식 요셉 때문입니다. 그 요셉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팔아버린 그 요셉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형들은 압니다. 속에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묻어놓고 '이것은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고 아버지는 절대 모른다' 그러면서 20여 년을 지내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죄를 묻어두고 아무 일없이 잘 살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 아주 감격스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양승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 유학 시절이니까 30년도 넘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양 목사님이 화란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에 화란에서 미혼모가 낳은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더라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가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럼에도 잘못에 대해 본인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교회도 그 일을 철저하게 용서하더라는 겁니다. 그 분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얘기죠.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엄청난 죄지만 그가 분명하게 회개했을 때는 온 교회가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하더라는 겁니다. 무척 감동적인 얘기였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분이 부끄러워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을 터인데도 예배에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늦게 와서 뒤쪽에 앉았다가 예배를 마치면 아무에게도 말도 없이 떠나가기를 몇 년간 계속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용서가 되고 다시 성도들과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용서를 받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형제나 우리 가족의 잘못을 하나님보다 더 용서를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용서를 받기 어렵다 싶으면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 죄를 묻어놓은 채로 20년을 지냈어도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이렇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졌을 때 보면 여전히 야곱은 야곱(간사한 자)으로 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죠.

야곱이 죽었다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던 그 요셉이 죽기는커녕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이기도 많이 했지만 속기도 많이 속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속은 것이 바로 요셉의 일로 아들들에게 이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팔아놓고 죽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판에 죽었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얼마나 속고 있는지 보십시오. 아들들과 험하게 얼굴을 붉혀가면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도 사실은 그렇게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면 문제가 저절로 끝나게 되어있습

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목숨을 걸고 부자지간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죽어버린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속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살겠는가?' 싶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거나 조금만 들여보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걸 가지고 힘들어 하고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기를 냈더라면 전혀 고통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속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없는 아내와 말 많은 아내 어느 쪽이 낫습니까? 말 많은 쪽이 나아요? 어느 동서 둘이 만나서 아이고 형님, 집에 가면 시끄러워서 못살겠습니다' 이러니까 손위 동서가 '자네는 낫네. 우리 집사람은 손님이 오나 가나 도대체 입 떼는 걸 못 본다네' 어느 쪽이 나올까요? 말 많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은 말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한결 고통이 가벼워집니다. 말없다고 힘들어 하는 사람은 저쪽 집은 말이 많아서 얼마나 힘든지 알면 위로를 좀 받을 겁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고 입장을 조금만 바꿔도 사는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무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전에 가르치던 어떤 아이가 주일에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데 집사인 아버지가, 담임선생님께 많이 북여서 그랬겠지만 주일에 학교에 가는 문제로 아이하고 많이 다투다가 결국은 아들이 지기로 했습니다. 학교담임도 학교에 안 나오면 죽인다 하고 부모도 학교 가라고 난리죠. 제가 교회 가다가 그걸 직접 목격 해버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대로 할게요. '오야, 내 학교 간다. 집사 꼬라지 좋다' 이러면서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예요. 집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나니까 난감하네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대학엘 못 갔습니다. 조금 낮은 데로 갔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야! 속았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주일에 학교 가라고 북아대고 과외를 붙여도 공부 안 하던 놈이 대학을 가더니 장학금 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할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 다닐 때 놔둘 걸. 괜히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애는 애대로 괴롭히고, 대학은 결국은 아버지가 목표로 했던 대학엘 못 가고... 저럴 줄 알았으면 놔둘 걸. 속았다!"는 거지요. 그 밑의 동생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속았다 하면서 그 밑의 동생도 또 그러더라구요. 그거 안되나 봐요.

생각을 조금만 고치면 아들도 편하고 자기도 편하고 신앙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잘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 약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본인 말로 속았다 하면서도 끝내 속고 살데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를 지키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야곱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눈뜬 소경입니다.

이름을 아예 바꿉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과 겨뤄 이긴 사람이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야곱이 놓지 못하겠다고 움켜쥐고 있던 그것을 놓았을 때에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 해결됩니다.

나의 죽음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만 자식이 만약 죽게 된다면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 해결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왜 죽어도 못 놓느냐 하는 것은 베냐민이 단순한 아들 한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을 못 놓겠다. 누구를 못 놓는 것입니까? 얼마나 좋아했던지, 7년을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하루같이 여겼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밍다고 사랑하는 아내는 꼭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은 그 여인을 못 잊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인데 그 요셉이 죽었던 말입니다. 죽어버린 아들을 못 잊는 겁니다. 단순하게 베냐민 하나가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잊을 수 없는 그 아내,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놓지 못한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짓궂게도 내 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 네가 잊을 수 없는 그 요셉, 베냐민을 놓으라는 겁니다. 손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무슨 신앙이 좋아서 놓은 것은 아닙니다. 어쩌서 놓았죠? 어쩔 수 없으니까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놓은 겁니다. 신앙이 좋아서 그리한 것 아니에요. 차라리 에스더 같으면 신앙이 좋아서 그랬겠지만 야곱의 이 이야기는 원조라는 이름을 붙이면서도 그렇게 신앙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딘가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한 것이죠.

포기해버렸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뭐니까? 45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죽으면 죽었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베냐민을 포기해버렸더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던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믿어주세요? 안 믿어지지요. 믿을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야곱이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자세하게 다 고합니다. 그래도 못 믿어요. 결국 증거품을 보고서야, 무슨 증거품이죠?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 말이 수레지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탈 수레니까 얼마나 번쩍번쩍 하는 것을 보냈겠습니까? 그걸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놓고 드러누워 앓고 있었다는 얘가지요. 사람이 다 죽어 가는 모습으로 있다가 그걸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죽하도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본의였든 아니었든 그렇게 움켜잡았던 베냐민을 놓았을 때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놓았을 때에만, 그렇게 움켜쥐었던 것을 놓았을 때에 야곱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풀려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풀렸다고보다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세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했더라면, 요즘은 더 썩 말(言)이 나왔네요. 진짜 용어는 '배제라'인데 하나님께 그럴 수는 없으니 '하나님 배제하십시오' 하고 내밀어버렸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되었던 거예요. 에서를 만나러 올 때부터 '하나님, 날 잡아 잡수시든지 볶아 잡수시든지...' 배제라는 식으로 맡겨 버렸더라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도 제가 잘 읽을 수 있을런지...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구절입니다. 48장 15절입니다. 여기에 '그는 야곱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使者)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있죠?

사자.

사자(使者)라고 불러요? 그건 정말 너무하십니다. 지금 이 판에 사자(使者)라고 대답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한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던 그가 이제 여기에 와서 뭐라고 하시고 하니까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동안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힘든 삶을 살면서 그렇게 괴로워할 그 때는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들이 계속, 계속해서 생깁니까?' 하고 원망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닥친다고 하더라도 야곱처럼 살지는 마십시오.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빨리 하나님을 익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 만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간 다 되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살아가시면 이런 고통이 그렇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삶이 아닐진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구나' 그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여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야곱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속으며 살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많은 가정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격에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격 문제를 해결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얼 원하고 계신가를 생각하면서 조금만 바꾸면 감정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뒤집어 엎거나 확 바뀌서가 아니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거나 틀어버리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그 조금을 틀지 못해서 괴롭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성격은 성령님도 못 고친다' 남의 얘기인가 내 자신의 이야기인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와도 내 성격은 못 고친다 그렇습니까? 자존심 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싸우고 다툰 때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큰 문제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늘 조그마한 일에 자존심에 걸려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어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을 조금만 더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하는 이 판국에 뭘 못하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작심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들은 다 그것보다 가볍고 쉬운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고쳐야 되는 문제다.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다. 생각이 되면 조금만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아요.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놓았을 때에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되어버렸지만 역으로 말하면 자식을 포기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쉬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용감하게 나섰던 에스더는 결과적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안이숙 씨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죠. 안이숙 씨가 박관준 장로님을 도와서 일본에 건너가서 무슨 일을 했죠? 책을 꼭 사서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박관준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국회 의사당에서 뼈라를 뿌렸던 사건 때 동행했던 분이 바로 이 안이숙 씨입니다. 목숨을 걸었던 일들을 통하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했던 야곱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특별히 다른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전혀 부르지 않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보다 더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셨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성경공부 시간에 이 문장을 보고 '야곱의 고백은 틀렸다. 어디가 틀렸는지 찾으세요' 했더니 잘 못 찾더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금 틀렸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함부로 고치라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나의 남으로부터'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기르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야곱의 훗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른 채 평생 고생을 했죠. 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이렇게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먹고 즐기자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개역, 누가복음 15:21~23]

많

이 피곤하시죠? 40일 새벽기도를 계속 하신 데다가, 오늘은 행사가 많아서 몸이 좀 피곤하실 겁니다. 오늘은 2부 행사가 있어서 조금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려면 어떻게 그리고 싶습니까?

털 있는 모습으로 그려요.

유대인이니까 털이 좀 있겠죠. 또,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고통에 일그러진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의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라고 지칠대로 지친 모습을 그리겠습니까? 아니면, 먹고 즐기고 환하게 웃는 인자한 모습으로 그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에 많이 자시고 포도주를 많이 즐겼단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금식하고 절제하는데 예수님은 많이 먹고 아무데서나, 특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열심히 먹더란 말이죠.

죄인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면 저 모양이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먹고 즐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육신의 피로가 잔뜩 쌓여 있으면서도 얼굴은 환하게 빛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림을 그릴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먹고 즐기고 노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기쁨에 젖은 모습이 아닙니다. 반면에 삶에 쪼들린 사람의 모습도 그렇게 평화롭진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땀흘려 일하고 지쳐 있으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그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내한다고 현관에 서 있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교회 오는 걸음들이 힘칩니다.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열심히 오십니다. 보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간혹, 끌려서 오는 분들이 보이긴 합니다. 마치 못해서 끌려오는, 어떻게 보면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같은 모습이 간혹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몇 번 예배 참석하면서 차츰 차츰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 여간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거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엔 항상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기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즐기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먹고 즐기자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몇 분에게 물어 보았는데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먹고 즐기자'가 없대요. 없긴 왜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절에 있죠. 누가 먹고 즐기자고 합니까?

아버지가...

예! 아버지께서 먹고 즐기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면 그건 내 뜻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사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말 즐거워 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쳐다보고 뭘 그리 즐거워 하실까요? 생긴 게 잘 생겼습니까? 하는 것이 예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송에 이런 가사 있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른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워하며, 즐겁게 노래 부르고, 즐겁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가나 혼인집 잔치와 같은 곳입니다. 참 좋은 곳입니다. 올 때마다,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인상 실컷 쓰다가도 교회만 오면 다 풀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이 여기 들어오면 모두가 환하게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능력 없다고 차별받고 멸시받는 사람도 이 교회에 와서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잘 낫고 저 사람은 잘 못나고 문제 많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만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3가지 나오는 것을 아시죠?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전부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의 끝이 전부 '즐거워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맞이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면 비유 3가지를 들면서 비유마다 즐거워하더라는 말로 끝을 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소나 말이나 짐승을 창조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있을 곳을 만드느라고 다른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의 가장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옛날에는 요리문답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고쳐서 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첫째 질문이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나'입니다.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한가지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가 즐거운 겁니까? 우리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니까?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실 때 나오는 요한일서의 핵심단어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먹고 즐기자'라고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 기쁨이 아들에게 주어진 과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들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못된 아들이었던가 봅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게 줄 재산, 이왕 줄 것 좀 당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걸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 재산을 받아가서 다 떨어먹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멋대로 잘 살았죠.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처지가 좀 딱해집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지나갑시다. 그렇게 가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돼지보다 못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어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는 거죠. 너무나 형편없이 전락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에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돼지 먹는 음식을 뺏어 먹으려다 돼지한테 차이는 서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야겠다고 돌아가는데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거기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 집에서 재산을 달라 해서 떠나올 때 있었던 그 일을 뼈저리게 후회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들로서는 돌아갈 수 없다. 종으로라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기에서부터 이 기쁨 날이 시작됩니다. 어떤 의미에선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람이 있었죠? 날마다 죽노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참된 기쁨은 시작됩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뭘 좀 해 보아야겠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어설픈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고속도로 운전하시면 짜증 많이 나시죠? 추월하려는 차? 보내주세요. 들어오려는 차? '바쁜 모양이다' 하고 넣어주세요. 조금 천천히 가면 편안합니다. 운전이 서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래 처음 할 때는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자기 부정이고 매일 죽는 것입니다. 서툰 사람에게 조금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자기 부정' 하니까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보면 이 땅에서 삶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가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껏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행복합니다. 행복은 행복인데 무슨 행복이고 하니까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애비없는 자식의 행복'이죠. 아버지, 어머니 간섭 없이 혼자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 대체로 부러워합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애비 없는 자식의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만 인식을 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가던 카센타 사장님이 어느 날 차를 손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무서운 속도로 차를 모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달리는지 모르겠대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놈의 차를 몰고 신나게 다니지 차를 조금 안다면 이 많은 부속 중에 어느 하나가 탈이 나도 움직이지 못 하는데... 탈이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 부속이 몇 개나 되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차를 잘 아는 분이 그런 얘길 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탈이 나도 제대로 못 가는데 이걸 믿고 어떻게 저렇게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더라구요. 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차를 잘 아니까 가다가 고장나면 고쳐 가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안심하고 다니고 좀 아는 사람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저께도 서른여섯 밖에 안되는 박사님이 돌아가셨고 또 마흔여섯에 돌아가신 분, 환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이 이제 겨우 스물인 모양입니다. 사람이 참 약합니다. 우리 심장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잠시 멈추면 우리 인생도 끝입니다. 몇 년간 뛰는 심장입니까? 평생요? 한 백년 뛰는 심장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기계 중에 백 년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심장이 백년 동안 쉬지 않고 뛰니다. 그런데 이게 잘 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 버리면, 아니 혼자 있다가 서 버리면 괜찮은데 내가 사람을 여럿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멈춰 버리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아무 걱정없이 잘 지냅니다마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요. 자동차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알면 걱정이 됩니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모양입니다. 몰라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행복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스스로 잘난 척하는 부부죠. '내 아니면 지가 어디 가서 이런

호강을 하며 산단 말이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덕분에 당신이나 아이들이나 이래 살고 있는 것 아니냐?’ 반대쪽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하겠지만 부부 사이에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부부끼리만 보면 한 분이 좀 잘 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니 잘 났다’ 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생각하기 전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낫지 않느냐?는 마음이 있으면 기분이 좀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행복은 훨씬 더 큼니다. 좌우간 먹고 즐길 수 있는 이 행복은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섰을 때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이 참된 기쁨의 원인은 아버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무슨 고통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자식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세요라는데 주는 아버지 있어요? 백번 양보해서 아버지, 대학가려면 4년 동안에 한 사천만원만은 들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이천만원만 선불로 주세요. 대학 안 가고 그걸로 사업 밀천을 삼아서 큰 회사를 한번 일구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천만원 떼어 주실 분 있어요? 선불로 못 줍니다. 아무도 안 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물려줄 것 미리 좀 주세요’ 아무도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쫓느냐는 겁니다. 왜 쫓습니까?

이 아들을 이대로 붙들고 버티어서는 도저히 부자관계가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아버지는 굉장한 각오를 하고 이 아이에게 재산을 떼어줍니다.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돌아가서 다 떨어먹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찾기는 쉬워요. 집이 그대로 있고 그 집 근처에 있는 분 같으면 아버지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우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는 사실은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올 것을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아버지는 이걸 예상하고 내준 겁니다. 이걸 주면 재산도 털어먹는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잘 되면 거지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생각하고 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선악과 얘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다 이런 말은 생각이 깊지 못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를 따먹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독생자를 희생시킬 각오까지 하시고 만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만드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고통 당하실 각오를 하고서 저지른(?) 일이 이 일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떼내어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안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즐거운 날을 지낼 수 있는 것은 이 아들과의 진정한 교제를 원해서서 그런 희생을 아버지가 각오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극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럼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날입니다. 이 날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엄청난 고통을 각오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아들의 요구에 그 돈을 내 주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고통스러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어떤 관계를 원하셨기에 이런 힘든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 길로 들어섰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실 각오를 하신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날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다 묻어 놓고 얼굴에 가면 쓰고 여기에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기쁘고 즐겁기는 뭐가 기쁘고 즐거워?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집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오늘 주일인데 잠시 휴전하자’ 그래서 얼굴 표정을 좀 바꾸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열심히 하나님 찾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다가 저녁에 돌아가시면 잠시 휴전했던 것 다시 꺼내 놓고 싸워야 할 부부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기쁘고 즐겁고, 먹고 즐기긴 뭘 먹고 즐겨요?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 삶 자체가 기쁨 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온통 괴롭고 힘든 일만 눈 앞에 잔뜩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아파보세요. 심하게 아파보시면 나만 아픈 게 아닌란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 혼자 외로운 줄 알았는데 한 번 되게 외로워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외로움 때문에 고통 당한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들 감추어 놓고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죠. 신혼부부가 특히 그렇게 하죠. 집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찾아오면 어떡하죠?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싸운 흔적을 짚싸게 치우고 그 다음에 깨가 쏟아지는 표정을 지어야 하죠? 남에게는 신혼에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대체로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집 보니까 뭐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그게 다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는 잘 안보여 주니까요. ‘다른 집은 잘 살더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설교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 한 번 보세요. 아버지 재산 다 떨어 먹고 들어왔죠? 자기는 도저히 아들로서 살 수 없다 종으로만 삼아 달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뭘 잡았어요? 소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한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말하고 싶을 겁니다.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고 못 부르죠. 주인님이라고 부르나요? ‘제가 지금 이걸 먹고 즐길 형편이 못됩니다’ 돼지 양식 뺏어 먹으려다 쫓겨왔으니 송아지 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마는 못 먹습니다. 지금 그걸 먹을 형편이 됩니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먹고 즐겨야 합니다. 왜요? 아니 이 아들이 그걸 먹고 즐기고 노래 부를 마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럴 형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즐겨야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러자고 하는데요! 뭐! 보세요. 자기가 한 일, 자기 형편을 쳐다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먹고 즐기자는데, 경비는 누가 내지요? 아버지가 다 내는데요. 그 아버지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해도 먹고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라는 것이 꼭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참 고달플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보지 말고 이런 나에게 사랑을 쏟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시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한 건 나 자신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아들이 모처럼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칭찬을 할까요? 욕하죠. 아버지 재산을 다 떨어먹은 네가 무슨 낯짝으로 들어와서 아들 행세하고 있냐? 동네 아저씨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잘못된 모양입니다.” 다시 보따리 싸서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하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못 나갑니다. 이웃집 아저씨들이 그런 소리를 해도 말은 맞지만 이 아들은 맞다고 하면 안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보따리 싸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저씨들, 아줌마들 말이 다 맞더라도 집을 나가지 못함

니다. 왜요? 나를 용서한 아버지 때문에 못 나갑니다. 난 아들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 막 말로 거세게 나가도 됩니다. “재산 떨어먹어도 너희들 재산 떨어먹었냐? 우리 아버지 재산 떨어먹었지 내가 당신들 재산 떨어먹었냐?”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거세게 나가야 합니까? 누굴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웃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큰 소리 쳐야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쳐 놓고 돌아서서 혼자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죽일 놈이죠.” 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색 못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큰 소리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나서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늘 큰 소리 칠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당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왜 슬퍼합니까? 우리는 자신을 보고 자해하거나 괴롭힐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 주셨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뜻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즐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린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오는 모습 속에서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또 주일이야?’ 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그 때부터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자화상은 어떤 것일까? 영화 안 보시는 분은 용서하십시오. 빠빠용 있죠? 절해고도에 있는 감옥에서 수 없이 탈출을 시도했다가 기어코 성공합니다. 뗏목을 타고 그 넓은 바다를 나가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하늘 향해 소리치르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최근에 나온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감옥을 탈출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성공했습니다. 하수구인지 개울인지 물에 빠져서 엉망진창이지만, 그런데 꼭 그럴 땐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만드는 사람들 참 묘해요. 극적인 효과를 살리려고 그러겠지만 그런 장면에서는 꼭 비가 와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뭐라 합니까?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두 손을 치켜들고 고함지르는 모습은 생각납니다. 자유를 얻은 성도의 모습이 그것 아닐까요?

영화 안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한가지 더 소개합니다. 많이 부르던 복음송입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어디서요? ‘사냥꾼의 울무에서 새같이...’ 사냥꾼의 그물에 갇혀서 퍼덕이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나르는 새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새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닌다면 까짓것 한끼 굶으면 어쩔고 다른 새가 나를 욕하면 어쩔겠어요? ‘그래 욕 많이 해라’ 그러면서 신나게 날아다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체험하면 우리 이웃사람들의 자잘한 잔소리나 주변사람들의 그 싫은 소리도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사랑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먹고 즐기는 기쁨이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개역, 신명기 5:12-15]

어릴 때 듣고 은혜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한쪽은 면도를 했는데 한쪽은 면도를 하지 않았더라입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밤중에 면도를 하다보니까 12시가 되었는데 ‘아, 지금부터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면도(일)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중지했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면도를 하다가도 중지했으니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도. 안식일이라고, 하던 면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은혜롭기도 하면서 또 한편 미심쩍은 데가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12시 가까운 시간에 면도를 하나? 좀 일찍 하시지...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 늦게 면도를 하게 되었을까? 지금도 어느 쪽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배운 영향이 아직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주일에 학교에 나오려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시다. ‘맞으면 맞고, 터지면 터졌지 못 간다’ 제가 상고를 나왔는데 상고 과목에는 주산과 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산 실력이 상당히 있어서 시험을 치르면 다른 아이들 한 번도 못 놓을 동안에 두 번 정도 놓습니다. 두 번 놓고도 시간이 남아서 놀니다. 두 번이나 놓았다는 것은 다 맞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점수는 80점밖에 안돼요. 이유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시험을 못 쳐도 무조건 100점이고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리 잘 쳐도 만점이 80점입니다. 주산이나 부기 급수 시험을 항상 주일에 치렀는데 한 번도 치지 않았거든요. 이래서 주산 부기 경우에만 해도 제가 불이익을 많이 당했죠. 그래도 점수 까먹으면 까먹었지 주일에 시험은 안 친다고 버티었죠.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 싶은 것은 주일 저녁에는 가능한 일찍 잡니다. 공부하려고 일어나서 보니까 11시 반입니다. ‘아직 주일이 안 지나갔네’ 그러면 30분동안 공부 안 하고 기다립니다.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주일이 지났으니 시작하자’ 그러면서 새벽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리새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율법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지식하게 주일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면 글썽요 꼭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제 동생들에게는 꼭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국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시다.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일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살펴보아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안식일 얘기를 하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중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나 창세기 2장을 본문으로 선택합니다. 굳이 오늘은 신명기로 본문을 잡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명기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이 다른 본문에 있는 안식일의 개념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들도 쉬라는 뜻에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일간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도 7일날 쉬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셔서 누워서 쉬셔야 할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6일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쉬셨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쉬었다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전에 고등학생들과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한 녀석이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실 이유가 없는 것은 힘들게 일한 게 아니고 입으로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모든 일을 마쳤으니 쉬실 이유가 없지요. 그것도 그럴싸해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가 뭘겠느냐는 것입니다. 6일 동

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뭐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주옥 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다가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았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창조하신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서 쉬는 것도 적당하면 좋은데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그것도 고역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늘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야 할 일에 별로 놀라지 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놀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살펴봐도 정말 사람은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데 그리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전기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들어오고, 이 어두운 곳을 이렇게 밝히고, 이 마이크까지 다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저 등이 1초에 몇 번 깜빡이고 있죠? 한 번 쳐다보십시오. 몇 번 깜빡이는가!

저 전기불은 1초에 60번을 깜빡거리요. 우리 눈은 1초에 10여 회 이상 깜빡거리는 것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으로 못 느낄 뿐이지 저게 초당 60번이나 깜빡거립니다. 전기를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게 어떻게 60번이나 깜빡거리나요? 아니 어떻게 60번이나 깜빡거리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좀 더 쉬운 얘기를 해 봅시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셨을 텐데 엔진이 1초에 몇 바퀴나 회전할까요? 정차해 있을 때, 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1초에 15번 내지 20번 돌아갑니다. 그걸 '공회전'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아이들링'이라고 합니다. 게으르다는 거죠. 저 놈의 차, 참 되게 게으르네! 어느 정도 돌기에 게으르다는 겁니까? 1초에 15번 내지 20번 돌아가는 걸 보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 손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1초에 몇 번이나 돌리겠어요? 15번 돌려도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런데 차가 속도를 내면 초당 보통 50회, 60회 돌아갑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입니다. 그게 '썩' '깍' 하는 짧은 순간에 60회를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일들 중에 그렇게 탄복할 만큼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이해도 못할 정도로 위대한 일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이 한 일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시원치 않으면 절대로 못 만들어 냅니다. 천지 만물이 질서있게 정해진 법칙을 따라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서 잘 조합을 하면 저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재료가 시원찮게 되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인간은 위대하다고 찬탄을 해도 하나님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사람은 그렇게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해도 그 속에는 평생토록 연구할 만한 가치와 지혜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끝없이 펼쳐지는 놀라운 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절대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이나 신비의 세계 보시면 참 놀랍지요? 그것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많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연의 힘은 위대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실체도 분명히 모르는 '자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면서 '야, 정말 멋지게 진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는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의 신비로움 속에서 신비로운 창

조자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가만히 내버려 두었는데 점점 좋아지거나 발달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세월 따라 차츰 차츰 허물어지고 죽어가고 뭉개지지 가만히 뒀는데 저절로 점점 오묘한 모습으로 변해 가더라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 외에는 없습니다. 애기 낳아서 가만히 놔 뒀도 점점 멋지게 커가던데요? 씨앗을 뿌려놓고 가만히 두어도 예쁜 꽃이 피고 열매 맺던데요? 그것은 그렇게 커가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몇 살 되면 이가 빠지고 몇 살 되면 말하고 몇 살 되면 이 같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놀라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지혜에 대해서 놀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할 수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죠? 가끔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동물도 있긴 합니다마는 사람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은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동물들은 말을 못할까요? 진화가 덜 되었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과 조금만 다르면 여러분은 말할 수 없거나 말을 해도 완전치 못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몸에 말할 수 있는 장치를 찾아봅시다. 그냥 각자 확인해 보세요.

우선 입술이 있어야 합니다. 다 있죠? 입술 다음에 이빨이 있어야 합니다. 다 있죠? 이빨 뒤의 조금 윗부분을 혀로 훑어보십시오. 딱딱한 데 약간 오돌도돌 한 부분(치경)이 있죠? 조금 더 윗쪽을 훑어보면 딱딱 하면서 매끈매끈한 부분(경구개)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말 못해요! 그 부분은 골짜기가 아주 깊습니다. 그 뒤에는 말랑말랑한 부분(연구개)이 있습니다. 입안의 구조가 그렇게 안되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혀가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 넣고 확인하는 분이 계시네요. 손가락 넣고 확인하는 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구강 구조가 그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봅시다.

지금 말씀드린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소리를 만드는지 살펴 봅시다. 가령, ‘뱀’ ‘뱃’ 이 두 글자가 발음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신의 입안을 잘 살펴보세요. ‘뱀’이라는 소리와 ‘뱃’이라는 소리가 만들어질 때 입안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통점은 입술이 두 번 붙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뭐죠? 콧소리가 들어가는 점이죠. ‘뱀’ 할 때는 소리가 입으로만 나오고 딱 떳어버리는데 ‘뱃’ 할 때는 숨이 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뱀’이 되거나 ‘뱃’이 됩니다. 숨이 어디로 가느냐, 멈춰하느냐 계속 나오느냐, 혀가 입천정의 어느 부분에 닿느냐 닿으려다가 마느냐라는 이 사소한 차이에 의해서 전혀 다른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로봇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말을 가르치려면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테니 무슨 소리가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입술을 한 번 닫았다가 떴면서 입술을 오므린 채 성대를 한 번 울린 다음 혀뿌리를 목천정에 갖다 붙인다’ 이 네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하면 무슨 글자가 되죠? ‘을’ 하시는 분은 입술을 안 붙였고, 혀뿌리를 천장에 댄 것이 아니고 혀끝을 천장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로봇 만들어서 말 가르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세요 입술을 한 번 붙이면 이게 ‘ㅂ’ 혹은 ‘ㅍ’이 됩니다. 그리고 혀끝이 아니라 혀뿌리를 올려붙이면 ‘ㄱ’ 혹은 ‘ㅋ’ 소리가 납니다. 입술을 오므려서 소리를 내면 ‘ㄷ’ 혹은 ‘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면 ‘뽉’ ‘뽉’ ‘뽉’ ‘뽉’ 소리가 나면 잘 하신 겁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이 네 글자가 구별되지만 이쯤 합시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이런 과정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만들어집니다. 힘없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어려움도 없이 말을 잘 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성기관을 잘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알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 하나 가지고도 이런데 우리 몸의 구조 하나 하나를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우리 몸이 신묘막측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는 들여다 보면 볼수록 너무나 신비합니다. 모든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작품들을 보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구절들을 보면 안식의 의미가 좀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 하셨으므로 너희도 안식하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식에 대한 이유가 다를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초창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면 아무리 크게 잡아도 4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시간차가 조금 있다곤 하지만 동일한 인물이 두 권을 기록하면서 앞에서 했던 이유와 다른 이유를 댔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앞의 이야기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하나는 틀렸어. 다른 사람이 쓴 거야' 쉽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함부로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왜 이게 달라 보일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을 자기 수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수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해서 덮어놓고 '다르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줄조차 모르고 지나가죠. 성경 다독도 중요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같은 내용이 여기,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만큼 세밀하게 읽어가는 것은 더욱 은혜가 됩니다.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두 이야기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일치하도록 고치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뻔하게 다른 이야기를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모세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모세는 이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도나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의 의도는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상 동일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안식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구해내서 가나안 땅에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사건 없이는 안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과 신명기의 안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7일에 쉬셨습니다. 8일엔 뭐 하시죠? 7일에 쉬신 하나님이 그 다음엔 뭐 하시죠? 여태까지 쉬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쉬시는 것 같다 그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쉬신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저 예수란 분이 뭘 하느냐 해서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하시는 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즉 구속사역의 한 부분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21:6에 하나님도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신 창조의 일이 창세기에서 일단 끝이 났다가 아담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새롭게 시작하신 일이 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계시록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을 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계시록 끝에 와서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차로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을 아담이 깨버린 거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까지 계속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 하나의 일은 아담이 깨뜨려 버린 창조의 질서를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셨다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아담의 범죄함과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이들을 구속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건의 ‘맛배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낸 것은 안식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날이 안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신명기와 연결시켜 본다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하심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또 한가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안식일보다 좀 더 확장된 안식년이 나옵니다. 25장 4절부터 봅시다. **제 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서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누가 안식하죠? 땅이 안식합니다.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껍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누가 덕을 보죠? 네 집에 있는 품꾼, 종, 심지어 들짐승까지 그 땅의 소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땅을 생각해 줘요? 농사를 너무 열심히 지으면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땅과 남종과 여종과 거기에 거하는 모든 들짐승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을 쓰실까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에게 더 많은 소출을 주시려고요? 사람만을 위하여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에덴동산에서 깨어져버린 평화를 회복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땅도 저주에서 벗어나 안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어렴풋이 앞으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안식은 이런 것이라고 살짝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가면 그 다음에 오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종되었던 사람들도 전부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땅도 전부 원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잘 보여줍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질서가 더 아름다운 수준에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 단순하게 편하게 쉽기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고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했던 인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 부합되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사역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싸우느냐 마느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몰살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격은 안되겠지만 수비는 하자’ 그래서 수비를 위한 전쟁은 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면 사흘내로 포위해서 성을 점령할 수 있으면 안식일 사흘 전에 공격을 하지만 그게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에게 군 복무를 안 시켰겠습니까? 행군을 잘하더니 ‘오늘 안식일입니다’ 하고 안

걸어요. 이래서야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군인을 징집할 때 유대인들은 뺏습니다. 얼마나 지독했으면 그랬을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조금 있긴 합니다마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개념을 전부 뒤엎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밀을 베어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하느냐고 책망할 때 이유가 뭐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함부로 베어먹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고픈 사람들이 마음껏 베어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 마음껏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포도는 가지를 꺾어서 바구니에 담지만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그래요. 밀밭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베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낫만 대지 않으면 손으로 베어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어요? 문제는 일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먹기 위해서 이삭을 비빈 자체가 추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안식일의 기준을 모두 엮어버립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송사할 목적으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나 안고치나 하고 유심히 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나 하고 묻거든요. 아예 '아무 것도 안 하고 쉽니다' 하는 대답은 원천봉쇄해 버립니다. 어쨌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물었으니 바리새인의 대답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대답은 아무 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안식일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니까 처음에는 송사하려고 마음먹었던 바리새인들이 안되겠다면서 죽이려고 덤빈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좌우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집념을 고의로 어기면서 유대인들의 규정들을 바꾸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뭐냐 하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만 삼백육십 몇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빠뜨린 것이 '왜 지켜야 하느냐'는 겁니다. 안식의 의미가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하느냐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어떻게 지키느냐에만 집중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왜 지켜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안식일 개념을 엮어버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모인 게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뭘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도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의미가 씨앗처럼 숨어있고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구속의 의미가 나타나 있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 정신과 비교해 보십시오.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죠? 이스라엘의 안식은 출애굽 사건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안식은? 성도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입니다. 그래서 주일 생각을 하면 맨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우리에게 이런 복된 주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뭐부터 생각하세요? '주일이네 아이고 죽었다' 하시는 분 없습니까?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들 가운데도 그런 분 많습니다. 왜 죽었다고 합니까? 교회 가서 주일날 죽을 정도로 일을 하나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일만 다가오면 밥 걱정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구역 담당이네. 뭐 해 먹이지?' 이거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걱정이지만, 여러분, 주일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생각부터 먼저 합시다. 이것이 우리 마땅히 기억해야 할 주일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할 날 영원히 즐거워할 그날을 바라보고 계시니다. 우린 주일이 될 때마다 그걸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 그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이 땅에서나마 누리고 맛보는 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주일을 잘 지키려다 면도를 하다가 말았다든가 주일 날 공부 안 하겠다 하고 밤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는 바리새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날 주셨음을 알고 기뻐하며 주 안에서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일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일에 뭘 해야 할 것인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해답이 똑같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를 알면 이 날을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지 이 날을 어떻게 기뻐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피곤하신 분들 많죠? 오죽하면 주일을 가리켜서 '주길날'이라고 합니까? 주일이 죽이는 날 아닙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일이 참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 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구상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다음 노래의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O, Happy Day! O, Happy Day! O, Happy Day!* 우리 죄를 주가 씻으셨네!

믿는 티를 내라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 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개역, 에스겔 20:10~17]

결

혼 예식 순서 중에 반지 끼우는 순서가 있더군요. 반지를 왜 끼웁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반지 끼우는 것을 쳐다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는 이제 나의 포로다. 도망은 다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반지를 낀으로서 영원히 포로가 되는 거겠죠. 무슨 포로죠? 사랑의 포로가 된 거겠죠. 그런 의미로 끼운 반지이기 때문에 어찌다가 실수로 잃어버리면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겁니다. 들키지 않고 똑같은 것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결혼반지를 자랑스럽게 끼고 있는 새신랑 보고 짓궂게 물었어요. “가끔 빼놓지?” 그랬더니 옆에서 색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신랑보고 새색시가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말이 “빼면 죽어!” 하는 겁니다. 빼면 죽어? 왜 그래요? 남자들이 결혼반지 왜 빼놓고 돌아다닙니까? 총각행세 할려고요? 예쁜 신부가 왜 그렇게 공갈을 치나요? 반지를 끼고 자랑스럽게 ‘결혼했노라’고 품 좀 잡고 다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불행하게도 한 번도 반지를 꺼본 적이 없지만 끼고 다니는 사람의 마음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싶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반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걸 빼 놓고 돌아다닌다? 색시가 생각할 때는,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겁니다. 빼기만 빼봐라! 그 말 한마디에 이 두 사람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느낄 수 있죠.

반지를 끼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두 사람은 그런 의미로 이 반지를 끼고, 또 자랑스럽게 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반지가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문이 말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례, 즉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로 인해서 삶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3절도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가령, 사람이 만든 법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사회를 제대로 지탱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교칙은 왜 만들니까? ‘교칙’ 하면 맨날 학교 가서 정학 맞고 벌서고...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교칙은 학생들에게 별주기 위해 만든 겁니까? 교칙은 학생을 학생답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요? 딱지 끊으려고 만든 법입니까? 도로교통법 하면 다른 생각은 안 나고 딱지 끊긴 생각과 전경하고 싸운 기억만 있는 분들이 더러 있긴 있을 겁니다. 도로 교통법을 만든 이유가 뭐니까? 사고를 방지하고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로교통법입니다. 형법은 벌주려고 만든 겁니까? 아니요. 범죄 행위를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게 형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 거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하면 딱지 끊긴 것만 생각나고 학생은 교칙 하면 아, 구질구질한 저것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다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율을 따지자면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의 이혼율이 높습니까? 후진국의 이혼율이 높습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이혼율이 높아 가는 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서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환경이 좋아지는데 이혼율은 왜 높아갑니까?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의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튼튼하고 사회가 튼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할 때 튼튼한 사회, 튼튼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으면 이걸 문제가 굉장히 큼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더니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똑같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가정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빠져나가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줄어들면 사회에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기독교 역사를 훑어보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있었던 사회와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물러가버린 사회와 비교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고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사회가 튼튼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가정도 국가도 위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 하면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이지 않느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사실은 인간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이 땅에서만 살려 놓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세상,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는 그 다음 세상에서까지 우리를 살려 놓는다는 점에서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이 땅의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짜증스럽게 여겼거나 답답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안식일을 언급합니다.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만 언급하는데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12절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와 인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와 인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면에서 기념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표징으로 주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죠? 표를 내기 위한 징표,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기념품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내 백성으로 삼은 기념으로 준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기념 말하자면 너와 내가 결혼했다는 뜻으로 반지 끼우듯이 준 것이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12절 끝 부분을 보세요.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에서 ‘그들과 나 사이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특별히 소중한 관계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지 똑같은 것을 두 개를 사서 같이 끼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커플링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반지를 하나씩 나눠 끼고 다닙니다. 왜 그래요? 어떤 사이에 그러니까?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결혼반지처럼 안식일 규정을 징표로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특별히 남다른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너와 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한 번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열국 앞에 이 관계를 드러내려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지라는 것도 두 사람 사이에 의미가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안식일을 너와 나 사이에 소중한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것을 통해 모든 열국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 놓았습니다. 전쟁을 중지했습니다. 무기를 놓고 전쟁을 중지한 그들은 전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럴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군대에 소집을 해 놓으니까 행군하고 잘 가다가 안식일이 되자 무기를 놓고 안 가는 거예요. 죽입니까? 살립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대에 소집당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 면제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제목이 '믿는 티를 내라'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나의 백성인 그 티를, 표를 내라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킴으로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티를 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티를 내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내라는 얘깁니다. 반지 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결혼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반지 끼고 총각행세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는 우리가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낸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티를 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티를 냈습니까? 가장 잘못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조용해졌습니까마는 몇해 전만 해도 내가 장로인데 그랬겠습니까?' 이런 얘기 참 많았죠.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더군요. '내가 권사인데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더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아니 목사님도 있었어요. 전도사는 안 나와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웬걸요, 그리 거창한 화면에는 못 나오고 신문 가십란에 조그마하게 났더군요. 명칭한 전도사가 교회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가서 목욕탕을 몰래 찍었다가 구속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티를 그럴 때 내는 것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덜 가리는 것 아닐까요?

"내가 이 교회 다니지 몇 년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은지 몇 년인지 알아? 너, 짐사된지 몇 년이야?" 이것도 예수 믿는 티를 내는 방법 중에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티를 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티를 내겠습니까? 진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티를 내는 것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더 나은 방법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한 방법, 즉 티를 낸 게 뭐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내 돌아가신 것은 낮아질 때까지 최대한도로 낮아진 그것이, 자신을 희생시키고 낮추어서 죄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 믿으시더라고 하는 것, 정말 티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티를 내기 전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티를 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말씀은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를 어떻게 섬기니까? 저렇게 꼴 보기 싫은 저 형제를 어떻게 섬기고 저걸 위해 내가 어떻게 희생하란 말씀입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 친구가 저렇게 경우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 이웃집의 그 밭생이 아줌마를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 각오로 그를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티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걸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가 크게 박해를 받을 때 어느 총독이 새로 부임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 들였습니다. 잡아놓고 죄목을 조사해 보니까 별 줄만한 잘못이 없어요. 이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예요. 죄목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을 주기가 좀 곤란하더라는 말이에요. 사회에 오히려 유익을 끼치고 해를 끼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죄는 예수 믿는다는 것밖에 없는데 총독이 로마황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황제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답도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고발을 하거든 법대로 죄를 주라. 그러나 아무도 고발하지 않거든 놔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발만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한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고발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웃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완전히 종처럼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완전히 잘못했음에도 따지지 않는 겁니다. 따지면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할 건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고발하면 사형감입니다. 고발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종처럼 살면서 그들을 섬기다시피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때 그런 시절에 믿는 성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교회가 그렇게 커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어떤 자세로 예수 믿는 티를 내야 하는 건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보아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개인 생각 같은데? 그런 평을 듣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우기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하고 말해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인정이 될 만큼 티를 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전도 강의를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왜 전도가 안되냐고 하니까 성경을 모두 가방에 넣어 다니기 때문이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찬송가를 손에 들고 교회 가래요. 뭐 설마 그것 때문에 전도가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다란 뜻인데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가는 게 그렇게 티를 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실 때 나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섬김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티 낸다고 직장에서 근무시간에 성경 읽지 마세요. 언제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는 성경을 읽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은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고용한 회사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티를 낸다고 아무 때나 성경책 펴놓는 것이 잘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는 애쓰고 노력해서 유능한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티낸다고 노래방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지 마세요. 요즘 노래방 가면 찬송도 있고 복음송도 다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잔 먹고 한참 기분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찬송가

부르지 마세요. 그건 섬김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들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섬김이냐? 내가 별로 원하는 일은 아니라 해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갈 때에는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로 맞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술 먹으러 간다고? 에이 절대 못 간다고 딱 끊지 마십시오. 함께 가야 할 일 같으면 어느 정도 함께 맞춰 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도가 넘지 않게 브레이크 역할도 하면서 뒷마무리도 해 주면서 어울릴 수 있는 데까지 함께 어울리는 것이 나를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인의 티를 내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 친구 만나려고 어느 아파트에 갔는데 대단지 아파트 마당이라서 몇 백대를 댈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공간입니다. 그 넓은 공간에 내 차만 못 빠지도록 앞에 차가 한 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밀어 보니까 핸드브레이크를 채워놨어요. 꼼짝도 안 해요. 결국은 경비실에 가서 차 주인 찾는 방송을 했는데, 수 백세대가 넘는 그 넓은 단지에 아무리 방송을 해도 안 나와요. 다른 차는 다 빠질 수 있는데 제 차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짜증이 몹시 났는데 차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책이 한 권 놓여 있대요. ‘야, 이거 나와도 싸우지도 못하겠다’ 방송을 해도 안 나오니까 별 수 없잖습니까? 방문한 것이 틀림없어 보이기에 할 수 없이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 시간정도 보냈을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은 날대로 났는데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심방 왔어요. 어쩔 도리 없잖아요. 물끄러미 보기만 했죠. 목사님이 집사님들과 얘기하는 것 듣기만 하다가 가는 것 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차 끌고 나왔어요.

‘목사님, 집사님, 하기 전에 주차부터 똑바로 해라’ 이게 제 심정이었어요. 그 넓은 공간에 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놓든지 연락처라도 남겨두든지 하면 좋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조치없이 연락도 안되고... 저도 사실은 심방갔었던데요. 혼자 열도 못내고 화도 못내면서 속으로 한 마디 하고 돌아온 것이 ‘심방 다니기 전에 주차부터 좀 똑바로 해라’ 이진데 말은 안 했습니다. 환호동 청구아파트인가? 볼링장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처음 생긴 때입니다. 안 잊혀져요. 심방 다니면서 목사님 집사님 하기 전에 주차부터 똑바로 해야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안 믿는 불신자가 그 꼴을 당했으면 전도는커녕...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기 전에 조심해서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이웃을 먼저 돌아보면 이런 실수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티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알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티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러는데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이들을 전부 멸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달리 행하였나니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멸하리라고 하였으나 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 전부 멸해 버리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멸해 버리면 누구 이름에 먹칠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전에 이들이 내 백성이라는 티를 다 내놓았거든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티를 다 내 놓아서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해 버렸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잘못되어서 크게 잘못될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 전에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티를 꼭 내 놓으십시오. 그럼 나중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함부로 손 못 댕니다. 교회도 어설피게, 얼렁뚱땅 다니다가 나중에 사고 쳐도 ‘그 사람 그럴 때 나 알아봤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말이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영 시원치 않더라.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명성에 별로 금이 안 갑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며 잘 믿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던 사람이 어느 날 실수를 하면 이진 하나님의 명성에 크게 금갈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런 실수하지 못**

하도록 내가 막았노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티내고 다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내 백성임이 온 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티를 내야 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서 멸하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보면 두렵습니까? 두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봅시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 있죠? 결혼 반지 이거 빼면 어떻게 되냐? 할 때 '빼면 죽어' 그 말을 듣는 신랑의 기분은 어떨까요? 두려워서 떨릴까요? '빼면 죽어' 그 말 듣는 신랑 기분 어떨까요? 제가 만약 그 소리 들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빼면...' 하는 그 주먹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차라리 맞고 싶지 않을까요? '...죽어' 하는 그 입이 얼마나 이쁠까요? 왜요? '빼면 죽어' 하는 그 말은 사랑과백이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공갈 비슷하게 분노를 쏟아서 멸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실제로 멸하지도 않으시면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을 어기면 죽음에 해당되고, 죽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눈에 잘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느냐는 생각이 잘 듭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이것 안 지키면 죽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애깁니다. 그건 '제발 잘 지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은 '이 율법을 준행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걸 주시면서 '이거 안 지키면 죽어'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징표를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하신 분은 결혼 반지 잘 끼고 다니세요. 신혼초에는 잘 끼고 다니셨다가 요즘 잘 안 끼고 다니시죠. 아마 식었나 봐요. 정말 식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차고 다니는데 우리 신랑만 있잖아 20년이 넘었는데도 자랑스럽게 끼고 다닌다' 이런 말 하는 부인의 기분이 어떨까요? 가슴 뿌듯할 겁니다. 그렇게 티를 내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저 결혼할 때 반지 못했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결혼할 때 예물로 했던 시계입니다. 잘 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고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자기는 시계 벌써 잃어버렸습니다.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에 몇 개를 더 챙겨다 주었는데도 없어요. 반면에 "우리 신랑이 결혼할 때 시계를 지금도 잘 끼고 다니더라" 그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랑도 그저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재미난 현상 하나 있죠. '결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해라' 하면 우르르 뛰어가는 남자 몇 명 있죠? 그 부인들 기분이 어때요? 좋죠! 죽어도 안 가는 분 있죠? 설마 섭섭하겠습니까마는 죽어도 안 가는 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힐끗 보더니 남자들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열심히 하는 걸 보더니 "야, 오늘 희한한 날이 다 있다" 그런 분은 죽어도 못한다는 거죠. 그것도 뭐 괜찮습니다. 어릴 때부터 굳은 버릇인데 어찌겠습니까?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결혼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엌으로...' 하는데 뛰어 갔다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지난 번 연극할 때 나왔던 말,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 하나 망가지면 온 교회가 즐겁다?' 그러니까 기꺼이 망가지자는 건데요 그건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내 하나 망가지져서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을까? 한 번 망가져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부부 애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는 절대로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요번에 참고 희생하고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티를 내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애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백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희생하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야 할 첫번째 이웃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첫번째 이웃은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두번째 이

웃이 자녀요 부모입니다. 세번째 이웃이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아! 참 시택이 있나요? 제겐 시택이 없어서... 시택 친절 다 포함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이웃, 직장 동료 이렇게 넓혀 가십시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아웅다웅 살면서 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를 희생하고 남을 섬김으로 받는 기쁨은 훨씬 더 큼니다. 정말 큼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번 달에 일, 이백 벌었다는데 나는 몇 배 더 벌었다. 그거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써, 나를 희생하고 내어줌으로써 받는 기쁨은 훨씬 더 큼니다. 그거 한 번 누리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믿는 티를 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으면?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판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판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판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판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개역, 마태복음 18:21~35]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빚을 지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얼마 전 신문에서 우리나라 현재 풍토를 설명하는데 ‘빚 권하는 사회’라고 굵은 제목을 달았더군요. 빚을 너무 많이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 빚 때문에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죽이는 사건도 생깁니다. 얼마 전에 끔찍한 일이 하나 있었죠. 빚 때문에 여러 사람을 죽여서 차에 싣고 다니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었죠. 주로 무슨 빚입니까? 카드 빚이었습니다.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쓴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간단하게 해결하느라고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늦게 다니시려거든 아예 명찰을 하나 달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카드 없음’ 주로 카드 때문에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카드 긁지 마세요. 그게 내 돈 쓰는 게 아닙니다. 빚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카드 긁지 마십시오. 이자 싸다고요? 이자가 얼마 안된다고 해서 함부로 은행돈을 빌려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꼭 써야 될 일이다 싶으면 능력 범위 내에서만 써야 합니다. 내 삶을 건전한 토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란, 간혹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자 갚을 능력이 아닙니다. 이자 갚을 능력만 있으면 끌어다 써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원금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원금 갚을 능력 이상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빚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하기 전에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 빚지고 싶어서 집니까? 빚지고 싶어서 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가능한한 카드 긁지 마세요. 또 빚인지도 모르고 마이너스 통장 열심히 쓰는 사람도 있죠? 가능하면 빨리 플러스로 돌려 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통장 역시 빚입니다. 많이 쓰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무슨 빚 얘기만 자꾸 하느냐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빚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빚도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소지가 많지만 다른 빚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를 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므로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자녀들이 내 백성인 것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뭘로 드러냅니까? 그저 회사 가서 성경책 열심히 펴놓고 주일에 성경 끼고 교회 가는 걸로 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를 내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함으로, 섬김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냥 나를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그러면 예수 믿는 재미가 도대체 뭐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지난 주 우리 백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 '관제로 드리는 기쁨', 우리 자신을 관제로 드리자는 겁니다. 관제가 뭐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제물에 자신을 쏟아 붓듯이 나를 쏟아 붓자는 겁니다. 그것이나 섬김이나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래저래 희생되어야만 하느냐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이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설교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혹시 건성으로 듣고 즉시 흘리는 것 아닙니까? 부담이 되면 좋은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기에 아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이웃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랍비는 세 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답니다. 여러분, 세 번이라니까 좀 쉬운 것 같죠? 교회에서 내 흉을 보고 있는 다른 집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저러고 다니나? 어떻게 저러가지고 집사라고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 번은 용서하지" 한 번 용서도 쉽지 않습니다. 잠자코 있으니까 또 들리는 거예요. "두 번 용서하지!" 얼마 안 있어 그 소리가 또 들립니다. "세 번 용서..."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번 용서도 어렵습니다. 성질 돋우는 말 한 마디만 들어도 바로 튀는 사람이 세 번까지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 다니는 수제자한테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지요. 랍비들보다 훨씬 더 통을 크게 해서 몇 번까지요? 일곱 번. 베드로가 맘을 아주 크게 쓴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성질에,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용서할까요?"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마음을 굉장히 넓힌 것입니다. 설마 이 정도면 우리 예수님도 오케이 하시겠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일흔 번에 일곱 번입니다. 그러면 몇 번이죠? 사백 구십번이요? 세 번도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 몰고 가는데 뒤에서 천천히 간다고 '뺑' 했습니다. '한 번!' 또 조금 가다 뒤에서 빨리 가라고 '뺑' 합니다. '두 번!' 세번까지 참아요? 잘 안 참습니다. '오냐 잘 가봐라' 그러면서 브레이크 씨익 밟아 버리죠? 세 번 참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곱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백 구십번 참아라? 누구에게 몇 번이나 참았는지 어떻게 외우겠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면 장부 들고 다녀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뭐니까? 헤아릴 필요도 없이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성질 한번 안 내고 끝까지 용서하느냐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상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너희는 그것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용서는 별 것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해 줘도 그게 별 것 아니라는 얘깁니다. 과연 그런가요?

우선 돈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백 데나리온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오백만원요? 계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백 데나리온 같으면 노는 날까지 넣어서 노동자의 녀 달 봉급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대강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연봉의 3분의 1이면 천만원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천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여라 하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계산을 해서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장정만 오천명이니까 다른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보태서 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백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 저것 감안해 보면 백 데나리온은 아마 천만원 정도 되는 액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계산해서 천만원 빚졌으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그 빛이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얼마에 비하면 그렇죠? 일만 달란트에 비하면 백 데나리온, 한 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달란트라 해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달란트는 데나리온의 약 6,000배입니다. 금으로는 약 34Kg입니다. 약 9천돈입니다. 한 돈 두 돈 정도가 아니고 9천돈입니다. 만달란트는 '9, 천, 만, 돈'입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노동자가 평생 열심히 일을 하고 쓰지 않고 모으면 2달란트나 3달란트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벌면 2달란트나 3달란트 버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일만 달란트입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통이 큰 겁니까 도대체 느낌이 안 오는 겁니까?

1달란트란 달리 계산하면 노동자의 20년 연봉입니다. 20년동안 받은 봉급을 다 모으면 1달란트입니다. 뭐 봉급도 봉급 나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5억이라고 합시다. 20년동안 봉급을 다 모으면 한 5억 정도라고 치면 일만달란트는 얼마입니까? 만달란트니까 5만억입니까? 이걸 5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5조라는 숫자가 저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5만억? 5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느낌이 없어요. 더구나 현재의 5조보다는 훨씬 화폐의 가치가 더 있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대 전국의 세금이 8백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전체 세금이 8백 달란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는 일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이 빚을 탕감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면 천만원은? 천만원 자체가 작은 것 아닙니다. 작은 게 아니지만 워낙 큰 돈을 탕감 받았기 때문에 천만원은 별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소득없이 봉급 생활 하는 사람은 빚이 천만원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단위가 조금 커지지요. 적어도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 빚이라 하면 억 단위는 붙어야 빚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빚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요. 빚지고 살면 곤란합니다. 가능한 빚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빚은 용서하기 곤란하지만 집 사는데 들어간 빚은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먹고 노는데 들어간 빚은 문제가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빚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들어간 빚은 그래도 언젠가 보람있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해결이 될 빚이기에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빚을 졌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 우리가 이렇게 큰 빚을 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나마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십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만, 제 친구 중 한 명이 여자 숙옷 만드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 번은 "내가 연필 한 번만 잘못 굴리면 5천만원 그냥 날아간다" 하더라구요. 지금은 몇 억이라고 할만한 액수입니다. "야, 무슨 연필을 어떻게 굴리는데?"

예를 들어서 숙옷을 하나 만들기로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원단을 결정하고 제품을 완성해서 시장에 냈는데 이게 제대로 안 팔리거나 소비자의 눈을 끌지 못하면 5천만원은 그대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흔히 있답니다. 옷이 비싼 이유가 그런 위험부담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을 한 번 두 번 저질러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봉급의 수십 배가 넘는 돈을 한 방에 날리고 또 날리면... 아마 회사 다니는 것이 죽을 맛 아닐까요?

마침 지난 주에 이형직 집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철에서 무슨 제품 하나를 생산해 내는 과정에서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고 조금 관계되었는데 이게 완전히 실패로 끝났답니다. 몇 억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못 견디겠더라고요. 집에서 부인이 하도 이상하니까 물었대요. "여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한다는 대답이 "나는 말해도 모른데이" 했답니다. 집에 가서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해도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점잖게 "그래도 부분데 고통은 나누어 가져야지" 했더니 "제발 가만히 놔두는 게 돕는 길이야"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픈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란 거죠.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별 문책이나 책망은 없이 회사측에서 부담하고 넘어갔답니다.

여러분, 월급이 백만원 이백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내가 한 번 잘못해서 회사 돈을 몇 억씩 날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만약 내 능력으로 갚아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심지어 학교 여직원이 70명이나 되는 선생님 봉급을 혼자서 찾아오다가, 요즘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봉급 찾아오다 몽땅 잃어버렸어요. 자기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내 평생 노력해야 2달란트 3달란트밖에 못 법니다. 그런데 일반달란트 빛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저히 빛을 못 갚을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대를 이어서 충성해도 그 빛은 못 갚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떼어먹어요? 혹시 황 집사님 돈 빌려달라 하거들랑 참고하십시오.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떼먹어도 이걸 어떻게 떼먹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영리해서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부인에게 재산을 넘겨놓고 썩싸게 이혼을 해 버린다고 하대요. 서류상 이혼해 놓고 실제로는 여전히 같이 살고... 사람들이 영악해져서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한다는데 남의 일이 곧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반 달란트를 당감해 줬는데 너 백 데나리온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일반 달란트가 얼마나 큰돈이냐는 것을 기억하셔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돈의 크기는 자기 수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에 일하는 아이가 선생님 봉급 찾아다 주면서 “선생님 이렇게 많은 돈을 언제 어떻게 다 써요?” 이러니까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애, 니 눈에는 되게 많아 보이지? 우리 식구들 한 달 먹기도 모자란단다” 선생님 눈에는 이 돈이 모자라는 돈이에요. 그런데 심부름하는 아이 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왜요? 자기 수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만지신 분입니까? 기껏해야 목수하시면서 목돈 만져봤자 얼마를 만져봤겠어요? 자기 수준에 맞는 액수를 언급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으면 세상에, 일반 달란트를 언급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가 속죄 받아야 하는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상상도 계산도 될 수 없는 큰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고 참아야 하는 것은 얼마에 해당되느냐 하면 백 데나리온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큼니까 작습니까? 아니 백 데나리온 이것도 작은 것 아니에요. 장정만 오천명 먹이는데 2백 데나리온 돈다 했잖아요. 그러면 백 데나리온은 자그마치 2천 5백명 먹일 큰 돈입니다. 잔치해서 2천5백명, 거기다 따라 온 식구까지 먹여보세요. 작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작은 돈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를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저 형제를 섬겨야 한다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섬기신 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섬겨야 할 것이 백 데나리온입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지불한 것은 일반 달란트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아니라도 저는 작은 돈에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깨들도 선생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언젠가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하더라고요. 학생이 그런 얘기하면 참 감사하죠.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너희들은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못 가르친다. 옛말에 자식은 못 가르친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자식 가르치는 것 포기할 테니까 너희가 나한테 잘 배웠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나중에 교사해라. 그래서 우리집 아이들 너희가 책임져라.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니까 고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부탁한다.” 그 얘기 하나 했고요.

또 한가지는 그 중에 한 아이에게 “내가 너 엄마한테 받은 빛이 있기 때문이란다.” “우리 엄마가 뭐 했는데요?” 1975년도에 제가 대학 간다고 갈 때 버스 타러 가는 길목에 쌀가게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간다고 들렀더니 차비 보태 쓰라고 500원 줬습니다. 500원요? 75년도에 500원입니다. 기차로는 대구까지 왕복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때는 직행버스를 못 타고 다녔습니다. 워낙 비싸서요. 기차비가 150원정도 했을 겁니다. 그 때 500원을 주셨거든요. 직행을 타고 왕복하기에는 좀 모자랐지만 좌우간 큰 돈이었습니다. 시험치러 간다고 왔던 그게 제 가슴에 늘 썩하게 남아 가지고 그 집 아이들은 기회만 있

으면 저희 엄마가 내게 줬던 것을 갚는 심정으로 참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는데 글썄 좀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때 500원도 참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갚아주신 것은 일만 달란트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이것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큰 돈 들어가면서 갚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시면 안되나요? 하나님에게 그냥 용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뭔가를 갚을 치르고 해야 되는데 그 값이 결국은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희생을 시키고서야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몸값이니까 일만 달란트라고 말하는데 그럴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몸값 같으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만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누구 몸값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몸값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희생하는데 대한 몸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큰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을 많이 만지신 분 아니에요. 전국의 세금이 8백 달란트라면 기껏해야 몇백 달란트를 언급하시면 말로라도 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금액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만 달란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래 전 얘깁니다만, 지금은 대구 시내의 물이 맑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대구 시내를 흐르는 금호강의 칠성천이 구정물 투성이일 때 국민학교 아이 둘이 지나가다 보니까 잠자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그걸 건져 주려고 내려갔다가 미끄러져 익사해 버렸습니다. 신문에 참 크게 났어요. 그나마 그건 실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물에 빠진 잠자리를 보고 아들에게 “야, 내려가서 저거 좀 건져줘라” “내려가다 잘못하면 죽는데요” “니가 죽어도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잠자리를 건져내라” 그런데 내려가서 잠자리는 살려내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 친구가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 말하기가 곤란합니까? 이건 완전히 정신 이상 아닙니까?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하고 이 아버지가 잠자리 한 마리 건지려고 아이를 물에 빠져 죽을 만큼 위험한 곳으로 내려보내는 것하고 비교해보세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게 비유해도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가 값어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한 값어치가 우리에게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값이 예수님에게 매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낸 것이 너희를 사랑한 것 때문이지 너희에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셨고 우리 민족을 사랑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도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갈 때 모여라 했더니 3만 2천명이 모였습니다. 적군은 14만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줄였습니다. 만명요? 그것도 너무 많다 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데려갔죠? 300명.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는 이유가 뭘니까? 상대는 14만입니다. 그런데 만명도 많다고 300명 데려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드온 사건의 다른 것은 다 잊더라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것 빠뜨리면 기드온 사건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 만명도 많다고 하십니까? 만명을 이끌고 가서 싸워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해서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싸워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만명도 많다 줄여서 300명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걸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라고 고백할 것이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싫어하시는지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

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단 달란트라는 말을 가볍게 보아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계산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너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백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인지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큰 일 났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저기 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에게 오던 손님들이 전부 거기로 갑니다. 큰일났습니다.” 요한의 대답이 뭐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보다 뒤에 온 분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서 크게 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쇠하여 가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요한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신랑인데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나는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흥하여 가는 것을 보고 저 분이 흥하여야 한다. 나는 저 분이 흥하는 것을 보면 내가 쇠하여 가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던 그 요한이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죽었죠.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의 춤 값으로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큰 자라고 칭찬했던 세례요한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왜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큰 일을 위해서 죽으셨으면 괜찮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없이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든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백 전도사님이 말씀드린 것도 있죠. 바울은 자신을 관제로 드립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쏟아부어서 희생시켜 버리는데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드러버리는 것인데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내 이런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내 빛을 갚아주신 것이 얼마인지를 잊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섬기는 일이 기뻐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감옥에 가두겠죠. 심지어 처자식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죠. 처자식 뿐 아니라 본인까지 다 팔아도 갚아지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엄청난 빛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뭐니까?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대신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대속(代贖)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한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빛을 이렇게 갚으셨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을 보면서 ‘저 지옥에 떨어질 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정말 크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주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랍비들은 세 번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통을 아주 크게 해서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림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베푸신 보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티를 내기 전에 주차부터 제발 똑바로 하자고 얘기 드렸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덕을 못 끼치는 것이 차입니다. 본의 아니게 '저거 또 예수쟁이네'라는 소리 듣기 쉬워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것 맞습니다.

그것도 백 데나리온입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큰 사랑 베푸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합시다. 일만 달란트가 5조원에 해당되더라. 이걸 기억 하셔도 좋고 아니면 물에 빠진 잠자리 하나 건지기 위해서 귀한 생명을 버렸더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잠 자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돌려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라, 신학이나 할까?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브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개역, 신명기 4:1-8]

한 국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딩크요? 큰일났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한국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면 히딩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세계 모든 사람이 알만한 한국 사람이 그리 없다는 뜻도 되지요. 국내에서 유명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도 유명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부자가 세계적인 부자의 대열에 명함을 내밀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나 아인슈타인, 번스타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른다면 어느 민족이예요? 어김없이 유대인입니다. 옛날에 키신저가 유명했죠. 키신저라면 국가 분쟁이 저절로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 분도 유대인입니다. 근래에 영화로 유명한 스피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후하게 쳐도 2000만을 넘지 않습니다. 60억 인구에 2000만이면 0.3%가 되나요? 1%도 안되는 작은 숫자입니다. 이 작은 숫자 중에 절반 정도가 미국에 있습니다. 왜 미국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요? 이건 슬픈 역사의 결과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거든요. 발붙이고 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쫓기고 쫓기다보니까 막판에 몰린 곳이 미국입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입니다.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받으며 흩어져 사는데 유명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세계에 명함을 내밀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반면에 유대인은 수두룩합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지금 노벨상을 탄 사람이 300명쯤 되면 유대 민족이 차지한 숫자가 1/3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이죠? 1명요? 그 한 명도 좀 찝찝하죠? 유대민족은 어떻게 인구도 그리 많지 않으면서 노벨상의 1/3정도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유대민족은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특이하고도 뛰어난 민족이란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구했겠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지혜의 보고라고 할만한 탈무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 탈무드라는 말이 붙은 책들이 한 때 유행처럼 많이 나왔습니다. 읽어 볼만 합니다. 참 유익하고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가 뭐냐 하면 토라를 근거로 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흔히 모세오경을 간단하게 토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토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탈무드가 있었다는 말이고 그 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위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 차라리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면 좋을텐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죠.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위대한 민족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될 일을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지혜의 보고 탈무드가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탈무드의 근원을 올라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거기에서 랍비

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추가시킨 얘기들입니다.

또 한가지 더 결정적인 것은 유대인들이 자녀교육을 정말 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대인의 자녀교육'이란 책이 유행을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배고프다고 하는 아이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이 있지요. 유대인의 자녀교육에서 나온 얘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허다하게 있지만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에게요? 자녀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당부한 것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념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한 절기가 되거나 일이 있을 때마다 기념물을 세우고 기념비석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것들을 그대로 가르치라고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자녀에게 일찍부터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위대하게 되었다고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녀교육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건데요? 성경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지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빼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한 것만으로도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훌륭한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 활동을 하다가 훌륭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교육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 대를 이어서 훌륭한 아들이 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일 경우에는 훌륭한 자녀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밑에서 훌륭한 아이가 또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녀교육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자녀교육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행해질 때에 유대 민족이 특이한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1.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살 것이다: 살아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1절을 봅시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살고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죽습니까?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배우니까 잘 살고, 성경 없는 사람들은 못살니까? 여기서 산다는 것은 그냥 밥 먹고 이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짐승이 사는 것하고 사람이 이 땅에 살아 있는 것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고 삽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그 시잔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들로 떡이 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집에 가서서 정말 성경책 많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보를 보시면 읽는 성경 장수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말씀을 주식으로 알고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주식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 밥은 간식입니다. 그것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간식으로 힘을 유지해 나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사라질 몸이 아닙니다. 밥

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 몸을 유지해 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주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가르친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가르치는 게 뭐니까? 다른 말로 교육이라고 하죠. 군대 용어로 교육은 뭐니까? 군대에서 교육은 기합입니다. 교육 좀 받고 싶어? 이 말 나오면 아이고 죽었구나 하는 겁니다. 군대 용어로 교육은 두들겨 패서라도 군기 잡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교편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교편이라는 것은 회초리를 뜻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회초리를 들고 훈련시키고 억지라도 다듬어 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르치다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가르치다는 것은 뽀족한 것으로 콧코 찌른다는 뜻입니다. 아니 뽀족한 것으로 콧코 찌르면 어떻게 돼요? 피나요? 어떨 때 콧코 찌를까요? 졸고 있을 때요? ‘야 정신차려’ 하고 콧코 찌르는 게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정신이 희미한 사람을 정신 차리도록 콧코 찌러 주는 것이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이 바짝 들어서 살도록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신이 말짱하게 깨어 있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 많이 있는데 가령 어류 중에 부정한 것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어류들은 대체로 자기가 갈 곳을 분명하게 정해서 마음껏 나아갑니다.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물을 거슬러 가기도 합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미꾸라지는 먼 곳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서 뽕글뽕글 돌다가 주로 흙탕물이나 진흙 구덩이에 머리를 처박고 사는 어류입니다. 하나님이 그건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추어탕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부정하다고요? 영양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꾸라지가 사는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이 닮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말라 버리면 지느러미를 가진 어류들은 거의 죽습니다. 물없이 못 삽니다. 저수지에서 물을 뺄 때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꾸라지는 물이 빠져도 안 죽어요. 진흙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비가 올 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미꾸라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지느러미 달려 있는 어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어류들처럼 정신이 말짱하게 깨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도록 콧코 찌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살아야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 있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설명할 때 진정한 안식 없이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안식이지만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그 안식을 누리며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4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여 살았다. 어떤 너희입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아니한... 이 ‘붙은’이란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왜 하나님께 붙어서 안 떨어지나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시내 나가면 눈썹 시려운 것 많죠?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손만 잡고 가도 조금 덜 할진데 딱 붙어서 다니는 것 보면... 이 더운 여름에 덥지도 않나? 여기 ‘붙은’이란 말은 연인들이 떨어질 수 없어서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붙은이란 말은 부부 사이가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너희는 생존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신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2.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땅을 얻을 것이다(1c)

그렇게 살면 1절 뒷편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잘 준행하고 섬기면 결과적으로 땅을 얻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실 때도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그 복 속에 땅을 준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땅이란 삶의 근본입니다. 땅이 없으면 삶 자체가 흔들려요. 지금도 땅이 없는 민족이 있죠? 사람은 있는데 땅이 없는 민족이 있어요. 터키와 이라크에 흩어져 있는 투르크족입니다. 민족은 있는데, 땅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쫓기고 저 나라에서 쫓기고, 한 때는 민족이 완전히 말살을 당할 정도로 쫓기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땅이 없는 민족은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한 때 땅 없이 근 2000년 동안 온 세계로 흩어져서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땅은 삶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어떻게 얻습니까? 신명기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은 땅없이 방황하는 이민족이었습니다. 땅이 없어 방황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백성이 땅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가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줄 테니까 여호수아더러 뭘 하라고 하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일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정복하라고요? 정복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가라, 건너가서 밟아라, 밟는 땅은 다 준다. 그런데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하라고요? 주야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말고 율법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뭐가 필요하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싸울 준비 안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한다는 것은 보통 배짱 갖고 못하는 일입니다. 아니 적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럴러니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고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가 밟는 땅은 전부 너희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합니까? 돌기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밟은 거죠. 뱅뱅 돌면서 밟기만 했잖아요. 마지막에 소리를 좀 지르긴 했지만 소리지른 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선 하라는 얘깁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얻는 방법이 될까요?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까요? 땅을 차지하려면 우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 없이 어떻게 땅을 차지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땅이고 집이 생길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땅을 얻는 방법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에 진짜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을 어떻게 얻어요? 그냥 만들어 버려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 중에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좋은 남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써요? 옆에 앉은 분이 하나님께 때 써서 얻은 분입니까? 좋은 남편 얻으려면 많은 남자를 사귀어 봐야지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도 기르고 분석을 잘 해서 골라야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남편을 얻는 방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자녀를 어떻게 얻어요? 자녀는 마음대로 안된다고 그러대요. 좋은 자녀를 얻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얻는다는 것이 그냥 땅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얻은 땅에 풍성하게 과일이 자라고 채소가 자

라고 거기에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그게 땅을 얻는 겁니다. 황무지 얻어 가지고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야 그걸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리라는 땅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직장과 가정이 바로 우리의 땅입니다. 취직이 되었으면 땅을 다 얻은 겁니까? 아니요.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게 제대로 땅을 얻은 겁니다. 그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며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끌어들이 수 있고 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가는 그것이 우리가 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까?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우리가 땅을 얻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남편 얻었고 아내 얻었으면 그게 땅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나중에 좋은 자녀가 되고 하는 것은 본인 노력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너가서 마구 밟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밟고 다니기 이전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남편을 얻고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제일 끝에 보면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는 뜻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도록 쿡 쿡 찌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울타리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울타리는 내 행동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고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목표와 방향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말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나 남편을 얻고 좋은 자녀를 얻으려면 성질대로, 마음대로 날 뛰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질대로라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공갈을 그치라'니까 그래서 공갈을 그치는 것이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성질대로 마구 설치면 우리 식구도 얻을 수 없고 직장의 동료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울타리를 잘 쳐서 통제를 잘 해야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땅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한계와 방향을 위해서 스스로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울타리는 주로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에 날마다 찢리는 양이 있을까요? 가시로 울타리를 해 놓으면 양이 늘 찢릴까요? 잘 안 찢립니다. 한 번쯤 찢러보면 두 번 다시 안 찢려요. 가시로 울타리를 쳐 놓았는데 맨날 찢린다면 울타리가 문제예요? 양이 문제예요? 찢리는 양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를 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매일 찢리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문제예요? 찢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가시 울타리로 된 그 속에서 내가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으면 제대로 된 양이고 저리 가도 찢릴 것 같고 이리 가도 찢릴 것 같아서 불안한 양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냐? 축구 좀 볼러니까 또 무슨 구역에배야? 교회만 안 다니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못해서 늘 마음이 상하고 찢립니까? 그게 바로 매일 울타리에 찢리는 양입니다. 가시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아픔도 안되고 방해도 안되고 오히려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안에서 평화로울 수 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된 양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울타리를 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쳐주는 울타리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법을 지킬 때 주의할 점은 2절에 보시는 대로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영똥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엄한 징계를 가하신다는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3절의 바알브올의 일입니다. 바알브올의 일은 본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궁금할 때는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었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바알브올 옆에 작은 글자나 무슨 표시가 붙어 있으면 그 성경책은 계속 보시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성경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바알브올에 보면 ‘ㄷ’이 붙어 있고 그 ‘ㄷ’자를 따라 난 위쪽에 보면 민수기 25장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25장을 찾아보면 이 바알브올의 일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다가 2만 4천명이나 죽었던 사건입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는 찾아갈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25장 사건을 나중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엄청난 징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방인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를 더 감격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때에,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는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기서 그들이란 이방 나라들입니다. 열국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정말 지혜와 지식으로 큰 나라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지혜가 풍성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이방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감탄을 할거라는 애깁니다. 무슨 감탄요? “야, 참 희한한 백성이네!” 이 소리를 할 거라는 애깁니다. 과연 유대인은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희한한 민족으로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감탄을 합니까? 이웃들이 ‘참 희한하다’는 소리를 도무지 하지 않는다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성경책은 읽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의 가르침대로 살죠?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어쩔 수 없이 유교 전통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신 것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편에게 목숨 바칠 각오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주위의 불신 이웃사람들이 “저 집 희한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야 하고 큰소리 뽕뽕치고 사는지 한 번 잘 보십시오. 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은 진심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유명한 말은 ‘지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고...’ 입니다. 남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올챙이 시절도 모르고 까불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집안 희한한 사람이다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반 상식하고 달라야 합니다. 항상 말씀에 근거해 있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심판을 하다보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결국은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과 공의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대체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죠. 어느 쪽입니까? 아낌없이 자녀에게 주기만 했지, 자녀에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징계하고 훈계하는 일은 요즘 잘 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좀 뜸합니다마는 데모할 때 한 번 보세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경찰을 두들겨 뺨니다. 이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데모도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하고 만약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고 법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쉽니다. 경찰이 두들겨 맞다 보니까 설마 여자는 안 패겠지. 그래서 남자 경찰 빼고 여자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처음에 한동안은 여자 경찰이니까 안

됐어요. 얼마쯤 지나니까 여자 경찰도 두들겨 맞고 입원하는 거예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미국은 데모가 그칠 날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두들겨 맞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법의 제정이나 집행이 공정하지 못한 탓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분명하게 돼있지 않아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라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잘 하면 학생들에게 두들겨 맞을 날이 곧 올 겁니다. 아이들을 그저 사랑으로만 대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벌을 줄 때는 두려워할 만큼 벌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저 오냐 오냐만 연발하는 부모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4.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7-8)

여호와와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신 사상이 지금도 그리 쉽게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 보세요. 얼마나 소위 신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문명화된 사회도 이 정도라면 적어도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대에는 정말 특이한 사상입니다. 온 세상이 범신론, 다신론, 지역마다 지역신을 섬기던 시절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면 자연히 신도 바뀌고, 왕이 정치적 이유에 따라서 없던 신도 만들어 내던 시절입니다. 이런 시대에 유일신을 믿고 더구나 그 신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온갖 사랑을 다 베푸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이런 신이 천지에 어디 있었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위대한 사상이 나오고 위대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맺는말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불신자들에게 존경과 놀라움을 받고 삽니까? “참 복도 많지, 참 희한한 놈이다”는 말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할 곳은 반찬 그릇이나, 국 그릇 ‘안’ 입니다. 소금이 나물이나, 비린내나는 생선이 싫다고 튀어나와 버리면 소금이 소금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녹아서 모양이 없어질 망정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길 바라고 직장을 때려치우는 것은 결코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못견디겠다 싶으면 흔히 뭐라고 하지요? 신학이나 할까요? 신학이 어디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제가 아는 정답은 “에라, 장사나 해볼까?” 입니다. 장사는 쉬운 줄 아세요? 봉급받는 직장보다 결코 만만하게 아닙니다. 직장의 못된 상사보다 더 배알이 뒤틀리는 일도 참아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야 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어야 할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적응하지 못해서 도피해서는 안됩니다. 에~라! 신학이나 할까? 이것이 결코 패배자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화하다가만 계란처럼 교회로 도피해서는 안됩니다.

빛이 비추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이 밝은 곳만 좋아해서 밝은 곳을 찾아다닌다면 제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맙니다. 소금은 비린내나는 생선 속에 녹아서 들어가야 하고 빛은 어두운 곳일수록 더욱 환하게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우리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는 은사공동체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 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 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개역, 고린도전서 12:12-31]

중 고등학교 시절에 말썽을 많이 피우던 학생과 모범생이 나중에 둘 다 교사가 되면 누가 더 훌륭한 교사가 될 것 같습니까? 야단 한 번 맞지 않고 곱게 잘 큰 학생이 선생님이 되면 말썽부리는 애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부싸움도 가끔 하시는 분은 다른 집안 싸움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싸워본 전적이 있으니까 화해하는 방법도 아는 법입니다. 문제가 참으로 많았던 고린도 교회 덕분에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말썽꾸러기가 좋은 선생님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문제가 참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무역이 성한 상업도시였고 노예가 많았던 시절에 이 고린도에는 자유시민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재력 있는 사람도 많은 항구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환여동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가 헌당식을 한다고 해서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북부 해수욕장 가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회고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교회 가서 은혜 실컷 받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은혜가 다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웃어요.

교회당을 내려가면 아래층 계단 위의 비스듬한 계단 천정에 노래방 이름이 적혀 있었답니다. 그 노래방 이름이 ‘똥쌍피’였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다가 노래방 이름만 쳐다보면 그만 은혜가 다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폭소를 터뜨리더군요. 북부해수욕장 근처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분위기가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 있다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옮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더라구요. 고린도 교회가 속한 지역이 그러했기 때문에 교회에도 그 비슷한 문제가 제법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다 받은 은사를 마음껏 쏟아 놓을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똑똑하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교회의 이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바로 이 고린도전후서가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능력을 서로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의 우리 교회와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문제를 일으켰으며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하나를 들고 있죠. 몸은 하나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는 하나요, 한 형제요, 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가지고 교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몸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되는 애깁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할 때 도망을 갔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저들은 사람 죽에 들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멸망받아 죽어야 할 저 원수들에게 어떻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민족적인 감정을 넘어서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몸이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이 안되는 애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종이냐 자유자나 한 몸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으려면 죽을 수밖에 없고 도망가다 잡히면 죽는 게 종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종이 어떻게 자유자와 한 몸이고 같은 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냐는 애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모군단 본부대 작전기획과 소속이었습니다. 과장이 중령입니다. 민간인이야 중령이라 해도 별 감동이 없겠지만 일선 부대에 가면 중령은 한번도 구경하지 못하고 제대한 사람이 수두룩할 정도로 높은 계급입니다. 그 밑에 소령이 한 분, 대위가 두 분 계셨고 사병들이 네 명 있었습니다.

가끔 이마에 별이 하나 달린 참모장이 순시차 사무실에 들립니다. 참모장이 들어서면 구령을 소령이 붙입니다. 평소에 하늘같이 높은 소령이지만 그 때에 보면 군기가 바짝 들어서 '차렷' 하는데 장교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자세를 잡고 있지만 작대기 달고 있는 네 명은 구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든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찮을까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대기 달린 사병은 사람 죽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령에 따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설마 그럴라구요?

저희 부대에 방위병들이 있었는데 빨간 별관이 뜨면 방위병은 화장실에 전부 숨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마 싶었지만 작대기도 사람 죽에 안 들어가는데 방위병이야 오죽했겠나 싶어요. 이런 장군이 어느 군목에게 "목사님, 제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주일에 정복입고 오셔서 현관에서 후보만 좀 나눠주십시오" 이랬거든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가 터져 나갑니다. 세상에 하늘 같은 우리 장군님이 교회 앞에 서서 후보 나눠주고 있더라? 졸병들에게는 황송도 보통 황송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유자와 종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별을 단 장군님과 작대기 달린 병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인으로 섬긴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이냐 자유자나 한 몸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장군이 낮아져야 합니다. 자유자가 종된 사람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애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되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교회 안에서는 최대한 낮추셔야 합니다. 낮춰서 능력 없는 사람에게 눈을 맞추어서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로마시대에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는 애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지 않고도 그냥 교회가 순탄하게 성장해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다, 온 성도들이 한 몸이다, 이걸 강조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절, 16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지체가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그런 말을 한다 해도 그러다고 해서 몸에 안 붙은 게 아니란 애깁니다. 만약에 몸에 붙어 있는 팔이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라고 떨어져 나갈 수도 없지만 그렇게 주장하면 팔 자신에게도 불행이요 몸에게도 불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이라도 우리 스스로 한 몸된 교회에서 난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를 부정하고 잘라내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다.” “저 사람하고 같은 구역 식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손이 아니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발이 아마 손에게 이런 말을 하는 듯 싶어요. 손이 아마 발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손이 한마디 했겠죠. 나는 너보다 위에 존재하고 너는 밑에 있잖아. 그래서 발이 좀 빼쳤는지 모르죠. ‘그래 나, 손 아니다 발이다. 그래서 너한테 붙은 게 아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면 귀가 눈보고 그러죠. 아무래도 눈은 정면에 붙었고 귀는 옆에 붙었으니 눈이 ‘내가 더 귀한 것 아니냐?’는 말을 했을 테고 귀가 성질이 좀 낫는 듯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축구면 축구, 노래면 노래, 연극이면 연극, 음식이면 음식... 얼마나 잘 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잘 하는 건 좋은데 틀림없이 그 뒤에서 누군가가 “그래 너희는 노래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나는 아무 것도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뒤로 물러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눈이 정면에 붙어서 잘 났다 이거지? 오냐, 나는 옆에 붙었다 잘 놀아봐라” 이게 귀가 하는 얘깁니다. 발은 손을 보고 “너는 좋은 것 다 만지고 위에 붙었으니까 잘 하지? 그래, 나는 온통 무좀 투성이고 바닥에 붙어 가지고 고생 많이 한다.” 이런 감정을 귀나 발이 가져서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은데 또 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섬기지 못하면서 옆에서 그런 감정을 가진 귀가 있고 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잘 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송종국이 잘한다’ ‘안정환이 잘한다’ 그래서 어디 배 아픈 사람 있어요? 골키퍼가 참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대요. 이윤재 골 잘 막아서 배 아픈 분 계세요? 없죠.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라고 생각을 하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님에도 저 선수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죠. 이번 화요일날 또 이겨야 할텐데... 아, 이긴 욕심이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목표가 16강은 잘 되면 좋고 1승이었잖아요? 월드컵에 몇 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못 이겼단 말입니다. 1승하면 잘하고 혹시 16강 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정도의 기대였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들과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선수가 23명인가 그렇죠? 그 중에 한 번도 못 뀌 사람은 기분 안 나쁘겠어요? 아니 대표로 뽑혀 가지고 한 번도 시합을 못 나간 사람은 기분 안 나쁠까요? 나쁠 수도 있겠죠. 거기서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라면 다른 선수가 잘 해서 골을 많이 넣어도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 아닌 저 사람이 잘해도 그게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잘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잘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몸에서 떠나 있다’라든가 성도들과의 교제를 끊고 ‘누구 누구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결코 하지 말란 뜻입니다.

17절부터 또 봅시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라고 말하므로 지체는 각각 달라야 하지 똑같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각자가 지체로서 맡은 임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만족해야 한다 혹은 나와 다른 능력을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은사를 너무 탐내지 마세요. 누구 보니까 나도 노래 잘 했으면 좋겠다. 잘하면 좋죠. 나도 축구를 저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 잘하면 좋죠. 누구 보면 또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남 잘하는 것 자꾸 탐내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아닌게 아니라 몸에 발만 잔뜩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은 두 개면 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전부 ‘발’ 하겠다 해서 발만 잔뜩 붙으면 오징어가 되나요 문어가 되나요? 아니 눈이 좋다고 모두가 눈이 되면 그건 정상적인 몸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와 보면 누가 제일 부릅습니까? “나도 저렇게 한 번 해 보았으면...” 그런 분 있어요? 주일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저도 욕심이 좀 있어서 나도 저걸 한 번 해 봤으면, 저도 교회 일이라면 웬만큼 다 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거 한 번 했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다를 수 있고 각자 맡은 일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한 몸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지체 하나가 혼자 잘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코리아 나 갔는데 가령 발가락 하나가 협조를 안해 주면 나가서 제대로 당선될 수 있습니까? 발가락 하나가 협조 안해 준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발가락 한 귀퉁이가 굵아서 몹시 아픕니다. 걷는 게 제대로 되겠어요? 밝은 표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말이나 똑바로 나오겠어요? 몸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협조를 안해 주고 방해해 놓으면 그런 곳에 나가서 제대로 못 해냅니다. 웃음면 얼굴로 우아하게 말도 잘하고 품도 잘 잡아야 하는데 몸의 어느 한쪽, 가령, 이빨이 아프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몸 어느 부분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자기가 맡아 있는 기능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화상을 입어서 눈썹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털을 이식하기로 했답니다. 머리털을 뽑아서 눈썹에 심었는데 죽더라고요. 자라지 않더라고요. 머리털이 심겨 있는 발과 눈썹이 심겨 있는 발이 토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식해서는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머리털 밑에 있는 실핏줄을 피부 밑으로 눈썹 밑까지 당겨와서 머리털을 다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새로 까는 셈이지요. 수로를 새로 깔고 거기에다 머리털을 이식해 놓으니까 살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었는데 단점이 하나 있죠.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눈썹이나 이마에 있는 털이나 뭐 그게 그거 일 것 같죠?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마에 있어야 할 머리털은 머리털대로 역할이 있고 눈썹은 눈썹대로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피부 아래의 구조까지도 다릅니다. 눈썹이 만약 머리털 같아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발소를 얼마나 자주 다녀야 되겠어요? 묘하게도 눈썹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한 번도 대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몸의 지체 하나 하나가 얼마나 오묘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하나라도 만만하게 보지 말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맡았든지 각자 다 소중한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애가 어릴 때 편도선을 많이 앓았어요. 일년에 네 번 이상 그러거든 수술을 해 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의 권고에도 몇 년간 버티다가 도저히 안돼서 동산병원에서 수술하려고 예약을 하려는데 편도선 수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약이 밀려서 날자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한답니다. 간신히 방학 끝날 쯤에 예약을 하고 어린 것을 데리고 하루 전날 올라갔습니다. 수술 준비로 피검사도 하고 병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무척 많이 하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또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다 하다가 결국 그날 저녁에 수술 안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 제거하라고 하는데 의학에 대해서 별 지식도 없는 제가 굳이 고민하면서 수술을 포기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유없이 편도선을 사람에게 달아놓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가령 지금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의사들이 말하지만 언제 어느 때 가서 우리 몸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밝혀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사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쓸데없이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잘 모르는 우리가 함부로 제거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지 모른다. 고민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수술을 안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조금 더 하긴 했지만 그 후 얼마 안되어서 해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편도선 붓는데 좋은 약이 고추잠자리더군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고추잠자리를 잘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 뿌려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의외로 그게 잘 들어서 큰 고생은 면했습니다. 지금, 제가 편도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소용이 없고 애만 먹이는 편도선이라고 함부로 잘라 내지 말라는 겁니다.

22절을 잠깐 봅시다. ‘이 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게 쓸데 있겠나 싶은 그런 지체가 사실은 더 요긴하다는 말입니다. 표현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지 우리 몸에 이런 예를 들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무난하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 꼬리뼈 있으세요? 사람에게 무슨 꼬리뼈가 있어요?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꼬리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게 뭐하는지도 모르는데 좌우간 꼬리뼈를 다치면 바로 앉지 못합니다. 예삿일이 아니래요. 그 말을 처음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몸에 있는 때도 우리 몸의 일부이고 적어도 몸에 붙어 있는 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사람 만큼 목욕탕에 가서 때를 그렇게 열심히 미는 민족이 없다고 그러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몇 시간씩 해서 빨강게 되도록 흘러당 벗겨내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때도 몸의 한 부분인 각질인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싹싹 벗겨내면 병원균의 침입에 피부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몸의 때마저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몸에 필요하다고 붙어 있는 겁니다. 너무 벗겨내지 마세요.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남이 보기에 번쩍번쩍하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곳은 일도 교회를 이루는 데에 아주 요긴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뒤에서만 봉사하는 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뒤에서 많은 분들의 손길이 오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겠고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나의 이런 봉사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기만 하면서 붙어 있는 지체도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던 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다니려고 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올해는 교회일 손 다 놓고 편안하게, 교회 다녀보겠다.’ 한 번 다녀 보세요.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마음이 편한 것도 은사지만 아무 것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만 살짝 참석했다가 돌아가는데 이것도 은사입니다. 쉬운 것 아니에요. 우리 지체 중에 그런 지체가 뭐가 있겠어요? 새끼손가락 아닐까요? 새끼손가락을 특별히 사용할 일 있어요? 가끔 소용도 있긴 있지요. 귀 후빌 때 쓰나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이 작은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없으면 장애인입니다. 아무 역할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없으면 나머지 지체가 불편해요. 어떤 성도라도 불필요하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도록 특별히 당부합니다.

24절을 봅시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존귀히 하사...’ 아름다운 지체는 그대로 두고 부족한 지체는 존귀를 더한다는 것은, 발을 예로 든다면, 발은 손보다 못 생겼으니까 손은 그냥 다니고 발은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르게 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지체보다는 귀하지 않은 지체를 더 대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다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없고, 못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단 말이나 하는 사람에게 교회가 더 관심을 쏟고, 잘 돌보아줘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님도 더욱 공손합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잘 나오는 권사님이 한 번 빠지면 야단 치죠? 그런 사람들은 천날 만날 빠져도 야단 안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이렇게 고르는 것처럼 비록 능력이 없고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어떻게 판별하죠?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고 합니다. 이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다른 머리가 뜨겁다고 울면 한 사람이고 가만히 있으면 둘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랍국가들과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한 민족이고 안 오면 다른 민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으면 한 동족이고 내 동족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망가서 숨을 수 있으면 그건 동족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한 몸이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겉으론 '아이고 이래서 어쩌나' 하면서 돌아서서 '말 안 듣더니 마 꼬시다' 이런 맘을 품고 있으면 이건 다른 몸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함께 나누고 관심을 보이고 가능하면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병고치는 은사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잘 안 낫더라구요. 그런데 이 은사가 제일 앞에 있으면 기가 많이 죽을 건데 순서를 보니까 뒤쪽에 있네요. 이것이 어쩌면 아주 요긴한 은사일텐데도 뒤쪽에 있다는 것에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은사이건 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모두가 이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이것이 바로 은사공동체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이런 고상하고 점잖은 용어를 잘 안 쓰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원래 제목은 '우리가 남이가?'였습니다. 포항 말로는 '우리가 다리아가?'입니다. 한 때 이 말이 유행하더니 요즘은 듣기가 어렵네요. 하나님에게 이런 은사를 받아서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은사공동체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한 후에 더 나은 길을 보여주겠다 말하면서 그 유명한 13장이 나옵니다. 13장 이름이 사랑장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은사를 쭉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하면서 사랑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받은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은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축구 못하고, 노래 못하고, 요리 못하고, 남들은 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아무런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돌아보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은사라는 말입니다. 14장까지 읽어보면 결국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사에 대한 것과 느낌이 다르죠? 이런 사랑의 은사를 가장 좋은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사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삼아서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2절을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성도들이 각각 지체로서 존재하지만 그것이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12절을 한 번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뒷부분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다 그게 뭔데요? 뭐가 그렇다는 애깁니까? 그리스도요?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했습니까? 이 구절이 참 묘해요. 지금 문맥이나 내용상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나올 자리가 아니고 교회가 나올 자리가 아닙니까? 교회를 넣어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란 말 대신에 아예 그리스도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란 애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함께 모인 성도가 함께 은사를 나누고 함께 섬기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애깁니다. 형제를 잘라내고 형제를 질시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한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단 말이나?"며 잘라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어쩌다가 성질나게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그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 광야의 고생길을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깰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도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위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위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위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위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개역, 신명기 8:1~20]

자 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부모는 해 주는 데까지 해 줘도 자식들이 고맙게 여기는 경우가 드물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자녀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같이 풍성한 시대도 어려운데 하물며 옛날같이 어려운 시대에야 오죽했겠습니까? 옛날, 어려울 때 자녀들이 해 달라는 걸 부모들이 제대로 해 주지 못할 때 아이들은 흔히 “아마 우리 아빠나 엄마는 친엄마 친아빠가 아닐 거야. 난 어디 먼 나라 임금님의 왕자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임시로 날 맡아 있는 것이고 어느 날 임금님이 날 데리러 올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그러고 말면 그만인데 그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아이를 찾으려고 무진 고생을 한 끝에 이 아이가 대학 다닐 때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파출소에서 만났습니다. 왜 가출을 했느냐고 아무리 물어도 아무 얘길 안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생물시간에 혈액형이 유전된다는 것을 배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A형이고 어머니가 B형이라면 그 밑에 무슨 무슨 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 혈액형 물어보고 엄마 혈액형 물어보고 자기 혈액형 맞추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내 친엄마 아빠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물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확증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집을 나간 거죠.

아이들이 중학생쯤 되어 어느 날 아빠 엄마의 혈액형을 묻거든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학교 때 혈액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집에 와서 혈액형을 맞추어 보는 겁니다. 공식대로 맞지 않으면 집을 나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혈액형이 정확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검사가 좀 부실한 탓도 있지만 틀리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꼬일 확률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다 큰 아이 데리고 다시 검사해 보니까 이상 없더라는 겁니다. 단지 그 아이가 친부모

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그마한 동기 하나로 확인을 했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존경받고, 사랑 받기란... 글썄요, 포기하고 사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잘못이라기보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나이가 들고 인생을 보는 눈이 넓어지면 그때 가서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짓을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똘똘한 만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지 아니면 그래도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고생길을 40년 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왜 걸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고 다녔죠?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열 둘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열 명이 ‘우린 죽었다. 우리 힘으론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린 메뚜기 같더라. 도대체 어디 문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그럴 때 두 사람이 ‘아니다,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주시마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저들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세 보여도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들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치려 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고 원망할 때 그동안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분노가 터집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반항하는 이들을 절대로 이대론 들어갈 순 없다, 그래서 땅을 탐지하려 보냈던 40일을 하루씩 환산해서 광야 길을 40여년을 헤매게 한다, 그리고 끝도 없이 반항했던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헤매고, 그때 스물이 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40년이나 헤매고 다녔죠? 불순종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 고생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헤매고 다닌 이유를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차근차근 찾아보십시오. 답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답이 나오니까?

2절에 보시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벌로 걷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너희가 내 말에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 길을 걷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고 영똥한 일이 많이 터집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게을러서, 때로는 무지해서 일을 저질러 놓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혹시 어려움에 부딪치면 “아! 이것이 내 잘못으로 생긴 것이겠구나!”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노력 부족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원서를 여러 군데 낼 수 있으니까 노력 부족일 수도 있고 또는 욕심을 많이 낸 탓도 있을 수 있죠.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 했는데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욕심을 부린 탓입니다. 그럴 때에 원인을 내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 속에서 찾아야 그 다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누구의 잘못으로 잘 돌리는지 아십니까? 우린 하나님께 잘 돌려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렇지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보다. 말을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대

학에 떨어진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잘했으면 괜찮을 일도 떨어지고 나면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보다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일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안 그러나” 그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순종을 잘할지 못할지 몰라서 그렇게 자꾸 시험을 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는지 못 들을는지 그걸 몰라서 우릴 자꾸 시험하십니까? 아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꼭 시험을 쳐봐야 않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지니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그와 비슷한 수준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속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애가 못된 버릇이 있거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 대 때렸습시다. 그랬더니 이 조그마한 것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엄마 미워” 그러죠? “엄마 미워, 왜 때려?” 이러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러면 안돼요. “사랑하는데 왜 때려요?” 이걸 애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거기에서 부모의 깊은 속을 구구절절이 이야기하면 바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 밍다!” 이게 좋은 답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말아야죠. 거기에 깊은 대화가 오고 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고생길을 40년을 헤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야 하는데 이 답은 물어 놓고 “내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려고 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은 2절을 간단하게 끝내고 난 다음에 다른 이유가 곧 뒤에서 나옵니다. 무슨 이유가 또 나오는지 보십시오.

3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3절에 그 답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너를 낫추시고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 쳐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었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본문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뭐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불순종해서 지금 이 야단을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속에 물어 놓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대거나 야단을 칠 때 무슨 마음으로 야단칩니까? 원수 같듯이? 아니면 분풀이? 만약에 분풀이한다면 그건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매를 들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이렇게 야단 칠 수밖에 없는 이 부모의 심정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 아니죠.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매를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의 이 마음을 알아 달라는 간절한 소원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딱 한마디로 대답하면 “네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십니까. “내 말대로 잘하나 안하나 보려고 그랬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돌아서서 ‘너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고생시켰다’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베푸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많이

배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죠? 4절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돌보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야단을 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면 굉장히 난폭합니다. 그 원인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형제가 많을 때는 형제끼리 싸우면서 크거든요. 형제끼리 싸우면서 큰 아이는 나중에 남하고 싸워도 그렇게 난폭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간끼리 싸우면서, 표현이 좀 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돌로 찍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칼 가지고 그러는(긋는) 아이가 있습니까? 형제간에 싸울 때는 아무리 격렬하게 싸워도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싸우면서도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크는 아이들은 형제가 없어서 싸우지 않고 큽니다. 싸우지 않고 큰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성질이 되게 나서 싸우게 되면 싸우는 방법을 몰라요. 싸우는 방법을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어릴 때 형제들이 많아서 치고 박고 싸우다가도 밥 먹을 때가 되면 같이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밥 먹고 우리 어머니가 커다란 그릇에 한꺼번에 비벼서 나눠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말없이 밥을 퍼먹지만 "여기까지는 내 몫이고 여기까지는 네 것이고..." 자동적으로 구분이 돼요. 금세 싸우다가도 밥상 앞에 앉아서 큰 밥그릇 놓고 서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깨끗이 비워야 하거든요. 그렇게 큰 사람은 나중에 어디 가서 싸워도 사정 봐가면서 싸우지 막무가내로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징계나 형제간의 싸움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하실 때에 '이놈아 죽어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징계를 가하면서 한 편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발 깨달아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죠? 복습 삼아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내가' 입니까? '내게'가 아니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내게'로 위우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더라구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제가 유심히 살폈는데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그걸 '내게'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내가'로 되어있는데 '내게'로 기억하는지 알아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다 나한테 있다'는 얘기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비록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난 부족하지 않다'라는 신앙고백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이들이 이해 못하니까 아이들 찬송 가사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른이 된 뒤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니 오히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칠 때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고, 어른이 되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때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의 신앙과 나이가 좀 들어서 뭔가 깨닫게 될 때 가르치는 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만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징계를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신앙이 자랐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자라났다고 생각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우리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가 비교적 성숙한 기도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선 남을 살피기 전에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는 훈련을 합시다. 늘 그래야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나 자신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내가 게을러서 혹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않았겠냐?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찾아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찾아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는 얘기를 여기서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물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사랑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내게 어려움이 닥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수습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봅시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징계하셨다고요? 무엇을 하려고요? 복을 주실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40년 동안 이 어려운 고난 길을 걷게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최종 대답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왜 고생했는데요?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이었던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은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 닥쳐오는 이 고통이 나의 잘못이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사회의 문제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회개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런 잘못으로 왔든 저런 잘못으로 왔든 어떤 이유에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든 하나님의 최종 대답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라고 기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징계를 하는 건 아니었던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고 뛰어나와도, 경우에 따라서 자식을 집 밖으로 내어쫓아도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그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형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중에 가끔 가다가 아버지에게 쫓겨 집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쫓겨갑니다. 아버지가 왜 쫓아내니까? 잘못했으니까 쫓아내지요. 형제 중에 한 명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머지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러 가요? 아버지가 쫓아냈는데 안 나가고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너희는 너희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그냥 앉아 있느냐?" 빨리 도망 나와야 합니다. 간신히 찾았습니다. 데리고 들어오면 또 뭐라고 그래요? "왜 데리고 왔냐?"고 또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동생이 집에서 쫓겨 나갔으면 형이 찾으러 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쫓아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야! 이 놈아 내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빌어라' 달려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오면 야단은 누가 맞는데요? 데리고 오는 형이 맞지요. 그래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에 데려 와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었건 이웃의 잘못이었건 간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민족의식이 생겨납니다. 옛날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현충사를 성역화해서 이순신 장군을 모든 한국 사람이 받들어 모시게 함으로써 하나의 민족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수학여행이라도 가면 그 앞에 가서 조상을 숭배하듯이 참배를 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군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단군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 보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라도 무리인데 어쩌면 이기적인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란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뭉쳐진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완전한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중대한 잡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 딱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신앙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입니다. 징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구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하고 많이 질문하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공연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생을 하게 한다 그러죠? 가장 어린아이 같은 대답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다."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고 하면 안돼요. 하나님의 깊은 속을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보기에는 답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면 설교란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설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념일을 제정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는 것은 8장 1절을 봅시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잘 보세요. 무엇을 얻어요?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게 하나는 땅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됩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

속하셨죠. 또 하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반복되다가 여기 와서 그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는 일을 몇 년 동안 해 오신 겁니까? 400년이 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때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줄 마음이 없어서 미적거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대를 이어 오면서 거듭 확인하십니다. 이 땅에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것과 땅을 주리라는 약속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무슨 혈연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구죠? 단군이예요? 곰이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땅은 어디 갔어요? 등기해 놓은 땅이 좀 있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마고 약속한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마고 약속하셨던 약속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움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시면서도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산다는 게 고생길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자로 풀이하면 재미있었습니다. 날 생(生) 자 밑에 작대기를 떼어 내면 무슨 글자가 남죠? 소 우(牛) 자입니다. 인생은 소가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위태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풀이했답니다. 그럴싸합니다. 설마 한자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싶지만 그럴듯하다 싶어요. 여러분, 소가 외나무다리를 건너간다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인생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내게 생긴 이 병은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도 낫는데 내게 있는 병은 왜 이렇게 질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하지 않으면 '네가 잘 믿나 안 믿나 보려고 한 거다' 그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빨리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하나님을 좀 알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깨닫고 나면 내게 모든 다툼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고통스러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 힘든 광야 길을 40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받는 것 아니냐? 이 놈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벌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을 너희가 깨닫기를 바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이 수련(修鍊)의 계절에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 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개역, 누가복음 10:38-42]

이 무더운 여름이 가면 곧 선선한 가을이 오겠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등화가친 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등화가친의 계절이란 책읽기 좋은 계절이란 뜻입니다. 가을이 되거든 책을 많이 보십시오. 그런데 책읽기 좋은 계절에는 또 뭐하기 좋은 줄 아세요? 놀기도 좋습니다. 책읽기 가장 좋은 계절엔 놀기도 제일 좋습니다. 가을을 책읽기 좋은 계절로 보느냐 또는 놀기 좋은 계절 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가 놀기 좋습니까? 젊었을 때가 좋습니까? 당연히 젊을 때가 놀기 좋죠.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까? 잘 놀아야 합니까? 같은 계절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결과에 따른 책임도 물론 본인 몫입니다. 이 더운 여름은 어떤 계절입니까? 이 여름을 가리켜서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잘 모르시네요. 다행입니다. 휴가철 아닙니까? 학교도 방학이고, 직장도 쉬고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좋은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휴가철이 아니고 수련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보 광고만 해도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여름을 휴가철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수련의 계절로 보낼지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계절을 보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가 줄줄이 이어져 있으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 전 교인 수련회는 원래 남해로 가기로 하고 답사까지 다녀왔으면서도 영덕 오천 숲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장소 정하는 문제만 해도 몇 달을 고민하고 그 먼 곳을 둘러보고도 갈등하다가 결국은 다른 곳으로 정했던 말입니다. 장소 정하는 것, 날짜 정하는 것, 프로그램 짜는 것, 준비물 챙기는 것... 등등 얼마나 일이 많은 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7, 80명이니까 간단한 것 같습니까?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일 맡은 분들은 머리를 싸매어 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짜증이 날 정도로 일을 많이 맡아서 수고하기도 합니다. 수련회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수고로 준비되는 일입니다.

우리 초등부가 교회에서 수련회 하기로 하고 사위장을 임시로라도 만들어 볼까하고 구상했다가 막판에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화장실은 남학생 사위장으로 쓰고 부엌은 여학생 사위장으로 쓰기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요즘 아이들이 잘 견딜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 전교인 수련 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은 간단해서 길게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언니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집에 남자 오빠가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사로는 제쳐 둡시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예수님 한 분 모시려면 따라오는 일행이 제자만 해도 열둘이지 않습니까? 많습디다. 모처럼 귀한 손님들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손은 모 자라고 답답한데 동생이 안 보입니다. 찾아보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을 예수님께서 보 내 주셔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도록 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냥 두시는 거죠.

대체로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의 잘못의 원인을 찾는 쪽으로 설명을 잘 합니다만 저는 마르다를 비

난하러거나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비난하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늦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구보다 먼저 동구 밖까지 뛰어 나간 것이나 이 본문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움직임이 적고 언니가 부르면 겨우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정도로 좀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접하는 일을 마르다가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하는 일입니까? 잘 못하는 일입니까? 잘 하는 일입니다.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와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분주한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잘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할 일이 항상 많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일이 눈에 보여요. 일이 보이니까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부지런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일이 안 보여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원인은 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우리 주변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그런 일들이 잘 보였고 마리아에게는 그런 일들이 잘 안 보였습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었던 탓이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다보니 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이 너무 많았던지 마음이 대단히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 짜증이 나게 되고, 짜증이 나면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일을 조금 줄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웬지 짜증이 잦다는 생각이 들면 수입이 좀 줄더라도 일을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명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짜증을 잘 내시는 분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격 문제이지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은 안 하고 괜히 짜증만 잘 내는 분들은 마리아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닙니다. 성격을 고치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고 짜증도 나고 그러면 '아, 내가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하고 일을 조금 줄여야 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조금씩이라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어느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는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누가 봐도 칭찬하는 며느리인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구박을 했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도저히 며느리 같지도 않았고 어른을 섬긴다는 생각조차 없는데 며느리가 어찌다가 시택에 오면 시아버지가 애먹이는 일이 없어요. 이웃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왜 그렇게 잘 하는 맏며느리는 말끝마다 야단이고, 호통을 치면서 저 며느리 같지도 않고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둘째는 가만히 놔두느냐?"고 했더니 그 시아버지 말이 '인간이 인간 같아야 값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나 교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차라리 야단 많이 맞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혀서 심정이 상하기도 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신자나 어찌다 한번씩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목사님께 야단 맞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고 지각도 안 하던 분이 한 번 빠지면 야단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야단을 맞는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 상한 일이 자주 생기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을 조금 줄이면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내게 잔소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왔나?' 소리도 안 하더라?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구제불능이라고 제껴 두었든지 아니면 성질이 고약해서 건드리면 손해니까 모두가 피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집안에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 마리아가 있지만 집안 살림을 꾸러가고 손님을 대접하고 가정을 돌본 것은 마르다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이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지만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구석구석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효자 제일 교회가 은혜스럽고 좋은 교회로 잘 커간다더라. 정말 일도 잘한다 하더라’고 소문이 나면 누가 칭찬을 듣습니까? 일 열심히 한 사람은 사실 칭찬 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히 드러난다’ 제일 좋은 답이죠. 그러나 칭찬 많이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목사님이지요. 장로님들도 어디 나가면 좋은 얘기 많이 듣겠지요. 권사님들도 어디 가서 “제가 효자 제일 교회 권사입니다.” 이러면 좀 힘이 나잖아요. 종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안정되고 아름답게 커나가는 데는 뒤에서 꾸중들어 가며, 이런 저런 싫은 소리 들어가며 열심히 교회를 섬긴 분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줄런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자라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밑거름도 가만히 훑어보면 이름도 없이 교회를 섬겼던 많은 신앙 선배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대한 인물 중에는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친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다가 꾸중 비슷한 말을 들었지만 이 가정을 꾸러나가고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마르다였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그 열심 위에 하나 더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저는 이해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집안이 이렇게 바쁜데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만이는 만이답고, 둘째는 둘째다운 법입니다. 너그럽고 책임감 있고 앞장 서서 일하는 것은 대체로 만이고 둘째는 흔히 하는 말로 ‘염치없는 것’을 가끔 좀 하지요. 아마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리아는 암체같은 짓을 하기도 하고, 자기 좋은 것만 골라 하며, 좀 소극적이었던 듯 합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기울이고 있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는데 옛날에 제가 이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돌아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별 후회는 없습니다. 중고대학교를 거치면서 전국 단위 수련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7박 8일이나 6박 7일이 기본이지요. 그런 수련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쫓아 다녔습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일찍 와서 수련회 뒷바라지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일찍 와서 서무부 일을 좀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아도 절대 일찍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드니까 어느 부서건 간에 할 일이 엄청난 겁니다. 오죽하면 공보부의 별명이 골병부였겠습니까?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수양회만 열리면 소위 ‘가리방’이라고 하던 끝판을 둘러매고 참석해서 밤낮으로 끝판과 씨름하면서 수양회 마침과 동시에 책을 한권씩 나눠주던 전문 공보부원들이 있었으니까요. 뒤에서 돌봐줘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애써 모른 채 하면서 수련회 개최 시간에 맞춰 가서는 집회 참석하는 일과 강의를 듣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까지 제가 맡았던 감투는 유일한 게 대학부 조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조 명단에 보면 요즈음 한창 뜨고 있는 송길원 목사님 이름도 들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될 줄은 전혀 몰랐죠. 한사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틀어박혀서 공부만 했습니다. 집회 시간을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종말론 강의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강의하다가 “화장실도 가고 좀 설까요?” 했는데 앞에 앉았던 몇몇 친구들이 합세해서 “계속 합시다!” 하고 고향을 지르는 바람에 4시간 연속으로 강의를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집회에 악착같이 참석하고,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죄송하지만 다른 일은 전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에 붙들렸습니다. 빛을 갠 심정으로 한 해 동안 봉사를 한 셈이지요. 대구에서 전국 SFC수련회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중, 고, 대 세 집회를 준비하고 부대회장을 맡았는데 하루는 대학 1학년들이 수양회 임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불러모았죠.

“여러분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수양회 진행이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일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몇 해 계속 지나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나는 빛이 많아서 전혀 집회에 들어가지 못해도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할 시

간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도 잘 해 주도록 부탁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강의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고 후배들에게 여러 번 인사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부엌일로 몹시 분주했습니다. 모처럼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일은 많고, 손은 달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얹체같은 제 동생더러 언니 좀 도우라고 그러세요!” 평소에도 동생이 말을 잘 안 들었는지 아니면 오늘만 특별히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눈짓을 몇 번 했는데 본 척도 안 해서 염치불구하고 예수님께 청을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부탁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보고 부탁할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아무 부탁이나 함부로 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먹는 것과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먹는 것보다 말씀 증거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사탄이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이 시장하신 주님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 4:4). 굶주림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던 때입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여인이 마을로 뛰어간 사이에 돌아온 제자들이 식사를 권했을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요 4:32, 34)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고 서로 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시장하신 가운데서도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시장함이 문제가 아니었고 음식을 먹는 일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훨씬 더 급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말씀에 귀기울이는 동생을 좀 내보내서 자기 일을 도와주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마르다는 어리석지요.

그런 마르다의 부탁에 예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할 일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한 가지 뿐,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열심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식사 대접하는 일도 중요하고, 예배 중에 애기를 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귀기울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골똥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전도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이런 전화는 고맙기보다는 어떻게 정중하게 사양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사가 “누가 밥 안 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부지런히 그런 전화를 하십시오. 밥먹는 것보다는 성경을 끝어안고 고민하기를 좋아하는 전도사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전화를 자주 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미워할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니 뭐니 해도 말씀을 듣는 것과 가르치는 일입니다. 유능한 성가대 대장이 다음 해 대원으로 활동할 사람들을 일찌감치 개인 면담을 통해서 약속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교육부서에서 교사를 맡기려고 찾아보니까 이미 성가대에서 손을 다 써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찬양대 지휘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아무리 찬양대에 소중한 사람이라도 교사로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무조건 보냈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무리 요긴한 사람이라도 보낸 것입니다.

다른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한 죄목이 무엇입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프랑스 말로 받았다는 것이 그녀가 화형에 처해지는 이유입니다. 몇 해 전에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고 예배도 라틴어로만 드렸습니다. 라틴어만이 성스러운 언어였지 다른 언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인데 “하나님께서 프랑스 말로 네게 계시를 주었던 말이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절에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의 용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성도들이 읽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에는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기적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문명화된 오늘날에도 한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수년씩 혹은 십수년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보급되어 있었다니! 우리 나라는 그런 점에서도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100년이나 먼저 들어온 천주교 전래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교리서인 천주실의, 성화, 성물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나마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오늘 우리 손에 들려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을 거쳤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냥 단돈 몇 만원에 살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읽기 어려우면 들읍시다. 기회가 되는대로,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배우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이웃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참석이 이런 훈련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수련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학교, 학원보내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서 참석시키시기 바랍니다. 별 것 있겠나 싶어 보여도 이런 데서 은혜받은 사람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즈음이야 풍성하니까 많이 먹기보다는 맛있는 것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70년 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기숙사에서 여러 명이 푼돈을 모아서 시장에 포도를 사먹으려고 자주 갔습니다. 대여섯 명이 둘러앉으면 동작이 빠르지 않으면 돌아오는 게 없어요. 다른 친구들이 날 보고 다음부터는 끼워주지 말자고 하더군요. 친구들 앞에는 먹고 남은 흔적이 있는데 제 앞에는 전혀 없어요. 줄기만 떨어져 있고 씨고, 껍데기고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았어요. 많이 먹으려면 언제 씨 가려내고 껍질 뺀고 해요? 그냥 좌악 훑어서 그대로 씹고 그냥 삼키는 거지요.

씹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삼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리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소화도 어렵거니와 무슨 맛으로 먹나요? 제대로 맛을 즐기려면 포도 알맹이의 속살을 씹고 껍데기도 꼭 짜서 단물을 빨아야지요. 씨앗도 씹어서 삼키면 항암제가 들어 있다고 하더군요. 포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마구 읽는 것은 포도를 씹지도 않고 마구 삼키는 것이나 비슷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맛 저 맛을 느끼면서 읽어야 제 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혼자서 쉽지 않으니 수련회를 통하든지 성경공부 시간에 참석하든지 하시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다독과 정독을 병행하시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포도 얘기만 하면 시어서 고개를 흔들는 분도 계시더군요. 불행한 겁니다. 과일의 왕이라는 포도를 그렇게 사귀지 못해서야! 혹시 성경마저 그렇게 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전해준 분들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식사 준비로 바쁜 마르다에게 칭찬은커녕 꾸중 비슷한 말을 하셨으니 이날 예수님은 저녁을 얻어자셨을까요? 굶었을까요? 마르다가 빠져서 저녁을 포기해버렸을까요? 예수님도 굶으면 배고픈 분이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면서도 기꺼이 봉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닮았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아니면 혹시, 등장하지도 않는 이웃집 아줌마를 닮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를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일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이 제대로 돌아가기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뒤에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면서도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 주방 봉사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경 학교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수고스럽고도 할 일이 많은지 모르니

다.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오히려 수련의 계절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교사들의 수고에 관심을 가지고 도우며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르다를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에 귀기울이는 마르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무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일을 할 수 있음도 분명히 은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련의 계절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일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임을 잊지 맙시다.

어쩌면 옆집 아줌마 같은 성도도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옆집에 오늘 무슨 손님 왔나? 그래서 마르다의 집에 와서 부엌만 들여다 보고 잔소리만 몇 마디 늘어놓고 가는 거지요. 교회는 온통 성경학교, 수련회로 바쁘는데 “무슨 일 났나?” 이런 분이 설마 없으시겠지요?

음식 대접하는 일은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귀기울이는 일은 더욱 잘 하는 일입니다. 휴가철에 휴가 가서 푹 쉬는 일도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에 빠져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편안함을 누린다면 더 잘 하는 일입니다. 올 여름에는 말씀에 푹 빠져봅시다. 이 더운 여름철이 휴가철이 될 것인지 수련의 계절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밭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개역, 신명기 11:8-25]

인 류가 추구해온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거의 모든 역사가 이런 정치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사선(死線)을 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배나 비행기를 몰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굶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자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중,고등학생 중에는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외지로 유학을 가면 혼자서 자취생활을 한번 해보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나가보면 한, 두달 사이에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유를 추구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잘못 추구하기도 하지요. 결혼한 분들 중에 부부가 서로에게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소위, 진정으로 자유로운 부부들은 두 사람이 따로 돈을 벌되 남편이 버는 것은 남편이 쓰고, 부인이 버는 것은 부인이 쓰고, 일도 갈라놓고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유롭게 남자 친구들을 만납니다. 멋있어 보입니까? 이것은 법적으로는 부부일런지 몰라도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에게서 자유하길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부부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모든 경우에 다 좋은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유 중에 제일 단계가 좀 낮은 것이 용돈으로부터의 자유 아닐까요? 용돈을 맘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옛날 직장인들은 월급 날만 되면 월급명세서를 한 장 더 얻어 갑니다. 요즘은 전부 통장으로 넣는 바람에 참 어려워졌지만, 옛날에는 꼭 봉급명세서를 한 장 더 얻어가서 옆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야, 부르는 대로 좀 받아써라" 해서 하나 더 씩니다. 어떻게든지 용돈을 비밀스러운 곳에 감추려고 노력하지요. 어떤 분은 감추다 감추다 마지막에 자전거 헤드라이트 뚜껑 열면 움푹한데 있지요? 세상에, 거기까지 감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거기 감춰뒀는데도 부인한테 들켰으니 소문이 나죠. 한 사람은 기막히게 감추고 한 사람은 기막히게 찾아내고...

용돈을 마음대로 쓸려고 피눈물나는 노력을 합니다만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용돈관리할 하기 위해서 은행에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통장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혼자 잘 썼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은행에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갔는데 그게 무슨 통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털어 한 가정에 한 통장만 만들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아마 무슨 세금 우대 저축인가 그런 걸로 기억되는데, 부인이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책에는 통장이 하나 있는데요.” 하더라고요. “아뇨 없는데...” “아뇨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데...” “집에 가서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된 거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딱 잡아땀거든요. 은행에 또 갔습니다. “없다 하는데 왜 있다고 하느냐?”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못 만들어 드립니다” 결국 숨겨뒀던 통장이 들통났고 거기에는 입, 출입 내역이 다 적혀져 있으니 그때부터 취조를 당하는 거죠.

자유를 찾아서 노력하지만 이런 자유는 노력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우리는 비교적 많은 자유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도 너무 많아지면 주체할 수 없어서 현대는 오히려 이 자유를 반납하는 시대라는 말이 나오지도 벌써 오래 전 일입니다.

자유가 참 좋아 보이지만 설계된 기계가 설계된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 자유로운 기계라고 합니까? 고장이라고 합니다. 여항 속에 있던 금봉어가 자유를 찾아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건 뭐죠? 죽음이죠. 철로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진 기차가 철로 위로만 달리는 것이 싫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철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한번 가보겠다고 나서면요? 이걸 탈선이라 합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아기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꼭 안겨 있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겁니다.

가정을 떠난 주부의 자유로움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가출이라 그래요? 가출보다 방탕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어떤 여대생이 친구 오빠를 보고 “너네 오빠 정말 자유롭게 생겼어...” 얼핏 듣기에 괜찮은 듯 싶더군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자리에 있어야 될 얼굴의 각 부분들이 제멋대로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안 붙어있고 엉뚱한 곳에 붙어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못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빨이 아주 자유롭군요? 이빨이 아주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고, 옆으로 뒤틀려 있으면? 자유라는 말도 잘 사용되어야지 아무 때나 자유라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8,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첫째, 강성할 것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했으니까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 제일 끝에 보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강성할 것이고, 땅을 얻을 것이고, 날이 장구할 것, 즉 오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출세하려면 뭘 잘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술을 좀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손을 잘 비벼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인간관계나 줄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선배가 있으면 자기 후배들을 이끌어 출세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출세하는 방법이 있으니 좋은 선배가 있고 좋은 협력자가 있으면 잘 사귀십시오. 전적으로 이런 방식에 매달리는 것은 나쁘지만 가까운 분들의 도움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지식한 경우를 넘어서 답답한 경우가 많아서 해보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끼리는 푹푹 뭉쳐서 잘 지내는데 직장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믿는 성도가 이기적이라거나, 자기만 안다는 말을 들어서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신앙문제에 관한한 절대 타협은 없다. 끊을 것은 분명하게 끊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적대적인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을 얻는 비결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것입니다. 군에 가서 군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군에서 이쪽 산에서 자갈을 짚어지고 저쪽 산까지 옮기는 일을 시켜 놓으면 절반 정도는 흘리고 갑니다. 자루를 얼마나 온전하게 운반해 왔느냐는 묻지 않고 그냥 몇 번 왔다 갔느냐만 체크합니다. 그 자루를 짚어지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건너가면서 자갈을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군대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욕밖에 나올 게 없는 군대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내게 주어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귀한 복을 주셨는가를 아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면 그 험한 군대 생활 가운데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된 시집살이 못지 않을 정도로 험한 생활이 군대 출병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사람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승장구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려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변화에 따라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남보다 승진에서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정말 짜릿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그 기쁨!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운 고비를 넘어간 결과로써 받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하며 노력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누가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하고 죽을래 말래?” 이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직장생활이나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들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귀한 복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고, 땅을 얻을 것이고,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오래 살수록 괴롭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9절에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14절 끝에도 보시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5 절에는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납니다.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꿈에도 잊지 못할 낙원입니까? 고통스러운 땅입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생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면 생각나는 것이 애굽 땅에서 배불리 먹고 떡을 굶던 가마솥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푸른 들판! 풍성한 소출이 나는 그 들판을 생각하며 “아! 여기가 애굽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두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애굽 땅은, 10절에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으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밭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하는데 그 때 들어온 강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듬해 나일강이 다시 범람하기 전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에 가뭇야 하고, 관개시설을 해서 물을 퍼 날라야 합니다. 이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밭로 물대기라는 표현은 눈에 물을 대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차라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굽은 열심히 수차를 밟아서 물을 대던 곳인데 가나안 땅은 어떻다고 합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다 흡수해버리므로 관개시설을 이용하거나 물을 날라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파종할 때에 적당한 비가 옵니다. 굳이 물을 가두어 두거나 밭에 물댈 필요없이 그냥 파종하면 됩니다. 나중에 곡식이 한창 잘 영글어 갈 때는 또 적당하게 비가 옵니다. 그럼 저절로 됩니다. 애굽에서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동이 필요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14절에 '이른 비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하면 가을비고,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우리와 기후가 반대라서 이른 비, 즉 가을비가 올 때에 파종하고 봄비가 온 후에 추수를 합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처럼 그렇게 고생하며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생하지 않고도 젖과 꿀이 흐를 만큼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2가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합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생 같은 답하지 마세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문설주에...' 하는 게 초등학교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전단계로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문에 새기고 옷에 주렁주렁 많이 달아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손목에 아무리 글을 많이 쓰고 새기고 차고 다닌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많이 외운다 해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배우고 들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해야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당부입니다.

19절을 보시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마다 밀어 넣기라도 하십시오.

어떤 학부모는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과목을 분담해서, 각자 학원에서 배워서 집에서 자기 아이를 가르친답니다. 차라리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현재의 가나안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고 농산물이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령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특별하게 찾아놓은 땅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 중에서도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는 알기 어렵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 땅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곳곳에서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작정하셨던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 그 곳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땅이 되고, 황폐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 만큼이나 황폐하여지리라는 경고의 말씀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가나안 땅이 과거에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요건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나안땅이 정말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본문에서 굳이 찾는다면 12절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입니다. 이 권고하신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발로 밟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밟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께서 열심히 다니시면서 필요한 대로 다 채워 주시는 땅이라는 얘기죠.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가둬놓고 농사짓는 땅이 아닙니다. 물이 전혀 저장이 안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새벽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농사지를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많은 곡식을 저장해놓고 ‘까짓 것 내년, 후 내년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다’고 큰소리치면서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기도문 중에 우리 성미에 맞지 않아서 고쳤으면 하는 데가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 때문에 가슴이 아픈 분이 더러 계십니다. 아예 강심장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부분입니다. ‘한 일년이나’ 하다 못해 ‘한달 먹을 양식이라도 주십사’고 기도하면 주기도문을 한 달에 한번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 났으니까 주기도문은 하루에 한번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년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쥐놓고 일년동안 푹 쉬다가 내년 이맘때쯤 가서 또 한번 기도해서 일년 양식 달라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 번 실컷 보고 몇 달씩 소식없이 지낼 수 있나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최신 무기를 굉장히 많이 노획하였습니다. 말이 끄는 전차인데 요즘 말로 하면 최신형 무기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일부는 자기가 활용하고 일부는 외국에 수출을 하던지 해야지요. 여호수아는 노획한 신무기를 전부 폐기처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언제 너희 힘으로 싸워 이겼더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깁니다.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게 있으면 행복합니까? 마이너스 죽죽 그어진 것보다야 잔고가 플러스로 많이 남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다 없애라고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자, 나에게는 재산도 이만큼 있고, 현찰도 이만큼 있으니, 이만하면 IMF 할애비가 와도 어려움 없다.”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면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풍성한 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많은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은 젓과 꿀이 흐르는 복을 여전히 누릴 것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젓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주변에 과거부터 강성한 고대 국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쪽으로 가면 수메르가 있었죠? 바벨론, 앗시리아, 페르시아, 메디아... 이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칩니다. 맞은 편에 헬라,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가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들 중에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힘이 강해지면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도중에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냥 두고 지나가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한가운데 어린아이가 고기 덩어리를 들고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막아내지 못하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도저히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니, 오히려 독약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22절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기 '부종하면'이란 말씀이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종, 따라간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아주 강성한 나라들이 많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그 모든 나라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짱 부릴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주셔야만 풍성한 소출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를 조금만 안 내려 주시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잡아 놓은 곳이 사방에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한가운데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겠느냐? 아니면 너희 힘으로 살아 보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한시라도 손을 놔버리거나 눈을 떼버리면 그 날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자기들의 땅이 아닙니다. 결국 젓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메마른 사막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하게,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에게 친근히 할 수밖에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은 젓과 꿀은커녕 완전히 사막처럼 변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땅! 그것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큰 댐에 잔뜩 가둬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뿜아 씩니다.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잠시 안 계셔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나 없이도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살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귀순한 용사 중에 의외로 남한 땅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어진 자유를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한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서로 자유롭게 위해서 계약을 맺고 자기영역을 딱 갈라놓고 사는 것이 참 자유로와 보이죠? 부부가 완전하게 서로에게 예측된 상태로 사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집 사람에게 가

끔 제발 용돈 좀 갖고 다니라고 부탁을 합니다. 방학을 하니까 요즘 용돈도 잘 안 줘요. 조금 넣어 놓고도 야금야금 자기가 다 빼갑니다. 제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돈을 잘 안 쓰거든요. 조금 쥐 놔놓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빼갑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요. 나도 요건 내 꺼다 하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잖아. 일단 줬으면 요건 가만 놔두고, 당신 쓸 돈은 제발 당신이 가지고 다녀요.”라고 사정 사정을 해도 잘 안돼요. 그럼 넣어줬다가 빼가기는 왜 빼가나니까 여기 넣어 놓는 게 제일 안전하대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맘대로 쓰는 것도 괜찮지만 믿을만한 데 맡겨놓고 빼다 쓰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완전히 예측된 상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얼마나 자유로우며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에만 마음껏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예측된 상태로 두셨나 보세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강성한 적들이 우글우글하는 한가운데 넣어 놓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뒤집어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를 집어삼킬 이리떼들이 주변에 잔뜩 널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갈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공갈이라도 쳐서 자신에게만 마음을 두기 원하는 법입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이것은 공갈입니다. 마음이 그 분을 향하여 있을 때는 공갈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랑고백보다 더 가슴 찡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하느냐 아니면 한없이 행복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면 위험천만한 그 곳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오래오래 젓과 꿀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와 이슬, 주변의 이리떼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곳이 진정으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진정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젓과 꿀이 흐르는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요 8:32).

평신도 선교사 아모스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때에 베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녕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갓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뿔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 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녕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개역, 아모스 7:10~17]

어 제 유치부 부장님께서 명언을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유치부 부장 하다가 터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부 교사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유치하게 놀아야 한다.' 아주 명언입니다.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점잖게 품 잡아서 교육이 안됩니다.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제대로 된 교사는 유치하게 놀아야 한다고 하더니 저렇게 찬양하는 것이 유치하게 보입니까? 선생님들의 찬양이나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 속에 참으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큰 기쁨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유치하게 잘 놀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누가 평신도인가?

설교 제목에 제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를 하나 넣었습니다. 평신도란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신도라는 용어가 우리 개신교에서 나오기보다는 로마 카톨릭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제와 구별되는 의미로 평신도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주 쓸 단어는 아닌데 개신교 내에서도 평신도라는 말이 더러 쓰입니다. 뭘 가리키는 말이지요? 장로님은 평신도입니까? 아닙니까? 이 대답이 확실해야 평신도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장로님도 평신도에 들어가신답니다. 목사님은 평신도에 들어갑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사역자로 따로 분류하고 그 외에 장로님들을 위시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평신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 해도 우리는, 우리 모두는, 목사님 장로님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라는 자세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편의상 오늘은 쓰겠습니다.

남쪽 나라 선지자 아모스가 북쪽에서?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은 나중에 다루어 보기로 하구요, 오늘은 그의 사역하는 모습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모스의 특징을 성경공부 하듯이 좀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 소선지서가 12권 있고, 대선지서가 5권 있습니다. 대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했을까요? 뭘 소선지서라고 하고 뭘 대선지서라고 했을까요? 책의 부피를 가지고 대, 소를 분류한 겁니다. 대선지서는 두껍구요, 소선지서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는 12권이지만 대선지서 5권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이 선지서들 중에서 아모스는 제일 빠른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았을 때 살았던 곳은 남쪽 유대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남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아서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경우가 되죠. 남북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해 있던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쪽에서 부름을 받아서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는데 예언의 주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

하게 되리라는 예언인데 이걸 잘못하면 역적 아니면 스파이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일입니다. 쉬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지적하는 아모스의 예언 내용이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거의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런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반해서 아모스는 언뜻 보기에는 사회 윤리에 해당하는 범죄를 많이 지적합니다.

다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정의를 부르짖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모스가 그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발한 이유는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 이후 나라가 쪼개질 때에 열 지파를 이끌고 가서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대 내려가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아모스는 바로 이 두 번째 여로보암 시대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더 부패한다?

이 시대는 옛날 다윗이 차지했던 그 땅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영토를 확장할 만큼 아주 막강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많이 범죄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모스 선지자가 종교적인 잘못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윤리적인 교훈을 더 많이 피력한 것이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잘 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범죄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잘 섬기든지 아니면 여유가 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도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 많이 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 법을 전혀 어기지 않고 살기란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 인준이 부결이 되는 걸 보면서 '저 정도 재산을 가지고 살면서 저 정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에서 벗어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당장 연말에 세금 계산할 때 보세요. 세금 계산을 간단하게 해놓으면 좋을텐데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그 복잡한 것을 요령껏 잘 피해 나가면서 세금을 많이 줄입니다. 정상적으로 세금 잘 내고 있는데 요령껏, 적당히 부정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람 보면 속이 상할 때도 많죠. 재산 없는 사람은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좀 있으면 조금만 거짓말을 하거나 조금만 속이면 돈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될 해나가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진 게 많고 능력이 좀 더 있고 살만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월급이 조금밖에 안될 때 십일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많아지면 십일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월급이 많아져서 십일조하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은 좋은 방법을 쓰실 것 같아요. '너 정말 십일조 잘 하고 싶으냐?' 어떻게 하실까요? '아주 마음 편하게 하도록 해줄게. 월급이 적으면 쉽다고?' 어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잘 살던 시대에 이렇게 불의한 일과 가난한 자를 착취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책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역으로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형편이 나아지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열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니깐 좀 없어 보이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께 얼마나 더 기쁨으로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옆의 사람 보지마세요. 부디, 소원하건데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잘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 배경이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장 10절에 **‘때에 벤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했습니다. 벤엘의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벤엘이라는 곳은 여로보암 1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에 유월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전부 성전이 있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을 세웠던 곳입니다. ‘너희들, 남쪽 유다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우상을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벤엘입니다. 그러니 벤엘의 선지자는 애당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벤엘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아마샤가 왕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이 때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왕이 칼에 죽겠다는 말과 **‘이스라엘은 정녕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갓다 하나이다’** 이런 말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만약에 아모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역적감이지요. 그 정도 말을 했다면 당장 잡혀 죽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엄청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9절에 있는 말을 아마샤가 좀 부풀려가지고 했던 말입니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을 9절에서 했습니다. 그 말을 앞뒤 다 잘라내고 그저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겠고 나라가 망하리라’**는 말만을 왕에게 기별한 거죠. 그 말에 대해서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보고한 후에 아마샤가 용기를 내서 직접 아모스에게 또 말합니다.

남도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그 말이 좀... 뭐라 그럴까요? 유치하다고 할까요? 보세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샤는 명색이 제사장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이지요. 그러나 아마샤는, 비록 아모스에게 하는 말이지만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자기가 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가를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무슨 사명감이 있거나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제사장 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가면 목사님이 제일 높은 줄 알고 ‘야, 그래도 목사님도 높지만 장로님도 참 높더라’ 그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들 생각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네들 생각이예요. 아마샤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나’라는 경멸적인 말투를 보면 아마샤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자기의 본성,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에게 벤엘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13절 중간쯤 보니까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왕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예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 말도 아마샤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우리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이죠. 아마샤는 누구 중심이겠어요? 왕 중심입니다. 왕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아모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선지자라면 아마샤는 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별 볼일 없는 인간, 별 볼일 없는 집안

그 말에 대한 아모스의 답변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영어 성경을 대조해보시면 어떤 성경에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라고 현재형으로 되어있고, 어떤 성경에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동사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동사가 없을 때는 본 동사의 시제를 따르는데 여기서도 문맥을 따라서 보면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나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또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요 라는 말은 선지자의 집안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내가 삼대째 목사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본인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위에 계시는 할아버지 목사님, 증조할아버지 목사님까지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모스가 난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도 별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모임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한 40명 모였는데 3분의 2가 목사님, 장로님 집 아들,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로 집사면 좀 높은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진 도저히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구요. 왜 목사 장로 아들딸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성가단이었기에 좀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로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아모스가 '난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우리 집안도 그런 거 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전혀 선지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주변 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선지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아모스가 훌륭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철저한 사명 의식 혹은 소명 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선지자가 되려고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그런 분위기가 되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 때문에, 간첩으로 몰릴 위협과 반역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쓸 위협과 아마샤의 위협에도, 아모스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믿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셔야 할 겁니다.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그가 자신을, 15절에 나는 목자요 뿔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목자겸 농사꾼인 셈이죠. '난 원래 말씀을 전하거나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목자요 농사꾼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는 강한 소명 의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기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예를 든다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만하면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사십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 모든 걸 포기하고 내 능력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양치던 목동 모세를 불렀습니다. 목동의 동차는 어리다는 뜻인데, 모세에게 적용하기는 좀 말이 안 맞네요.

아주 늙은 목동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세가 아니라 아무 것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낮아질대로 낮아진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농사꾼 아모스를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내 능력으로 뭘 해야겠다고 말하는 그런 아모스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난 선지자가 아니요 난 단지 목자요 농사꾼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훨씬 이전의 사무엘 시대에 선지자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선지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아모스 시대에도 선지학교가 있고 전문적인 선지자 훈련을 받은 선지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모스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아모스는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평신도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말을 잘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이지요. 그 준비가 뭘까? 준비라는 것이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학위를 따고 좋은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만이 준비냐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아이들이 학교 좋다고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 학급이 어떤 학급인지 아느냐? 이 좋은 학교에서 1등하는 학급이다.” “그래? 너희반은 참 좋은 학급이네!” “우리 학급은 시험만 치면 항상 전교에서 1등하는 학급입니다.” “야, 참 좋겠네. 그럼 넌 고등학교 공짜로 들어가냐?” 좋은 학교를 다닌다는 것하고 자기 학급이 성적이 아주 좋다는 것하고 내가 고등학교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좋은 학교 자랑하지 말고, 좋은 학급 자랑하지 말고, 자기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다고? 좋으면 뭐 하는데?

아모스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학생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될 것이냐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좋다. 거기서 끝나면 안돼요. 혹시 누가 압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어 또 물을지? “그래, 그 좋은 목사님한테 너 뭐 배웠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내 스스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말씀들을 잘 배워서 스스로 대답도 하고,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으면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 되며 좋은 목사님? 그게 무슨 자랑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정규 과정을 다 밟아 학위를 따고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만이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자그마치 몇 년을 다녔습니까? 새벽기도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배웠을 것 같습니까? 읽기는 또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러고도 누군가가 물으면 아무 대답도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라는 것이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누구 부르셨다고요?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농사꾼을 부르셨다는 것은 아모스가 평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꾼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시켜놨더니 아모스가 정말 잘했습니다. 나중에 아모스서를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아모스는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전했던 그 말씀들을 전부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자신의 메시지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최초의 문서선지자라고 합니다.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란 뜻입니다. 단순한 농사꾼을 불러 일을 맡겼는데 이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는 것은 평소에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말입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을망정 준비된 사람이었던 뜻입니다.

비록 전문적인 선지자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오로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어떻게 본다면 엉터리 선지자인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게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 기울이던 선지자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일을 맡기신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전문적인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귀 기울일 줄 아는 아모스였다는 것이죠.

신기루 장사 무디? 아니다!

제가 어릴 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무디는 원래 신기루 장사였다고 합니다. 신기루 장사가 뭐하는 사람이죠? 요즘도 이런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신발 깎는 사람입니다. 무디는 신기루 장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비록 제가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금 커서 무디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들은 것이 틀렸어요. 무디를 가리켜서 신기루 장사였다고 한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 직업이 신기루 장사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이 신기루 장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써줬습니다. 아마 가르칠 능력이 별로 없을 듯해서 안 시켜줬겠지요. 무디가 정식으로 주일학교 교사가 못된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하지 뭐' 하고 자기가 혼자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쳤는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무디가 신기루 장사였음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무디는 신기루 장사였다고 말하는 건 핵심이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기루 장사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위대한 부흥사로 사용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더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위대한 무디의 천한 직업을 부각시킴으로써 무디를 더 위대하게 말하려고 했겠지만 그래도 잘못 본 것입니다. 아모스가 자기 말로 난 목자요 농부란 말을 했다고 해서 단순한 농사꾼 목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신기루 장사 무디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셨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거지요.

비록 촌놈이지만...

비록 목자였고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부름 받아서 멋지게 일을 감당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아모스는 문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만 짓는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모든 현재의 삶을 버려두고 멀리 외국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회가 되고 때가 된다면 복음을 들고 먼 외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야 하겠지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우리는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직장을 버려두고 복음만을 전하자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모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직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애썼던 그것이 나중에 복음 전파에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어떻게 남겼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에 목동 노릇을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부리고 적당 적당하게 목동 노릇을 했더라면 시편 23편은 분명히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목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목자로써 최선을 다 해서 양을 돌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기술자는...

우리가 당장 모든 일을 팽개치고 선교사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애쓸 때 그것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식 선교사들은 비자를 얻어가지고 외국에 가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회교 국가들은 목사 신분으로 입국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뭘로 들어가나요? 가서 취직하면 되죠. 목사나 선교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냥 취직하는 겁니다. 기술자 자격으로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가서 사는 방법도 있죠. 그런 곳에 가서 취직하고 기술 가지고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남북통일이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북쪽에서 누가 제일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목사님 부르겠어요? 기술자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쪽에서 먼저 요청할 겁니다. 목사는 요청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순위가 좀 밀리겠지요. 많이 밀릴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전문적인 기술 가진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을런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기술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그 기술 외에 하나를 더 갖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뭘 가지고 가요?

아모스는 분명히 목자요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름을 받고 갔을 때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다른 실력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소위 준비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목사님 밑에 있다는 자랑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목사님에게서 뭘 배웠냐고 하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어요? 그런 때가 어느 때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런 때가 되면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배웠던 기술이나, 취미 생활로 익혔던 이런 재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로 쓰일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지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성경을 다 가르치냐?'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거든 '내가 아모스를 닮았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주제를 잘 알지, 내가 무슨 성경을 가르치냐? 내가!'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성경에 있어요. 아모스의 이야기죠. 아모스가 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불현듯 '내가 무슨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하는 생각이 들거든 '아! 아모스가 그 말을 했다'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모스하고 수준이 좀 비슷해지는 셈이네요. 생업에 충실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다른 어느 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습득하셔야 합니다.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죠. 또 남보다 더 빨리 진급하고 승진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기술 외에 하나 더!

학생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로 쓰일 날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를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잘 요약해서 집안 식구들이나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간편하게 요약해서 전하는 것도 재미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다보면 가끔 목사님께나 물어봐야 할 일이 좀 생깁니다. 혹시나 목사님이 실수로 잘못 가르쳤는데 목사님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지적을 하면 수정하기도 하지만 질문을 가끔 받게 되면 준비하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하여간 목사님께 부담을 줘서 되겠습니까? 돼요? 안돼요? 안된답니다. 좋은 학생들만 많이 모였네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학생이 가끔 질문을 하면 그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좀 긴장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를 준비할 때도 한번 볼 것 두번 보고 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듣지도 않고 질문도 없는 반은 선생님이 들어갈 때 편안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이 만듭니다. 설교하고 난 후에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묻는 것이 잘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혹시 이해가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여쭙 볼 수는 있지 않겠나 싶어요. 너무 부담 많이 주진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의견을 들을 때마다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세월이 지나면 더 좋은 설교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고 요약해서 함께 나눠보기도 하고 또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스스로 성경을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를 해 보십시오. 능력은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가르치느냐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 보십시오. 남을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내가 배웁니다. 좀 머리 굵은 애들 가르칠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신우회를 조직하고 몇몇이 모여서 우리 성경 읽기라도 하자. 해 보십시오. 성경 읽기 모임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 공부 모임으로 변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몇몇이 돌아가면서 연구도 해보고 발표도 해보고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가운데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실력이 쌓여져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 같이 갔었는데 모처럼 가서 뭘 좀 가르친다고 강의를 한 시간 받을

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몇년 전에 비해서 이 아이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될 정도로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성경을 배우고 언제 성경을 읽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참 심각합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모양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포항에 살며 효자 제일교회에 마르고 닳도록 계실 겁니까? 계셔야지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하진 마십시오. 여기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의 지식을 많이 쌓아서 때가 되면 떠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전하지 못하는 그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남은 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가령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요즘 은퇴를 하고 난 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 십만 원이나 이십만 원만 해도 넉넉하게 한 달씩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남은 생의 얼마를 그런 곳에서 그냥 살기만 해도 됩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면서 선교사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샤가 10명이면 뭐하고, 100명이면 뭐합니까? 아모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업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귀기울인 아모스를 불러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아모스의 이야기가 장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도 없이 왜...?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 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끈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밋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 사천과 약대 육천과 소 일천 겨리와 암나귀 일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겻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케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일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개역, 욥기 42:1~17]

근

20년 전 일입니다만, 중학교 1학년인 어느 여학생하고 즐기게 싸웠습니다. 한 1년쯤 싸우다가 부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어느 날 예쁘다고 한 대 쥐어 박았더니 애가 “이유도 없이 왜 때려요?” 한 거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난 “이유 없이 때릴 수 있다.” 하고, 개는 “이유 없이 때릴 수 없다.”면서 싸운 거죠. 싸우다가 일이 있으면 일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나면 “선생님, 또 합시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설날에 세배한다고 한복을 예쁘게 입고 왔어요. ‘일단 세배는 하고...’ 그러더니 세배하고 일어서서 치마를 훌쩍 걷는데 보니까 안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소위 전투복입니다. “인사는 했습니다.” 하고 딱 주저 앉더니 “이유 없이 왜 때려요?” 하는 겁니다. 한 1년 동안 틈만나면 그렇게 싸웠죠. 그 때마다 그 녀석이 한 대씩 맞았으니까 많이 맞았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끝에 가서 말씀 드리죠.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때 그 아이 생각이 나요. ‘이유 없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이유 없이 고난 당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정말 욥은 이유 없이 고난 받은 사람입니까?

경건한 부자

욥은 우스 땅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1절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입니다. 양이 칠천이고, 약대가 삼천이고..., 소가 몇 마리입니까? 오백 겨리라는데 한 겨리는 두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천 마리, 암 나귀가 오백입니다. 이것을 현 시가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한 말이 3절 끝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저 욥을 보았느냐?”고 하신 것은 욥에 대한 자랑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더니 사탄이 시기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욥에게 재난을 가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난이 어찌나 심했는지 친구 세 사람이 위문차 왔다가 7일 동안 주야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혔다는 것이죠.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뭐 다른 좋은 답이 있습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예요? 인내하시는 분요? 엄청난 고

통을 당하면서도 인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안돼요? 경건한 사람, 순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도 아주 귀하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더 귀한 것이 최고의 부자이면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경건한 사람은 더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자면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가난하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 부자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더 귀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부해지면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야단 맞았거나 벌받았던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바라기는 효자제일교회 성도들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부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적을 때 십일조를 잘 하다가, 소득이 많아지면 십일조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아지면 십일조 하기가 더 쉬워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교회에 나오셔서 뒷정리 하신 분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강단과 교회의 뒷벽을 철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임시로 뒷벽을 세우고 강단을 다시 설치하여 본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는 또 철거해야 될 일인데 예상일이 아닙니다. 커튼까지 다 달아놓은 것을 보고 '효자제일교회의 일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이더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김해까지 문상에 동행하고 싶었지만, 어제 밤 10시에 '목사님, 아무래도 기후가 너무 나쁜데 전도사가 둘이나 있으니 한 사람은 남아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갔다가, 예배시간 전까지 다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남았는데 괜히 걱정하고 남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서 다녀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작은 교회니까 그런 단결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조그만 할 때 힘을 내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가면서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해서 뒤로 물러나는 교인들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부자면서 더 경건한 욥처럼,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단결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 길을 다녀오면서 늦지 않게 오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힘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욥은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욥

또 한 가지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까지 자랑을 했겠습니까? 효자제일교회 누구 누구, 이러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쳤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 왔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 왔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폭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폭풍, 하늘의 불에 대한 원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지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욥은 나타나는 현상 하나 하나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옆의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 사람을 향합니다. '저 덜 된 인간이...' 하기 쉽죠?

욥은 그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예가 성경에 많이 있죠. 다윗이 도망갈 때 시바가 억울하게 욕을 막 퍼붓습니다. 옆에 있던 장수들이 "한 칼에 죽여 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뉘더라" 그러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댁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시바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는 것이니 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그 어떤 인물보다 그 인물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졌던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지난 IMF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그때 누구 욕을 많이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IMF가 왔다고 욕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그 좀 전에 포항에 있다가 영덕 쪽으로 전근을 가면서 집을 팔고 갔습니다. 몇 년 뒤에 내려오니까, 집 판 돈이 전세 값도 안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서, 이 친구는 입만 열면 XX재끼 욥을 했거든요. 그 XX가 누구겠어요? 당시 대통령 이름을 들먹이며 욥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 하나에 신경 쓰고 있지만, 욥은 그 현상 너머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나타나는 현상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뎨 글썽에 연기가?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끝없는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의 얘기가 굉장히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세상 일에 원인이 없는 게 없다. 네가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두 개만 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8장 11절도 봅시다.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뭇잎이 갈대 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왕골은 반드시 진펄에서만 난다는 얘깁니다.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 세 친구의 주장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친구들 말이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맞다고 합니까? 이걸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욥의 답변도 맞다고 합니다. “자네들 말이 다 맞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말에 꼬투리를 물고 들어오죠. “너 말이야 얼마나 건방지냐?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 분명히 죄가 아주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논쟁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병들고 아픈 사람을 위문하러 가서 “틀림없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런고 하니 세 친구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른 채 함부로 그런 말을 했으니 책망을 받아 마땅할지 모르죠.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친구들과 욥의 끝없는 논쟁은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욥도 그들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난 그렇게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내 고민이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끝도 없는 논쟁이죠. 그 논쟁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38장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네게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할 수 있겠거든 대답해 보라면서 100% 주관식으로만 문제를 냅니다. 문제가 몇 개일까 하고 헤아리다가 포기했습니다. 워낙 많아서요. 욥이 몇 개쯤 맞혔을 거 같습니까? 빵점입니다. 하나도 못 맞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쉬운 질문이 나오니다.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우주, 이 땅을 만들 때에 “너 어디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그 다음 질문은 조금 고쳐보면 누가 이 땅의 크기를 정했으며 이 땅을 누가 줄로 재어 보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이 너무 엄청난 거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것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욥이 잘 모를 때에 아무 것이나 찍는 실력이 조금만 있었으면 ‘하나님’이라 하면 좀 맞출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 문제의 답을 잘 모르면 단답형인 경우에는 1 아니면 0! 그것도 아니면 -1로 찍으면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어도 단어를 딱 하나 넣어야 한다면 확률이 제일 높은 게 that이나, which입니다. 성경 문제에서 답을 잘 모르겠거든 무조건 ‘하나님’ 하면 어지간히 맞습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 하면 상당히 많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질문을 하나님께서 퍼붓고 계시니까 욥이 완전히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할 생각을 않는 겁니다. 완전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38장 35절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번개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를 우선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묻고, 그 번개가 저기 가서 너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욥이 생각할 때 도무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 질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번개가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걸 증명해 낸 사람이 누구죠? 비바람이 몹시 치던 날 연 띄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몹시 불던 날 천둥이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형 연에 금속선을 달아서 띄울 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죽게 된다고요. 누굽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언제 사람인데요? 지금으로부터 기껏해야 300년도 채 안되는 때의 사람입니다. 천둥이나 번개가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한 게 지금으로부터 300년도 채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파가 발견되고 지금은 전파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소식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언제 하셨습니까? 적어도 삼천 내지 사천년 전에 기록된 문서에 이런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욥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38장 14절,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척 것 같고 탄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성경이 지구의 자전을 말한다는 표현으로 인용되었던 구절입니다. 옛날 도장은 진흙 판에 도르륵 굴리는 겁니다. 한바퀴를 굴리면 도장에 새겨놓은 모습이 진흙에 그대로 새겨지죠? 지구가 진흙에 인척듯이 돌아간다는 것은 자전을 의미합니다. 욥이 그런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1절도 보실까요?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오리온좌라고 하는데, 요즘은 잘 못봤습니다마는, 어릴 때에 자다가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나와보면 바로 정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일곱 개의 별이 바깥에 네 개, 가운데 세 개 있습니다. 세 별을 가리켜서 삼태성, 혹은 삼성이라고 하는데 그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 별 세 개가 아주 강한 자기장으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낸 건 최근의 일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저 아무 말 못하고 시험 문제를 듣기만 합니다.

욥이 깨달은 하나님

다 듣고난 욥의 반응이 오늘 읽은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질문을 듣고 있던 욥이 깨달아 안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시다는 말씀은 별로 놀라운 거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계시를 배웠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지 이게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후대, 아주 후대의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벨엘에서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리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디에만 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곳! 거기에만 계시실 줄 알았죠.

세월이 한참 더 지나가면 요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습니다. 요나가 배타고 반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은 육지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니까 바다로 도망가면 안 계시실 줄 알았죠. 그게 소위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요나나 야곱보다 몇 천년 이전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소불능하시오매...'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많이 들었으니까요.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라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질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하는지 보세요.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보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 그리고 뜻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질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려면 나 자신을 열심히 들여다 보아선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물론 다 안다는 건 불가능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자신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욥이 그러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기를 원인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욥도 거기에 동의하면서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말하는 이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말 속담에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나라랴’ 말 있죠? 아궁이에 불을 땀으니까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안 땀는데도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까? 안 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상식을 성경이 곳곳에서 뒤엎어 버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 된 것이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런 답은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궁이에 불을 때지 않았음에도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론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린 겁니다. 잘못이 없어도 욥이 이런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은 아궁이에 불을 안 때고도,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왜 생겼습니까? 정말 욥이 잘못된 것 때문입니까? 욥의 고난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자랑을 해가지고 말이죠... 불경스럽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될 자랑을 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좀 가벼우신 거죠. 욥의 고난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산 늘려주려고 이 고생을?

처음에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보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자랑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못해서 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더니 욥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이 이런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 보았던 욥의 소유가 42장 끝에 보면 딱 두 배입니다. 1장에 나오는 재산만으로도 욥은 동방의 최고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 갑부일런지는 상상이 잘 안됩니다. 큰 복이지요. 그러나 욥이 받은 복을 거기에만 주목하면 안됩니다.

욥이 받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복에 비하면 별 것 아닙니다. 막말로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늘려주려고 욥에게 그런 고통을 겪게 하셨나요? 5절을 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전에는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너희가 나 알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

왔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아다'라고 하는 걸 아시죠? 창세기 4장 1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우리말 성경은 뜻을 살려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합니다. 안다라는 말과 동침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는 것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른 외부 사람이 아무리 안들 부부가 아는 것만큼 알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이런 확실한 앎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충 어설프게 아는 걸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참 유명할 때 아이들이 서태지 서태지 하길래. 제가 심통을 좀 부렸죠. "서태지가 그렇게 좋으냐? 너 서태지 알아?" 그러니까 "예 ~" 하더라고요. "아는 놈 손들어. 그렇게 잘 알거든 너 가서 돈 좀 빌려 올래?" 돈 빌려 올 애는 아무도 없어요. "아주 잘 안다 했잖아?" 애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알긴 잘 아는데 나 혼자 알아요. 자기는 날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걸 가리킵니다. 욥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할 때는 이런 감각과 기쁨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나니까 세상의 뒤편이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에게 물질의 복은 따라 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물질의 복은 따라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하며 즐거우지 모릅니다. 영혼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도 즐거워하며 찬송 부르는 겁니다. 영혼이 만족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욥이 받은 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자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리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랑하셔서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사탄이 너무 심한 고난을 주니까 욥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해버리면 어떡하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욥은 이래도 끄떡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욥의 신앙이 그만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어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욥의 수준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큼 멋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친밀한 관계로, 달리 말한다면, 부자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친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자녀를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신학교 어느 교수님이 부흥회 오셔서 설교하는 도중에, 신학교 박사요, 신학교 교수이고, 교회가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갔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가 평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왜 저렇게 우냐?" 그랬더니 도시락 반찬에 소시지를 안 넣어줘서 운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 반찬에 소시지 넣어서 오는데 자기 도시락에는 맨날 김치밖에 없더라. 소시지 넣어달라 했는데 안 넣었다"고 서럽게 울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 교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다른 집 아이들이 그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명색이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인데 내 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뭐 소시지 때문에 울어?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이 다 그러는 건 좋다. 그런데 내 딸이 그러는 건 용서가 안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다 그러더라도 우리 집 아이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게 아버지의 욕심입니다.

다른 집 아이는 소시지 때문에 운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있다. 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는 거지요. 아이들이 가끔 집에 와서 엄마 엄마 내 짝지 이번에 반에서 10등했다.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잘했네. 너는? 5등했어. 야, 5등밖에 못해? 조금만 더해서 1등하면 안되나 그러죠? 옆집 애 10등은 잘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 5등은? 욕심이 참 과합니다. 꼭 1등 해야 합니까? 너무 1등 1등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잘 했다 하십시오.

내 아이만은 좀 남다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전하고 경건한 욥을

보면서 욥에게 더 큰 복을, 너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조금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욥에게 체험시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괜히 사랑해서 가지고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식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요만큼 잘하면 요만큼 상주고 요만큼 잘못하면 요만큼 벌주고 이런 기계적인 것은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부자 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잘 했는데도 더 야단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하는데 왜 야단을 칩니까? 더 잘 하라고요. 과도한 욕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기대 때문일 수도 있지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야단맞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욥이 보기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야단 맞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욥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항변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이유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유 없이 왜 때립니까? 그 애가 전학 갈 때가 되어서 “애, 우리 싸움을 끝내야겠다. 내가 이유 없이 썰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냐?” 모르겠네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내가 이유 없이 아무나 때려냐? 너만 때려냐?” 그러니까 “나만 맞았는데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다른 아이들은 놔두고 너만 이유 없이 맞는 이유가 뭐겠냐?” 제가 처음에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더 예쁘기 때문입니다.

“네가 얼마나 예쁜데... 네가 아무리 예뻐도 안아 줄 수도 없고, 선생님이 돼서 너만 표나게 예뻐할 수도 없단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난 네가 예쁘다 싶을 때마다 ‘하 이놈 예쁘다’ 하고 한 대 쥐어 박는 수밖에 내가 할 게 없더라. 그래서 됐다 왜? 그리고 그렇게 맞으니까 아프더냐?” 하니까 아프진 않더라요. “예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난 한 대씩 쥐어박았을 뿐이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왜 때냐고 대들었다. 내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그러니까 결국 그 애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유 없이 맞을 수 있다 따라 해!”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심하고 볼 때마다 한 대씩 쥐어박았는데, 얼마 안 있어 그만 전학 가버렸어요. 패는 게 아닙니다. 조금 기분 나빴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계속해서 싸웠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엔 이유가 없었지만 선생님에게는 이유가 있었죠.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예쁘단 말이야. 그런데 ‘야, 너 참 예쁘다’ 하면 다른 애들이 샘내잖아. 그러니까 말 못 하잖아. 그렇다고 몰래 아무도 없는데 따로 불러가지고 ‘예쁘다’ 하니? 그것은 더 이상하잖아. 넌 이유가 없을지라도 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야라는 데야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겼죠. 벌써 시집 갈 때가 훨씬 지났는데 그 이후 소식을 몰라서 조금 섭섭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나? 내가 이게 무슨 팔자냐? 내가 전생에 뭘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바보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생 당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이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픈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내 자녀 아니냐. 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하고 같아서 되는 거 아니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는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당하기 싫

[2002.08.11] 이유도 없이 왜...? (욥기 42:1~17)

은 시련도 당해야 하고 겪지 않아야 할 아픔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꿈, 요나단의 행복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흑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심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심 황무지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개역, 사무엘상 23:13~18]

일 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긴 그 때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임시정부 수반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를 모신 20살쯤 난 아들이었다면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겠으며 그 꿈이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처한 상황이 거의 이와 비슷합니다.

요나단이 한창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블레셋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능력도 없던 시절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 것도 아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삼천 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이천 명은 사울이 거느리고 아들 요나단에게 천 명을 거느리도록 했습니다. 요나단이 군사 천 명을 데리고 어느날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겁니다. 블레셋 수비대는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수비대라기보다 주둔군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경내에 설치해 놨던 주둔군과 싸움이 붙었고 결국은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침공해 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군사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는 다 합쳐야 삼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너무나 무모한 짓을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은 군사를, 겨우 삼천 명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떼어 준 천 명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느냐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모한 전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군사를 동원해서 막느라고 썼는데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로 그 전쟁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죠. 군사들은 흩어져 나가고 자기를 세운 사무엘은 오지 않고, 두려운데,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 많고, 그래서 자기가 해서는 안될 제사를 지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말씀이 이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전에 사울이 처했던 상황도 좀 이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어렵던 상황에서 요나단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상하게 그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울이 실수한 것만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요나단 때문입니다.

부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좀 떨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요나단이 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감히 덤벼들 엄두가 나지 않는 블레셋을 향하여 요나단이 자기 부관 하나만 데리고 단신으로 들어가서 휘젓습니다. 그 때 한 말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이 많고 적은 것도 엇비슷이라도 해야지 자기편이라곤 딱 둘 아십니까? 적군은 해변의 모래같이 깔렸는데 거기를 들어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나 요나단이 볼 때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산이 안 맞을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명이 어찌자는 애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서 블레셋 군대하고 붙었습니다. 어쨌건 두 명입니다. 그런데요 땅이 심하게 흔들렸답니다.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사울과 군사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적진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는 삼천 명이었던 군사들마저 두려워서 자꾸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6백명밖에 안되었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도망갔단 얘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본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압록강을 건너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남은 숫자가 6백이니까 사울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울 왕은 두려움에 떨다가 실수를 하고 요나단은 단신으로 적진을 휘젓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일부는 굴에 숨고 일부는 도망갔는데 블레셋 진이 흔들리고, 떨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고 궁금해 하고 있는데 도망갔던 군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몰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블레셋과 싸우지만 이긴 건 아니고 그냥 밀어내는 정도로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을 계속 일으키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요나단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비록 잠시지만 블레셋 군대를 밀어내고 이제 나라가 서서히 기들이 잡혀가는 이런 시점에 요나단에게 꿈이 있었다면 무엇이였을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일 큰 소원이 나라의 독립이 아니었겠습니까? 독립이 되고 아버지가 초대 임금님이 되고 그러면 자기는 두번째 왕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왕이 된다는 것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나단에게는 얼마나 가슴설레는 일이였을까요?

어떤 분이 포항에서 총각시절에 파출소장을 했는데 자기 장인에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파출소장도 한번 해보면 손을 못 놓는답니다. 소위 말하는 권력의 맛이 그렇게 좋답니다. 파출소장요? 권력으로 치면 파출소장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마는 한 번 해 보면 그게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른답니다.

욕을 그렇게 먹어가면서 굳이 시장 선거에 나오고 도지사, 국회의원에 나오는 이유를 아마 우린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아침마다 길에 서서 인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저거 안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맛을 들이면 헤어내기 어렵답니다. 하물며 눈 앞에 왕의 자리가 보이는데 그런 꿈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이 당연히 품을 수 있는 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꿈이 허물어진다고 할까요 아니면 요나단 스스로가 포기한다고 그럴까요?

요나단은 스스로 이 꿈을 접었습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입니다. 다윗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꿈을 다 접고, 오직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을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아마 다윗을 멀리서 본적이거나 들은 적은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을 만나게 된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직후입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자랄 때 다윗 얘길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한 번 해야지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자꾸 반대쪽으로 갔어요. '다윗은 어릴 때 저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졌었는데...'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흉내내기 어려운 사람이었기에 기가 많이 꺾였고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다윗이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남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물뿔들과 끈, 그리고 조그마한 작대기를 들고 가니까 골리앗이 기가차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작대기를 들고 개 잡으러 오느냐?'는 거겠지요.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참으로 웃기는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

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소리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우리 아이들은 이 말씀이 복음송에 있어서 참 잘 부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전쟁에서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는 거구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해서 나올지라도 난 오늘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남긴 말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는 말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얘깁니다. 젊은 시절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요나단이, 끌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다윗이 남긴 말을 들을 때에 가슴이 뛰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한, 두 번이라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그 말을 들었더니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날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통해서 다윗에게 그만 완전히 빠져 버린 겁니다. 그날 요나단은 자기가 입던 옷과 창과 모든 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건네 줍니다. 월드컵 축구 시합 끝나고 선수들이 땀에 젖은 옷을 바꾸어 입는 것 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위생상 좋지 못하다고 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마 좋은 성적을 못 거두니까 샘이 나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위생상 좋지 못하다는데도 땀에 젖은 옷을 왜 바꾸니까? 그것도 다 그러는 게 아니더군요. 비록 적이었지만 정말 훌륭한 선수로 인정하는 경우에 옷을 바꾸어 입었다더군요. 시합 후에 옷 바꿔 입는 것의 원조가 요나단이 아닐까요?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전부 다윗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 언약을 맺은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도 친구를 보면 사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친구는 자기와 비슷하게 마련입니다.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학부모를 소환하면 학부모들은 첫마디가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애가 본래 나쁜 애가 아니고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 가지고...” 십중팔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적당하게 넘어가 줍니다. 그런데 성깔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야단을 맞지요. “개가 친구를 잘못 사귀게 아니고 애가 다른 친구를 다 버립니다.” 내용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애가 지금 다른 애들을 다 망치고 있는데도 엄마는 무조건하고 자기 아이가 본래 그런 애가 아니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애가 버렸다는 얘길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런 친구를 사귀느냐 하면 둘 다 비슷하니까 만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이 동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그 두 사람 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에 왕 될 사람이 내가 아니고 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다’ 그 다음에 나라의 말은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면 다음 왕은 자기인데 그 자리를 다윗에게 깨끗이 넘기는 겁니다. 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음 왕 될 사람은 바로 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왕의 자리까지 포기하고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인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부모, 형제, 본적까지 다 버리고 시집왔으니 대단하다고 해야지요. 여인이 한 남자에게 빠지게 되면 나라도 팔아먹는 증거가 있어요. 부모를 다 버리고 나라까지 버린 예가 있지요? 누구입니까? 낙랑공주요. 고민하면서도 신랑을 따라서 부모를 다 버리고 나라를 다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인의 사랑인가? 그럴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인의 사랑이 그러하다 칠 때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 하는 말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다, 더 하였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 여러 곳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꿈을 깨끗이 접어 버렸습니다. 그저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도망간 장소를 13절에 보시면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갈 수 있기만 하면 어디든 갔더라는 말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심 황무지 산골에도 있었지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붙들리지 않게 하셨지만 다윗은 죽지 않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도망 다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을 때에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서 살짝 이탈해서 다윗을 몰래 만난 겁니다. 왕이 알면 이건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전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충고를 하다가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눈을 피해서 몰래 들어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서 한 얘기가 뭔지 보세요. 이건 반역도 보통 반역이 아닙니다. 17절을 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네 손에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 말 자체도 반역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것은 무슨 죄입니까? 대역죄에 해당됩니다. 사극을 보세요. 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왕세자가, 다음에 왕이 되도록 공인받은 왕세자라도 왕의 자리를 함부로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누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겁니까? 이건 대역죄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격려하고 요나단은 돌아갑니다. 이 만남 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애국자입니까 아닙니까? 요나단의 이 행위가 애국입니까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왕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놔두고, 아버지에 대해서 효를 다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이라는 그 원수를 몰래 찾아가서 영 영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너무 불효막심한 사람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해답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요나단은 정말 충신입니다. 정말 충성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왕의 자리라도 버릴 수 있고 아버지를 버려야 할 상황이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효자가 아니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나단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요,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될 그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 싸우다가 끝내 아버지와 함께 죽은 일입니다. 요나단을 가리켜서 불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불쌍한 아버지를 끝까지 돌아보며 함께 동행하면서도 다윗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그만큼 분별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고 아버지에게 효를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의 태도가 결코 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CCM 가수 이름 중에도 다윗과 요나단이 있을 겁니다. 저는 늘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위대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말하기보다 요나단을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시작할 때에 나이가 요나단이 훨씬 많습니다.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요나단을 형이라고 불러요. 아마 나이 차가 상당히 났을 것 같습니다. 또, 처음 만났을 때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다윗은 시골 목동이었고 가끔 궁에 들락거리긴 했습니다. 마는 사람 눈에 뜨일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참 귀한 사랑을 나눴다면 그것은 형이 베푸는 것이지 대등한 사랑은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콜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 전장에 나갔을 때 다윗은 형님들에게까지 구박을 받았거든요. '너 이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래서 형님들에게까지 밀려날 정도로 어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렸던 것 같지는 않은데 형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쏟은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입니다. 두 사람은 동등한 우정 관계라기보다 요나단이 베풀어준 사랑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이 더욱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은 다윗입니다.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버지에게 효를 다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서 받은 복이 없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을 뿐입니다. 반면에 요나단에게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용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 비해서 다윗은 너무 호강을 누렸단 말입니다.

제목에 '요나단의 꿈 요나단의 행복'이라고 적었습니다. 요나단의 꿈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요나단의 행복은 그럼 뭐였어요? 아니 요나단이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해답은 오히려 신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조그마한 계집아이의 춤값으로 목이 달아났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요한이 큰 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가 나라를 위해서, 혹은 민족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후대에 당당하게 자랑할텐데 겨우 계집아이의 춤값에 죽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행복이란 전혀 없나요? 세례요한 스스로 한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왔던 저 분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 선생님에게로 다 갑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한복음 3:30)** 그 다음은요? 그 바로 앞에 말은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네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이 내게는 충만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는 걸 세례요한이 알아요. '난 신랑이 아니요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요한의 기쁨입니다.

좀더 나아가서 보면 세례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것은 장차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비참하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일입니다. 세례요한이 뱀하러 온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니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할 터이니 세례요한도 그렇게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역할이 그것이며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렇다치고 그럼 요나단은요? 왜 요나단의 애길 하다가 세례요한 애길 하느냐 하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고 다윗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요나단은 세례요한이 해야 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진정한 행복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임무를 부여받은 다윗을 세우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불행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마땅히 감당했다는 기쁨이 충만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다 주어졌다 싶는데도 자세히 보면 괴롭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집, 명예, 부, 재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좋은 집이나 많은 재산이 오히려 불행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요나단이 행복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충성한 요나단의 생이 그렇게 끝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

에 가서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두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면 누가 큰 상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분명히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더 큰 상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상급에 너무 의미를 많이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리워 질만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이죠.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득권조차 깨끗이 포기하고 다윗을 세웠던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나라의 독립이나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내가 아니고 다윗이 맡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걸 깨끗이 포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윗을 만난다고 요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본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다윗의 일에 춤추며 박수치며 노래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요나단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잘한다고 박수치고 노래부르고 환호했지만 그걸로 끝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다윗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에게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잘 키워가시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거 내가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나 이걸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건 어떤 상황인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가보다라고 생각될 때 깨끗이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린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윗이 되라고 하는지 아니면 요나단이 되라고 하는지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윗이 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된다는 것은 왕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못한다고 뒤로 물러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도울 요나단이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요나단이 되라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 다윗이 있을 겁니다. 정말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워야 할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은 옆에서 요나단이 되어서 그를 힘껏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아니면 다윗이 되세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찾아보세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이 사람을 밀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힘껏 밀어주세요. 한 사람을 밀어서 그렇게 세우려면 한 사람은 희생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남편이 희생하고 아내를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집 사람이 훨씬 잘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걸 세우기 위해서 남편이 희생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는 얘기죠. 반드시 아내만 희생하고 남편이 다윗이 되란 법은 없습니다.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 어떻게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만 성공할 수 있느냐구요? 서로 대등하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심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가정을 만드실 때 한 사람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 복종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유심히 한 번 보십시오. 저분에게 저런 은사가 있고 저런 능력이

있고 아 저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생각이 되면 정말 아낌없이 밀어주고 세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요나단이 되는 길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발 우리 효자제일교회 내에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와 질투로 깎아내리는 일은 결단코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아 하나님께서 날보고 다윗이 되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하면 옆에서 요나단이 다가와서 희생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되었건 다윗이 되었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행복이었습니다.

달콤한 뱀의 유혹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개역, 창세기 3:1-7]

명절에 많이 출타하셔서 이번 추석도 좀 쓸쓸하게 지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찍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뱀 좋아하십니까? 남자들 중에는 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에 나가서 뱀을 얼마나 잡아 자셨는지 한국사람만 나타나면 비상이 걸렸고, 중국에서도 뱀을 굉장히 많이 수입해 오는 것 같습니다. 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봐요?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들 중에도 뱀을 좋아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뱀과 여자 사이가 그렇게 험악한 관계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왜 그렇게 멀어졌어요? 여자들이 뱀을 좋아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전도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뱀이 무슨 뱀인지 아십니까? 웃는 게 좀 수상하긴 수상한데... 꽃뱀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적을 알아야 이겨도 이길 게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꽃뱀에 대한 글을 제가 좀 읽었는데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남자를 녹이는 꽃뱀은 어딘가 모르게 좀 야하고, 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여자가 아닐까 생각하기 쉬운데 연구한 분의 글에 의하면 진짜 꽃뱀은 청순가련형이랍니다. 청순가련형, 이거 무서운 겁니다. 다가올 때는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내가 도와줘야 될 것만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무서운 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꽃뱀의 원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뱀의 말을 들은 것은 우리 조상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잘못이 크든 작든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뱀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읽기 전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변화되고 노아 홍수 사건으로 거의 깨어지다시피 해서 원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상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진하게 젖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미생물이 발전해서 오늘 우리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옛날 조상들의 모습을 원시인이라고 하면서 숲 속의 동물처럼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믿든지 아니면 부정을 하든지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계가 우리로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특별히 공부를 하셔야 성경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머리로선 상상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불가사의라고 던져 버리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든다면, 이집트에 세워져 있는 피라미드의 비밀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피라미트 속에 조그마한 로봇을 집어넣어 촬영해서 연구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결과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집트인의 조상들이 세웠다는 피라미트 속에 들어가 보면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뚫린 작

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으로 여러 개의 돌을 뚫고 나간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이 하늘의 어느 별 하나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한 것은 이 거대한 돌을 쌓기 전에 미리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쌓아 올렸느냐 아니면 돌을 다 쌓아 놓고 나중에 그 작은 구멍을 뚫어냈느냐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피라미드가 세워졌다는 그 시기에 그런 것을 가능케 할 만한 철 연장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나무 연장밖에 없던 시절에 그 거대한 바위를 쌓아올리고 수십 개의 바위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작은 구멍을 뚫어놓았다는 사실은 도무지 설명이 안됩니다. 피라미드는 아직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문명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설명이 안되니까 전부 불가사의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이해하려면 지금의 세계를 근거로 생각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뱀이 처음에는 그렇게 끔찍한 모습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모르긴 해도 하와가 보기에는 아주 친근하고 미끈하게 잘 생긴 모습이었을 겁니다. 안 그랬으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을 이유가 없죠. 지금 뱀처럼 흉칙한 모습이 아니라 하와가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뱀이 저렇게 흉칙하게 보이는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본문을 찬찬히 살펴봅시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묘하게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간교한 들짐승을 만드셨을까요? 잠언 12장이나 13장에 보시면 슬기롭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슬기롭다는 말과 여기에 간교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간교하다는 말과 슬기롭다는 말은 통하는 데가 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남을 간사하게, 혹은 교묘하게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은 아주 지혜로운 들짐승이었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들짐승이 사탄에게 점령당하면 간교한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지혜 자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를 잘못 써서 그렇죠.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지혜 자체가 좋으나 나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도 마찬가지로잖아요. 성경은 돈을 나쁘다고 말합니까? 좋다고 말합니까? 나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쁜 걸 벌기 위해 그 고생을 하고 다니십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뭐예요? 돈이에요?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태도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좋은 데 쓰기 위해서죠.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그러죠? 텔레비전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텔레비전 자체가 나쁘다 좋다 말하지 마세요. 텔레비전이 입이 있으면 굉장히 억울해 할 것입니다. 보고 안 보고는 자기가 할 일이지 그것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서 욕은 왜 텔레비전에게 하느냐고 할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지혜롭고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악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교한 들짐승을 만들었다? 아니요! 만들긴 지혜로운 짐승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짐승이 사탄에게 잡히니까 지혜로움이 간교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을만한 좋은 질문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데 대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면 “다른 모든 짐승은 풀만 먹고 있는데 사람은 풀 아닌 과일과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질문 다 제쳐놓고 물은 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는 겁니다. 사탄의 습성이란 것이 어쨌든 나쁜 것만 들춰내거나, 나쁜 것에만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는지 좋은 것을 들추어내고 좋은 것을 살피기보다는 나쁜 것만 살피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싸울 땐 싸우더라도 끝나거든 왜 싸웠는지 꼭 되돌아 보십시오. 남편이건 아내건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찾아보면 어느 것이 많아요? 한 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단점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좋은 점 다 놔두고 나쁜 점 하나에 집중하는 못된 버릇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장난삼아 오래 전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목을 ‘나쁜 놈 시리즈’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제일 많이 읽었어요. 좋은 얘기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런 제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 말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나쁜 놈 시리즈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나쁜 놈 시리즈가 유행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본을 떠서 비슷하게 옮겨왔어요. ‘성경공부 하자고 했는데 들어와서 성경은 안 읽고 글자 틀린 것 없나 이것만 찾는 놈 나쁜 놈, 성경공부 하자고 해 놓았는데 성경공부는 하나도 안 읽고 남의 글만 읽고 가는 놈 더 나쁜 놈’ 원래 이게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줄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와 보지도 않는 놈 제일 나쁜 놈’ 이런 식이죠. 중요한 것은 ‘나쁜 놈...’ 이런 제목의 글을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우리는 이렇단 말입니다.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 그 다음 세조, 이 네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그런데 텔레비전 드라마에 왜 세종대왕만 짝 빼고 나머지 세 사람 얘기만 합니까? 왜 세종대왕 얘기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안 해요? 아무도 안 볼 거니까. 왜 나쁜 짓 많이 한 태조, 태종, 세조 얘기는 보면서 좋은 일 많이 한 세종대왕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이 안 보느냐는 말입니다. 텔레비전이 그렇고 우리 사는 게 다 그래요.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야단 많이 치죠. “공부 그래 밖에 못하나?” 그런 말을 꼭 해야 할 때라도 이 아이를 두고 감사해야 할 게 달리 없을까요? 아이들이 탈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픈 아이가 있는 집하고 비교해 보세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야, 공부도 잘해라”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못하더라도 착한 아이는 칭찬 받아야 될 아이입니다. 그런데 공부 못한다고 야단은 쳐봤지만 ‘착하게 자란다’고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안 좋은 쪽을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쁜 것들은 애쓰지 않아도 잘 보여요. 그런데 정말 칭찬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은 노력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제쳐놓고 나쁜 것만 주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안다면,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도 연습하고 노력함에 따라 느는 겁니다. 부부간에, 아이들에게, 또 이웃에게 좋은 일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칭찬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을 살피는 것은 사탄이 주는 은사입니다.

하와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뱀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와의 대답을 봅시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했는데 이 하와의 대답이 참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명령은 2장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 하와의 죄를 오늘날 형법에 비추다면 무슨 죄가 될까요? 제가 볼 때에 공문서 위조죄입니다. 없는

말을 추가시켰고, 있는 말을 적당히 변조를 시켰단 말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추가가 된 것이고 정녕 죽으리라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성경을 펴놓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적잖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속임수에 빠지거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에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뱀이 유혹하는 이 말이 사실일까요? 대답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며칠 뒤에 뱀이 찾아와서 **“봐라. 내 말 맞지?”** 할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어쨌거나 **“네 말 맞네.”** 한 10년 뒤에 또 찾아옵니다. 또 뭐라고 그럴까요? **“내 말 맞지?”** 100년 뒤에 또 찾아옵니다. **“내 말 맞지?”** 뱀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고도 즉시 죽지 않았습니니다. 적어도 천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거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무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천년을 살았다는 것은 산 게 아닙니다. 수확을 공부한 분은 금방 알죠? 무한대 분의 천은 얼마죠? 영(Zero)이잖아요. 무한대 분에 상수는 상수가 아무리 커도 무조건 영입니다. 곧 바로 죽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년이나 살고 죽었다구요? 곧 바로 죽은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죽어야 할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으니 그를 믿는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때에도 이 사탄은 따라와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한마디 할겁니다. 뭐라고요? **“봐라. 내 말 맞지?”** 이런 걸 가리켜서 **어거지**라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 말을 했다고 치면 이 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거지**입니다.

이 뱀의 말을 뒤집어 보면 세 가지 유혹마다 그런 경우가 포함되었어요.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유혹을 했는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눈이 밝은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평생 소원이 눈 뜨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정말 눈을 뜨게 되었어요. 현대 의학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눈을 뜨고 얼마 후에 눈뜬 걸 후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울 거라고 상상했는데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깐 눈을 뜨기 전에 상상했던 세상만큼 아름답지가 않더라.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긴 현상이 하나님이 두려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질 것 같으면 차라리 눈을 뜨지 않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너무 밝은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눈은 적당하게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약 어릴 때 어른들의 세계를 다 볼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어른들의 어떤 모습은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다 보는 것은 불행입니다. 우리 눈도 어떤 점에서 약간 어두운 것이 행복입니다. 이 손가락 끝에 균이 얼마나 붙어 있을까요? 크게 확대시키면 수도 없이 많은 균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아주 좋으면 이 공중에 작은 균들이 엄청나게 떠돌아다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설교 시간에 예를 들기는 뵈하지마는 이 예배당 저쪽에서 누군가 뱀새를 살며시 피웠습니다. 이쪽에 앉아 있는 분들이 뱀새를 맡았다면 그게 무슨 뜻이죠? 저쪽에 있는 분의 몸에서 뭔가가 나와서 내 코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뱀새를 맡게 하는 물질이 황색 연기처럼 저쪽에서 이리로 번져 오는데 그것이 만약 눈

에 보인다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은 안 보는 게 행복입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무리 생각해 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신명기 29:29)’

한국사람들은 면역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들 말하는데 부엌의 행주 때문이랍니다. 그 도마와 행주는 영양 분 많고 적당한 습도가 항상 있으니까 온갖 균들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가정 주부가 조금만 게으르다면 금상첨화죠. 거기에 온갖 균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요리 준비하고 반찬 다 만들어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예 면역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볼 눈이 있다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적당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게 좋겠다해서 가려 놓은 것은 볼 수 없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인양 뱀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것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결국 거기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있는 것도 복입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 열심히 알고 공부해야 되지만 몰라야 될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같이 되 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천사보다 월등히 나은 존재로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이것 을 따먹고 어느 정도로 추락을 했는지 우린 상상이 안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원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도 참 감사하게 잘 살고 있 는 겁니다.

영원히 살던 사람의 수명이 천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천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오래 살 았다 싶어서 부럽죠? 하나님이 보실 때 천년 살다 죽은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백년쯤 삽니 다. 천년을 살았던 그 분들이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 수명이 더욱 단축된 것은 노아홍수 이후의 일입 니다. 수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백년 삽니다. 천년 살던 분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 까요?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백 년을 삽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열살만 살다가 죽기 로 되어 있어요. 아홉 살이 되었어요. 아홉 살 된 아이가 90세 먹은 노인네 같습니다. 내년엔 죽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90세 같아 보이는 9살난 아이의 모습이 바로 범죠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평생, 이 머리 다 써도 가지고 있는 두뇌의 3%내지 5%, 많이 써야 5%밖에 못 쓴다고 그러죠. 이 머리를 다 쓸 수 있던 분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런 머리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할 것만 같아요. 가끔 낚시하는 분들이 붕어 이야기를 합니다. 붕어의 아이큐가 5라고요? 왜 5냐니까 걸려서 당겨오 다가 입이 찢어져 도망간 붕어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걸 물다가 잡힌다네요. 세상에! 입이 찢겨져 나간 상 태로 또 그 미끼를 물려고 오니까 붕어 아이큐가 5니 3이니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두뇌를 다 쓸 수 있 었던 그 분이 우리 평생 써 보아야 3% 천재라는 사람이 5%를 쓴다 것 보면 '그것도 머리?'라고 안 하겠어 요?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고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을 듣고 따먹었는데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가졌던 좋은 것 다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모습 으로 전락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래도 내 말 듣고 하나님과 맞서 당당하게 겨루어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22절을 한 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란 말씀을 바라. 하나님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적어도 하나님께 겁은 한 번 쫓아보지 않았냐고 우리에게 대들지도 모릅니다.

경상도 말로 대답하면 제일 어울려요. 경상도 말로 뱀에게 대답하면 이럴 겁니다. "그래, 니 덕분에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마는 그러나 힘 한번 써봤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문디이야!" 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면서 했던 말들을 찬찬히 훑어보고 길게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할만한 요소가 보입니다. 끝까지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의도로 이런 유혹을 했느냐는 것이죠.

나쁜 의도를 숨긴 채 말은 맞지 않느냐고 우기는 것을 어거지라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거지 부리는 사람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뿌려 놓은 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이에 말도 안되는 이런 어거지 같은 소리 안 나오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수법이 그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부로 어거지를 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정말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아름답고 보암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리 중에 금지된 것은 더욱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낚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놓쳐버린 고기가 항상 커 보인다고 그래요. 금지된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잡다가 놓쳐버린 것은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요. 우리 생각의 바탕 속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된 것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금지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 금지된 거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세요? 얘기 들어보면 재미는 있어요. 대마초 피우는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다 피우면 안된답니다. 여럿이 둘러앉아 한 사람은 안 피우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환상이 되어서 다 보인대요. 있을 수 없는 일도 옆에서 앉아 말만 해 주면 머리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재미있겠다? 마약이 아무리 재미있고 매력이 있다고 해도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행복한 겁니다. 마약은 우리하고 너무 머니까 가까운 쪽으로 갑시다.

술값 오르면 걱정되세요? 담배값 오른다면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오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는 이런 태도가 술 담배에만 있을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좀 있어야 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자 탈렌트 보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쁘다고 느끼세요? 그렇게 느끼면 불행한 겁니다. 세상에 우리 마누라 외에는 이쁜 사람이 없다? 이걸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랑 쳐다보면 정말로 멋있어 보이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 보니까 도대체 멋있어 보이지가 않더라? 이거 행복한 겁니다. 우리 심사가 어느 쪽인가 한 번 보세요. 금지된 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 내게 허용된 것이 더 좋아 보이는지? 우리 눈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합니다.

하와가 그걸 쳐다보았을 때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 인류의 불행을 초래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손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들어온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다고 믿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맛 없는 거야" 그러면 맛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먹지 마라. 해로운 거야" 하면 꼭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행한 겁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요긴 먹으면 해로운 거니까 먹지마" 그래 놓고 나가보세요. 대체로 손을 땁니다. 아이들은 그렇다치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이라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부가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많은 부모가 정말 자기 마음에

속 드는 자녀 만나기란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언제나 부모 마음에 아이는 차지 않습니다. 잘 해 줄수록 더욱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속 드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라면 온갖 단점에도 내게 가장 적합한 아이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라는 뜻입니다.

7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눈이 밝아져서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2장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단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화를 말하는지 우리로서는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추측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 오늘은 호랑이 집합!" 하면 호랑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이런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 앞에 서서 '호랑이 집합' 하고 모아놓으면 호랑이들이 모여서 깔떡거리지 않았을까요? 짐승들이 다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직급이 높아지면 달라지는 게 많이 있죠? 하다 못해 직책 수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품위유지비라는 것도 있죠? 직급이 올라가면 적어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나 힘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사람을 같이 만든 게 아니고 한 직급이 높습니다.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짐승들하고 모양이 똑같아서는 권위가 안 서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실 때는 특별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옷도 안 입었는데 무슨 장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옷 입고 사세요? 하나님은 뽕 입고 다니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빛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해 버렸죠.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몸에서 광채가 난 겁니다. 그 광채 앞에 다른 제자들이 전부 거꾸러지는 거죠.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권위가 서고 동물들을 통솔할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그런 모습으로 만드셨길래 또 그랬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셨다고 상상해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뱀이 찾아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정말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주 거창한 말을 하죠. 정말 아름답고 욕심이 날만한, 탐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따른 결과는 그 뱀의 말처럼 멋진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탄의 속삭임이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습성들을 어떻게든지 제거해 내고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노라면 점점 이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나쁜 것보다 좋은 것 보기를 원하고, 내게 금지된 것보다는 내게 허용된 것만이 더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일 때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귀를 기울이노라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니다.

텔레비전 안 볼 수 없죠? 중요한 건 보시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텔레비전이 자기가 알아서 내 머리 속에 꽂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는 보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은 봐야 되겠다 이걸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조절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보다는 빼딱한 것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정상적인 인물은 잘 안 나와요. 부모 말씀 잘 듣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예쁜 색시 만나서 오손도손 참 잘 살았다. 이런 애긴 절대로 안 나와요. 누가 그걸 보나요? 꼭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해야 본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그런 비정상적인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재미삼아 보세요.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아서 될지 안될지를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식별해 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쪽으로 눈이 밝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귀 기울이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하와는 마치 꽃뱀에게 물린 것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 망쳐버린 인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관계를 원위치로 돌려 놓으시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한 그 고난의 길을 또 되풀이하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가 헛되이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더 낫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라는 것도 이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말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유언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겔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개역, 요한복음 13:1~17]

우 리 교회로서는 오늘이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이 경사스러운 주일에 유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첫 유언'인데 첫 유언이라는 것은 두 번째 유언이 또 있었다는 얘깁죠? 예수님은 유언을 두 번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시는 일을 두 번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조용하게 한 번 적어 보시는 것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으로 일찍 죽는 아버지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유언을 남기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언을 비디오로 촬영하는데 비디오 카메라 앞에 앉아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향해서 "얘야, 면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 남자라면 야구는 이렇게 하는 법이다..." 이런 것을 녹음해 놓고 결국은 죽더라구요. 이런 유언은 사람을 참으로 슬프게 만듭니다.

준비 없이 남긴 유언 중에 제일 멋진 유언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순신 장군의 유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석에서 무슨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하게 유언을 남겨야 할 일이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쓰시고 싶습니까? 한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있을 겁니다. 유언 중에 제일 시원치 않은 유언이 "여보, 돈을 누구한테 얼마 빌려줬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것 아닐까요? 몰래 쓰다 남은 용돈이 어디 어디에 꽂혀 있는데 책장 몇 번째 어느 책을 뒤져 보면 얼마 있고... 부인은 남편 몰래 보험 들어놓은 통장이 어디 있으니까 잘 찾아보라는 유언을 남길 수도 있죠. 이런 건 참 시원찮은 유언에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 몰래 아니 아무도 몰래 어느 선교사를 도왔거나 누구를 몇 해 동안 도왔는데 혹시 내가 없더라도 이 일을 부탁한다면 그런 식의 유언은 좀 낫겠죠. 좌우간 무슨 유언이 될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나게도 유언을 두 번이나 남기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할 때 무엇부터 기억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은 언제 하신 거죠? 승천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게 유언일까요? 아니면 승천하실 때 남긴 게 유언일까요? 승천하실 때요? 십자가에 달릴 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진짜 유언인지 말하기 곤란하니깐 첫 번째 유언, 두 번째 유언으로 갈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만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억해야 하고 항상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상당히 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긴 이야기를

하신 후에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제자들만 남겨두고 먼저 떠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읽어도 좋습니다. 특별히 외롭고 쓸쓸하고 세상이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생각해 주는 분이 이렇게 없나 싶을 때 여기를 펴서 그리고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굉장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성경 어딘들 안 좋은 곳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쓸쓸하고 힘들고 짜증날 때 그 부분을 펴서 천천히, 빨리 읽으시면 안됩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어려운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혼자 떠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살펴보면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34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닥칠 엄청난 고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참으로 험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제자들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던 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제자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수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유언으로 남긴 말의 핵심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던 요한이 오랫동안 살아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이야기한 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남겨두었고 요한 1, 2, 3서에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첫 번 유언의 핵심입니다. 13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특이하게 자신이 돌아가셔야 할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1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3절에도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특이하게 자신이 돌아가실 때와 돌아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전부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방법은 구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예언된 방법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무에 달려 돌아간다는 말이 별 느낌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최악의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인식됩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모세가 뿔뿔을 만들어 달아 올린 사건 기억하시죠? 불뿔이 나와서 백성들을 많이 물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뿔으로 뿔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낯는다고 했습니다.

다 쳐다보았을까요? 안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병에 걸려 죽어 가는데 뿔뿔을 크게 만들어 놓고 저걸 쳐다보면 낯는다고 쳐다보라 하는데 다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사람이 참으로 묘한 것이 쳐다보기만 하면 낯는다고 하는데 그걸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었죠!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약을 주시거나 좋은 의사를 보내서 아니면 비행기로 공중 살포를 해서 다 살릴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멍청한 방법을 사용해서 쳐다보면 살고, 그렇게 간단한 것을 굳이 안 보면 못살고...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가 뿔뿔을 쳐다보면 산다는 얘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뿔뿔이 무슨 신령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저 뿔뿔처럼 이 땅에 와서 나무에 달릴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뿔뿔처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되어 있

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유월절 어린양이죠. 유월절 어린양은 뭐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잡는 양이라는 말이죠. 또 세례요한이 다른 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 했습니다. 그 양도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만이가 죽어야 하는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날 밤에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남자들은 다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담 넘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월장.

어떻게 여자분이 아시죠? 여학교도 월장이란 게 있나요? 월(越)자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피묻은 집을 넘어갔다는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성질이 더러운지 도둑질하는 중인지 죄인인지 묻지 않고 그냥 피만 보면 넘어갔습니다. 누가 그걸 보고 우리나라 풍습과 아주 흡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짓날 귀신 쫓기 위해 팔죽을 쏩니다. 왜 팔죽을 쏩니까? 귀신이 붉은 색을 싫어한다고요? 죽음의 천사도 붉은 색을 싫어하는 모양이죠? 그것을 보고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붉은 피빛이 싫어서 넘어간 게 아니라 말입니다. 왜 넘어갑니까? 그 피가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심판날 심판대 앞에서 피묻은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분이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린 것임을 믿는 것이고 그 피를 몸에 바르는 행위입니다.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양이라고 했으니까 죽을 때가 언제예요? 유월절에 죽죠. 유월절에 죽는 것도 쉽게 된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던 사람들이 '이번 명절에는 말자' 그랬어요. 죽이지 말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괜히 죽이려다 단체로 폭동을 하거나 테모를 하면 입장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했던 말이에요. 그럼에도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에 그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때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으면 뭐 해야 돼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 번 선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한없이 악해질 때에 '도저히 더 이상 안되겠다. 그래서 전부 심판하겠다' 하면서도 결국 노아를 남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홍수로 그렇게 혼이 났으면 반성하고 더 잘 섬겨야 정상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으며 또 반역을 합니다. 언어의 혼란으로 흩어지면서 또 악해져 가는 그 무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자기 민족으로 삼고 키워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좋은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만 하나님께 드릴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해야 할 질문입니다.

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전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 중에 급히 몇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왜 나만 건져냈습니까? 왜 사람을 공평하게 다 건져내지 않고 나만 건져냈습니까? 나만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뛰어 들어가요? 정신을 차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나를 구해준 이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또 다시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받은 복음을 자기들만 간직 하기가 너무나 소중한 다급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사람들이 불쌍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시고 저 사람들은 버려두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전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지 왜 우리는 구원하셨고 그들은 버려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도 사랑도 아닙니다. 배부른 자의 거드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에게 누군가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거든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가면 잘못하면 평생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유명한 어느 가수가 자기 부인과 이혼하면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졌으면 재혼은 안됐죠?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더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은 사랑하면 헤어지는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옛날에 어떤 순경이 일가족을 총으로 쏘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니까 이 분 대답이 ‘사랑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처가에서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사랑합니다’고 한다고 함부로 흥분하거나 감격하지 마세요. 그가 어떤 사랑을 할 것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뭘니까?” 물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순수한 사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으면서 사랑하니까 당연하지 않느냐면서 요구한다면 생각을 좀 해 봐야 합니다.

“이 목숨 다 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거든 “정말 날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죽을 수 있다고 하거든 한 번 죽어 보라고 하세요. 확인하세요. 흥내만 내는 것 가지고는 못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네! 그러면 맞는 모양입니다. 특별히 남녀간에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의 의미는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그 후에 이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원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4절부터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유명한 세족식이라는 거죠. 여기에 식 자를 붙이면 안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발 씻긴다는 것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마는 이스라엘은 맨발로 다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발부터 씻어야죠.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히브리 종들도 하기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겼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종이 높습니까? 주인이 높습니까? 종이 높아요. 짜장면 집 제대로 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지요? 고민 안 해보셨네요. 짜장면 집 제대로 하려면 주방장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주방장이 빠지면 하루아침에 문닫습니다. 요즘은 선생님이 높은지 학생이 높

은지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비위 맞춰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군대 얘기를 가끔 하는데 했던 얘기 또 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작대기 두 개 달고 있던 사무실에 중령, 소령이 한 분씩, 대위가 두 분 있었습니다. 가끔 이마에 별 달린 장군이 문을 쑥 열고 들어옵니다. 구령을 소령이 붙입니다. 군대에서 소령도 하늘 같은 분입니다. 하늘같이 높은 분이 바짝 쫓아서 ‘차렷’ 하거든요. 세상에 작대기 달린 녀석들이 들은 척도 안하고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놀라서 차렷 했지요. 옆에 있던 고참이 “마, 앉아라” 이러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군님은 작대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별달린 사람은 작대기 달린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하지도 않더라구요. 그렇게 높아요. 그 앞에 얼쩡거리지도 말래요.

그런 장군님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정복차림으로 딱 서서 졸병들 오는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보를 나눠줬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장군 한 분이 있으면 교회가 미어 터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줄려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기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황송했을지 이런 군대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가치관이 워낙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 느낌을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할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느냐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했을 텐데 이럴 때 잘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죠. 사고도 많이 치고 나서기도 잘 나서서 점수도 많이 따지만 까먹을 때는 왕창 까먹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면서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말로 상관없다는 것은 그냥 관계가 없다는 뜻이 되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뜻은 ‘주인의 영광이나 주인이 얻은 재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발 한번 내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함께 얻을 수 있다면? 베드로는 시원시원합니다. 죽어도 안된다는 건 인간적인 체면이었는데 이게 그런 의미랄 것 같으면 발만 내미는 게 아니고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들이미는 거죠. 한번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목욕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목욕이 끝난 사람입니다. 늦깎이를 쳐다보는 것만으로 살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욕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혹시 이 고백을 안한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같이 한 번 합시다. 이 한마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너무나 큼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번 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목욕한 사람입니다. 내 능력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백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향해서 “아이고, 저 놈의 속아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성질은 꼭 멧돼지 같이...” 우리 어머니가 잘 하시는 얘깁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우리 이웃사람들에게 ‘야 멋지다’라는 칭찬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칭찬은 못 듣고 늘 시원찮은 소리만 듣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차츰차츰 그 신분에 맞는 행동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해가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해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단지 부족하기 때문에 발은 자주자주 씻어야지요.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내 속이 너무 좁고 비틀어져서 이웃 형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발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부족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인데 그렇게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행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언제 자부심이나 거드름을 피우며 제자들 앞에 품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요 내가 너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빠진 적이 있습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한 번 재 보는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들 말대로 내가 분명히 너희들의 스승이요 너희들의 주(主)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본을 보였다’고 그랬죠? 왜 본을 보였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서 발 씻겨야 된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발 씻기신 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가 너희의 선생이요 주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셨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발을 씻기기 전에 뉘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선생이고 네가 제자다. 이걸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월등히 아는 것도 많고 성질도 낫고 가진 것도 많다. 뒷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알고 행해요? 그냥 발만 씻긴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알고 행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분명히 나은 사람, 내가 분명히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교회 임직식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직분을 받았으면 더 잘 섬겨야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직분을 받고 세웠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집사가 됐다고 일을 더 하고 집사가 안되었다고 안 하냐? 아닙니다. 집사이건 아니건 내가 할 일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집사로 임직되는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대답하려면 어렵습니까?

“내가 집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집사라는 직분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수를 받았건 안 받았건 별로 상관 없잖습니까? 아니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일 하고 나는 권사가 아니니까 안 한다? 당신은 권사니까 이 일 하고 나는 권사가 아니니까 이 일 안 한다?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권사이건 아니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분을 받고 안 받고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임직식을 하면서도 내게 아무런 감동이나 그런 것 별로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직분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하다면 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집사로 세움 받으면 열심히 하고, 집사 아니면 안 할 겁니까? 전도사 때는 설교를 대충대충 하고 목사가 되면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 전도사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죽자고 하고, 목사가 되면 조금 느긋해져도 되는 겁니까?

전도사가 되었건 강도사가 되었건 목사가 되었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직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글썄요, 그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에 있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아멘하고 받아 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잘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혹은 교회가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었고 장로로 세워졌으면 집사, 장로 아닌 성도보다 능력이 더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교회가 나를 세웠다는 말은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능력있고 더 열심이 있음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스승이요 내가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아는 게 더 많고 내가 능력이 더 많고 그래서 세움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보다 능력이 약하고 나보다 약한 형제의 발을 씻기라는 겁니다. “그래, 너는 집사고 나는 장로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 큰소리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 발은 내가 씻겨 줄게.” 이렇게 하라는 얘깁니다.

보통 1부는 제대로 하는데 2부가 말썬이죠. 내가 장로니까 너 입 좀 다물어라. 집사 주제에 뭘 안다고? 이런면 이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닙니다. 집사도 여러 해 되면 호봉 따먹기를 하죠. “야 너 겨우 집사 1호봉 아니냐? 내가 장로가 못 되어서 그렇지 집사로 10호봉이야. 뭐, 집사면 다 같은 집사냐?” 잘 하는 겁니까? 아니 거기까진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10호봉, 넌 1호봉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큰소릴 치고 그 다음에는 1호봉을 섬겨야지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종이라는 얘기에요? 상전이라는 얘기에요? 답이 확실하게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종이라는 얘기에요? 상전이라는 얘기에요? 너희는 앞으로 내가 행한 일을 해야 한다. 발 씻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해야 하느냐? 너희들이 상전이기 때문이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진 자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보내야 할 자면 너희들이 큰 자라는 얘깁니다. 너희가 큰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냄을 받아서 가는 저 사람이 분명히 낮은 자입니다. 너희가 큰 자다. 그걸 알고 낮은 자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높은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기초작업입니다. 덮어 놓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리저 마시란 말입니다. 교회 전체가 투표해서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컷 세워 놓았더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이거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교회가 세운 걸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꺼이 인정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볼 때 늘 부끄럽고 내가 이래서 뭘 하겠느냐 싶어도 교회가 나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능력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낮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시험을 한 번 쳐봅시다. 답지는 여러분 머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발을 씻겨야 할지 머리 속에 한 사람만 정해 두십시오. 채점을 하겠습니다. 모두 손을 조금만 들어 주세요. 머리 속에 그러든 그 사람이, 목사님이면 손을 내리세요, 부모님이라면 내리세요. 다음에, 남편도 내리세요, 아내도 내리세요, 자녀도 내리세요. 지금까지 손을 들고 계시는 분은 어느 정도 정답을 쓰신 셈입니다. 왜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도 그건 그냥 경로사상이지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 발 씻겨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제일 좋은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손을 들고 계신 분은 잘 하셨습니다. 이만큼만 하고 내립시다.

평소에 “저 사람만 생각하면 내 속이 터져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내가 발 씻길 대상 1호입니다. 나는 봐라 속이 딱 트였잖아. 그런데 저건 어떻게 해서 속아지가 저것밖에 안되냐? 그 말은 일단 옳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태도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겨야 되는구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발 씻기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말 안되는 사람도 나름대로 논리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말이 안돼서 그렇지 자기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바보짓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어른스럽고 저 양반은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생각이 어리니까 그렇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넓은 내가, 생각 좁은 저 사람의 발을 씻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는 이야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족식,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족식은 나보다 못한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진정으로 발을 씻기는 것은 발의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때를 벗겨내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불쌍한 영혼 하나가 때를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아만 갈 수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써 보면 아니꼽고 매시꼽고 치사할 때가 한 두 번 아닙니다. 누가 답답한데요? 지옥가면 누가 답답한데요? 자기가 답답지만 죄는 내게 있습니다. 무슨 죄요?

복음을 먼저 받은 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게 죄입니다. 누가 들으면 큰일나겠다 잘못하면 이 단소리 나겠는데요?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약하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의 발을 씻겨야 할 의무가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도 부족함이 많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만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며 자신이 불행한 줄도 모르고 저렇게 깨춤 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깝지만 내가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라는 것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랍니다. 교회 마당이 넓어지고 예배당이 넓어지는 것이 사람에 비한다면 키가 크고 몸이 크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키 크고 몸 크다고 자라는 겁니까? 하나가 더 받침이 되어줘야 하죠. 마음이 자라야 합니다. 어릴 때는 전부 자기 입만 알잖아요? 나이가 좀 들고 커 가면 자기보다 주변 사람들 생각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자제일교회가 마당 넓어지고 교회당 넓어지는 것만 갖고 자랑하면 안됩니다. 이웃 형제를 생각하고 연약한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 가야 이게 진짜 교회가 자라는 겁니다.

마당만 넓어지고 예배당만 커지고 마음은 쪼그라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아니 우리 주변에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생각하고 위해주고 세워주는 일은 못하고 마음은 자꾸 쪼그라들면서 외형만 커지면 결국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세족식에 은혜를 거꾸로 받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 씻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발 씻겨줄 사람?” 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발 씻겨 줄거냐고 찾아다니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봐라 발 씻겨주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 발 씻겨줄 사람” 그렇게 찾아다니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 유언을 남긴 셈입니다. 이게 두 번이나 한 번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두 번째 유언인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제일 먼저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당부를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무감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이웃집 여학생 하나를 모처럼 알게 되더니 용돈이 씨가 마릅니다. 평소엔 달라 하던 용돈 갖고 안되고 늘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잘 한다.” 그러십니까? 앞서 가는 부모님입니다. 여학생 하나를 좋아하더니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가는 등 마는등...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까? 아주 오래 전의 일입니다마는 중학생 아이 둘이 바닷가에서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 옆에 낙서를 해 놓았어요. ‘이승에서 못 이룬 사랑 저승에서 이루자!’ 여러분, 그런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저게 완전히 눈이 멀어도 멀었고 돌아도 단단히 돌아다.”고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건 이것보다 못합니까? 더 합니까? 이걸 더 심한 겁니까.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기 일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우리에게 득이 되니까 감사하고 고맙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만약 하나님께 친구 분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만든 인간, 그것도 사고치고 쫓겨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게 했다면 도대체 뭐라고 하겠어요? 이웃집 아이를 사랑해서 집안 망치고, 집 떠나고, 학교 때려치우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훨씬 더 큰 사고입니다. 그 사고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행복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에 눈 먼 하나님’이라고 말씀 드렸죠? 예수님도 사랑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 없

[2002.10.20] 예수님의 첫 유언 (요한복음 13:1~17)

어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은 못 하지만 조금만이라도 갚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능력이 닿는 한 내 형제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만이라도 나누어 주도록 노력해 봅시다.

칠칠절을 즐거워하라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칠 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 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껍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개역, 신명기 16:9~12]

다 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추수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단을 들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곡식을 들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이 좋은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농사 잘 짓게 해서, 혹은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선이 아니고 “노예 생활하던 그 곳에서 우리를 구해내서 이 좋은 땅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걸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도 같은 내용이겠지만 다른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얼 감사할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얼마나 잘 짓고 그동안 어디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느냐는 것을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은 각종 절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것은 그 해의 첫 수확물을 거둔 날입니다. 첫 수확이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니까 이 날은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 다음에 7주를 계수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곡식을 거둔 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 49일이 지난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49일인데 하루만 더 지나면 50(오순)일이죠. 신약에 와서 바로 이 때에 성령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때는 밀을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칠칠절과 맥추절과 오순절은 시기가 같은 때입니다. 칠칠절이나 맥추절은 의미가 같은 말이죠. 우리 추수감사절과 절기상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좀 있지만 맥추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원리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 혹은 어떤 정신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물을 드리는 마음 3가지를 살펴보고 11절과 12절에 각각 하나씩 추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낼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감사 드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예물을 드리면 안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을 들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물을까요? 부모님 들께 선물을 가져가면 주로 뭐라고 물어요? 귀한 것이라고 가져왔거나 아니면 참 어렵게 선물 하나 챙겨왔는데 가장 나쁜 질문이 뭘까요? ‘뭐하러 이런 거 가져왔노?’ 그것도 좀 나쁩니다. 그보다 더 나쁜 질문은 뭘까요? ‘얼마줬노?’ 그렇죠. 얼마줬노? 굉장히 나쁜 질문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돈을 헤프게 써서 집안에 갖다 놔봐야 소용도 없는 물건을 선물이라고 사오더라도 제발 “이거 뭐하러 사왔냐?” “이거 얼마였노?” 그러지 마세요. 속으로야 맘에 별로 안 들고 이것도 선물이라고 사왔냐 싶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 해야죠. 속으론 안 고마워도, 짜증이 나도 “고맙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정말 나에게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네가 복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내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할 말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처사가 됩니다. 정말 네가 나에게서 무슨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먼저 생각하고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부자시간에 사이가 안 좋은데 아들이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받아들고 “너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느냐?”고 물으면 거짓말도 못하고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아니면, 학기초에 선생님에게 좀 잘 보이려고 엄마가 이것저것 챙겨 가지고 “애야, 이거 선생님 갖다 드려라.” 해서 가져갔는데 선생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 주시면 고마운 선생님입니다. 선물 챙겨갔는데 “잠깐” 하더니 “너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 이거 무서운 질문입니다. 아예 묻지도 않고 “너 평소에 선생님 말씀 잘 안 듣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맨날 입이나 삐죽거리며 돌아서는 주제에 선물은 왜 챙겨왔냐? 도로 갖고 가!”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은 선물 가져온 아이에게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누가 이거 갖다 주라고 했어?” “엄마가요.” “도로 갖다줘.”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들고 갔어요. 집에 가서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 가져오면 그래도 생각을 좀 해 보겠는데 그냥 가져갔어요.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노골적으로 말하죠. “너 그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걸 도로 가져왔어야 하는 거야. 임마.”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 만드는 게 목적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죽넘죽 받으면 고마운 줄 아십시오. 이렇게 따져가면서 선물을 받는 선생님은 제대로 된 선생님이기도 하겠지만 학생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겁나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봉투 하나 들고 왔는데 그냥 넘죽넘죽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서 네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다 했습니다. 다른 집에 비해서 얻은 것도 적습니다. 일년 내내 농사지어 가지고 이거 밖에 안되냐? 짜증스런 맘으로 추수를 마치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내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늘 감사하다고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데 문제가 없죠. 뻘뻘하게 고생해서 이게 뭐냐? 월급봉투를 보면 짜증나고 성질나는 사람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월급 뿐만 아닙니다. 집에서는 부부시간에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이냐?” 하고 투닥거리 놓고 교회와선 하나님께 뭘 감사 드리겠어요? “너 정말 내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에 오늘 아침에 한바탕 하고 왔으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헌금이 온전한 예물이나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만족하기보다 불만족스러운데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만족할 줄 모를까요? 우리 욕심이 많은 게 제일 큰 이유일 겁니다. 티코 타고 다니는 분은 소망이 될까요? 티코 타고 다니는 분의 소망은 마티즈입니다. 걸어 다니는 분의 소망은요? 티코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티코 가지고 얼마간 만족할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티코 타는 사람은 마티즈 타면 만족스러운데... 마티즈 타는 사람은 다 만족할까요? 또, 마티즈 위에 뭐예요? 차 이름을 잘 몰라서..., 그걸 만족스럽게 여기고 10년씩... 10년도 짧아요. 한번 탔다하면 10년 넘어 타되 감사하면서 타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2, 3년마다 차를 바꾸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왜 그렇게 불만족스럽습니까? 욕심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말 타면 종 세우고 싶다’ 그죠? 걸어다니다가 말 타는 것만 해도 어딘데? 말을 타보니까 뭐가 또 필요해요? 종 하나 세워서 말고삐 잡게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사람의 천성인가 봅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들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 욕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을 못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불만을 갖고 불평하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 드릴 사람은 감사에 익숙해야 합니다. 현실은 항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봉급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족할 만큼 많은 봉급을 받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돼요. 누구나 다 그래요.

100만원 받을 때 200만원 받으면 정말 대단할 것 같지만 얼마 지나면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200만원이 300만원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모자라요. 300만원 받는 사람에게 만족하는가 물어보세요? 여전히 모자라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봉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자라는 액수는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감사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풍부하게 주셨다는 것부터 먼저 배우는 훈련이 우리에게겐 필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것은 불평, 불만의 요소보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만족할 만한 것이, 감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불평, 불만보다 만족하고 감사할 게 더 많을 겁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많이 찾아놓은 다음에 그 제물들을 보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내가 네게 복을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하나님 정말 그러합니다라고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미 옛날 일이 되어버린 ‘출애굽’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농사지어 얻은 소득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서 이 땅에 이르게 하셨고 이 젓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추수감사절 지내는데 왜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무엇이었다고요? 종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어렵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느냐를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언제요? 추수를 다 하고 즐거운 날에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를 기억하란 뜻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곡식에 대한 감사보다 더 큰 감사는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사실을 추수한 곡식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에서 부대장을 잘 만나면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부대장을 잘못 만나면 질병들이 고생합니다. 부대장의 힘이 세면 다른 데서 감사가 오거나 뭐가 오거나 별로 괴롭지 않습니다. 부대장이 힘이 없으면 무슨 감사 땀도 하면 온통 다 찍히는데 고생은 말단 사병들이 합니다. 부대장 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직장에서 상사를 잘 만나면요?윗사람을 잘 만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좋은 목사님을 만난 건 행복한 거예요? 권사님들 몇 분만 행복하고 뒤에 계신 분들은 뭐 별로란 말이죠? 교회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어려워서 고민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고생하던 사람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완전히 뽕 갑니다. 죽을동 살동 열심히 일하죠.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남편을 잘 만나면 그 남편을 위해서 평생 종노릇해도 괜찮습니까? 한 두어 분 있네요. 아내를 잘 만나면 아내를 위해서 평생 손발이 닳도록 일해도 즐겁습니까? 한 분 계시네요. 예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변했어요. 풍수같은 아내도 많았고 팔불출같은 남편도 많았는데 그 사이에 많이 점잖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를 잘 만나도, 아니면 목사님을 잘 만나고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절이 될 때마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 사실에 몸둘 바를 모르는 감격을 누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보다 하나님이 더 듣고 싶어하시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걸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을 늘 찾아야 합니다.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도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다는 분을 위해서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절의 어느 대목이겠는가 잘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죽어도 난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구절 다 제외하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태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앞에서 드린 감사보다 약간 격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라도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애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라든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고 여겨지시는 분은 이 구절이라도 기억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첫째 조건이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10절로 갑니다 **‘복을 주신대로’** 다음에 **‘네 힘을 헤아려...’** 라고 말씀하시죠? ‘힘을 헤아려...’ 이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느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네 능력을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여기에 힘이라는 게 다른 힘이 아니라 예물 드릴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 힘이란 게 뭐겠어요? 내가 얻은 소득이 얼마고 내가 지출해야 되는 것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예물을 드려도 되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헤아려 보라고 말씀합니다.

헌금은 많이 하는 게 최고 아니에요? 집에 앉아서 열심히 계산을 해가면서 내 재정능력이 어느 정도냐를 따져가면서 헌금을 하면 어딘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부끄럽다고 여겨지면 계산도 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갖다 바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네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예물 뿐만 아니라 다른 능력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가끔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 하시는 분 있죠. 좀 빠져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나서는 분도 말리기가 어렵습니다. 과대평가도 문제지만 “내게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능력도 없고 내가 이래서 뭐하겠냐” 해서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리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너무 나서지도 마시고 못한다고 너무 뒤로 물러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조금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당신에게 맞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조금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눈치가 보이면, 내 능력은 이만한 게 아닌가보다 싶으면 조금 물러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내가 뭐 할 줄 압니까?” 하고 너무 뒤로 물러나지도 마십시오.

저는 이 교회 전도사로 와서 기가 많이 살았습니다. 내가 무슨 목회를 하고 내가 무슨 목사를 한다는 말이나 하고 몸을 사린지가 20년인지 30년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전도사로 부임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설교하러 왔을 때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아십니까? 내 주제에 무슨 설교를 하나? 저 별난 이 집사가 자꾸 오라고 하니가 가서 모처럼 쌓인 한이나 좀 풀자.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신학 공부도 안 한 게 뭐 자꾸 헛소리 하나?”고 해서 입을 좀 다물고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라고 하니 잘 됐다 싶어서 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갔는데 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한 시간이 넘도록 횡설수설하는 설교를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가 얼마나 살았는지 아십니까? 반응이 이럴 줄 진작 알았으면 신학교 좀 더 일찍 갔죠. 남이야 뭐라 하든지 간에 못한다고 너무 버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소평가입니다. 할 만한 사람이 못한다고 너무 뒤로 물러나 있는 것, 이것도 조금은 잘못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제서야 가지게 됐다는 얘깁니다.

평가를 자기 혼자 내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은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액수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안됩니다. 그 말은 무조건 많이 하는 헌금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다 이런 생각을 철저히 버리란 뜻입니다.

또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헌금을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런 말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부흥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울고불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없는 그 때에 "자 헌금합시다." 하면 많이 하게 될까요 적게 할까요? 제 정신 아니죠. 그게 제 정신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입니까? 이거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정신없이 즉흥적으로 함부로 막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헤아려...** 라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었으면 이 감격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혼자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림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 혼자서는 아니죠? 누구예요? 최소한 두 사람이잖아요. 의논 정도는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금액을 헌금해야 할 경우에 내가 감동이 되어서 거액의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부인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서 나 혼자 만이라도 살림이 휘청휘청 할건데 부인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그렇게 실수한 사람이 사사기에 입다란 사람이 있죠. 앞 뒤 재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만 하신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무남독녀 외동딸이 나왔단 얘깁니다. 그 얘기를 사사기에 공연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할 때도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가면서 해야 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 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야 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해도 정말 기쁘고 감격이 넘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 다 내놓고 전부 공동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재산이 아까워서 깎깎깎 하는 분은 결국은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바엔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능력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능력을 헤아려 가면서 드리라고 하시는데 가끔은 자기 생활하는 데도 능력 헤아리지 않고 사는 사람 있어요. 자기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마구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하다고 카드 열심히 긁어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살림 자체가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고 하는데 자기 살림 살면서 자기의 능력을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을 헤아릴 때에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웃들의 능력과 비교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이라든가 약한 교회라든가 내가 떠나온 고향에 있는 연약한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잘 살펴보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뭐예요?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기관들을 감시하는 민간 단체들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 여러 단체들을 조직해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부나 아니면 어떤 대기업의 지원을 받으면 그건 곧 부패해 버립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이런 단체들을 육성하고 키워야 하는데 대부분의 단체들이 시민들의 기부금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합니다.

각종 선교단체요?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오로지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금에 의해서 선교단체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밥

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이 병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무슨 병원이더라? 천사병원 맞습니다. 왜 천사 병원이에요? 1,004 명이 일인당 백만원이던가요? 백만원씩 현금하시는 분 1,004명을 모집해서 그 돈을 가지고 무료병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는 파트타임으로 합니다. 자기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가를 내서 그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만 무료로 진료하는 병원을 세웠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건물만 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후원금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네 힘을 헤아린다는 것이 우리 수입이 얼마고 한달에 얼마 지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가정만 살필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기관이 있느냐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네 힘을 헤아려 보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린다면, 호스피스 병원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 병원과 천사병원이 비슷해요. 죽어가고 있는 말기 암 환자 같은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돌보아 줄 시설이 없어요. 그 병원도 역시 개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정말 작은 액수들을 모아서 병원 짓고 그들을 돌보겠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우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 가져야 할 분야가 너무 많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끼고 절제하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이런 일에 힘을 쓰는 그것이 우리 힘을 헤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힘을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남을 위해서, 어느 정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따져보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이런 사고방식은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것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내 능력을 헤아려 본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능력을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절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네게 복을 주신대로 네 힘을 헤아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강압적으로 드리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돈에 욕심 많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 것은 별 흥미 없고 오로지 돈만 밝힌다 하면 선생에게 할 수 있는 더 큰 욕이 있을까요? 차라리 수업 빼먹고 게으름 부리는 선생이라면... 그래도 좀... 이것도 나쁘긴 나쁘죠. '애는 잘 가르치는 거 같은데 저 선생님은 돈만 밝힌다?' 이걸 정말 나쁜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바꾸어봅시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데 관심없고 돈만 밝힌다." 돈 밝히는 목사님이라면 어때요? 아니, 목사님을 욕할 때 이것보다 더 심한 욕이 있을까요? 그런데 자원해서가 아니고 별로 맘에 내키진 않는데 안 내면 별반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드러야지 하고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돈만 밝히는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엄청나게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두둑한 봉투와 마음이 잔뜩 담긴 잡동사니 선물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아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지금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잔뜩 들었지만 받아 놓아 봐야 쓸데없는 잡동사니 선물과 마음은 없지만 두둑한 봉투하고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잡동사니? 현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요.

스승의 날이라고 손바닥만한 카드에 "선생님 사랑합니다. 어찌고 저찌고..." 하는 글을 써서 코팅을 해서 50장을 꿰매서 들고 온 겁니다. 보는 순간에 "또 머리 아프게 생겼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쓴 아이도 있고 마지못해 쓴 아이도 있어요. "버릴 수도 없고 팔기도 못하고..." 속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대뜸 하는

소리가 “정말 고맙다” 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입듯이 몸에 두르고 학교를 한바퀴 도는 거예요. 완전히 쇼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처리하기 참 곤란해요. 버릴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나름대로 정성으로 표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해 줘야 돼요. 선생님이 그걸 두르고 학교 한바퀴 돌아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귀찮은 것들 왜 가져왔냐? 하고 치워버리고 봉투나 좀 챙겨오지... 이쯤 되면 선생님도 거의... 맛이 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예물을 드릴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현찰로 감동시키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현찰로 감동시켜 보리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한가요? 마음을 드려야죠. 자원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 다 드리는 감사가 되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받으실 예물이니 우리가 어떻게 현찰, 재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건 너무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행동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별로 없는 분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별 감사할 제목도 없는데 남 따라서 찬송, 기도, 헌금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배우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별 감사할 제목이 없다 싶으면 우선 성경말씀부터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노력하시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제목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곡이 하나 나올 겁니다. 저 곡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곡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여호와와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주 여호와와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주 여호와와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휘파람을 불고 싶고 어깨춤이 덩실덩실 날 것 같은 노래죠? 얼마나 신나는 곡인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저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저 노래 가사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테지만 잘 모르시면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상황에서 저 휘파람이 나올듯한 저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이 가사의 앞부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떤 상황에서 저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현대적인 상황으로 바꾸어 본다면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평생 모은 돈으로 목장 하나 만들어서 잘 해볼 거라고 했는데 수해에 깨끗이 날려 버렸습니다. 그 상황과 하박국이 노래 부르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게 남아 있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이 찬송을 부르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 바로 뒤에 이 가사가 붙어있는 겁니다. 웅기장이라는 친구들이 부른 노래 중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경쾌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드립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새벽기도를 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자기 형편을 잘 살피 가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아닙니다. 나로 인해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감사절을 지켜라가 아니라 ‘감사절을 즐거워하라, 나로 인하여!’ 이것이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또 다른 고려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요약하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드리는 자신은 물론이겠지만 다른 모든 형제, 자매, 이웃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 혼자 헌금도 잘 하고 칭찬도 듣는데 종업원들이 불평하면 제대로 된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남의 빛도 제대로 갚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제대로 된 예물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면 좋은 것을 즐겨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도 큰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마이카 시대에 접어들면서 너도 나도 차를 사기 시작하던 때에 어느 유명한 교수가 "내가 차를 타고 다니면 부러워할 사람이 많다."면서 거절한 이야기를 저는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형제, 자매는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중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12). 중 되었던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추수한 곡식을 앞에 두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 때는 죽자고 일해봐야 자기 것이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힘써 농사지어서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할 수 있고 일한 결과를 자신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복입니다.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통털어 서민이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은 현대 뿐이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자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점심입니다. 점심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이 없습니다. 한자를 빌려서 표현하는 것이지요. 점심이란 순우리말이 없다는 것은 과거 우리 조상에게는 점심이 따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점심이라고 글을 만들었어도 그냥 마음에 점 하나 찍는 것(點心)으로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셋 중에 순우리말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來日입니다. 내일의 순우리말이 없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에겐 내일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 날 하루 먹고살기에 급급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루 세끼를 거르지 않고 먹으며 내일을 위해 저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것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취직 걱정, 장가갈 걱정, 교회의 앞날 걱정, 굶주렸던 시절, 집 없던 서러움을 잊지 말고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며 감사제목을 찾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9장, '크신 복을 세어 보아라' 함께 부릅시다.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개역, 누가복음 19:1-10]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선물을 간단히 말하면 뭐가 될까요? 황재랍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제목을 '삭개오의 황재'라고 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이 일은 황재가 틀림없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상품은 별로 크진 않죠?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돼서 성경퀴즈대회를 하는데 1등 상이 꽤 컸어요. 대형선풍기였거든요. 우리교회는 상이 굉장히 크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게 일등 상이 아니었습니다. 상품 사려고 메가마켓에 갔다가 영수증이 경품 추첨에 걸려서 대형선풍기 하나가 따라 온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었지만 결국 1등 상품이 대형선풍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지요. 그 때 물건 사러 갔던 분 누구예요? 원용대 집사님이시지요? 앞으로 퀴즈대회 있거들랑 상품은 전부 원용대 집사님더러 사오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황재 축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바랄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황재라고 하려면 한꺼번에 40억 복권에 당첨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IMF 이후에 고생하면서 단칸방에 가난하게 살던 젊은 사람이 복권에 40억 당첨이 됐답니다. 누가 그걸 보더니 "아 너무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세금을 10억 가까이 떼어버렸네" 하더라고요. "40억에 10억을 떼고 30억의 절반만 쥐도 좋겠다 그런 소리하지 마라." 고생하던 사람이 그 정도 복권 당첨이면 황재라고 할만합니까? 반응이 시원찮은 것을 보면 통이 큰 건지 아니면 30억이 감이 안 잡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황재 중의 황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황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불쌍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황재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대단한 황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저 준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공짜로 받은 겁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고 샅을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 받은 봉급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더러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얘기거든요. 공짜데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두들기고 해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요 공짜로 주어진 것이고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찾으라, 구하라, 노력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문제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을 봅시다.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내려 오셔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엔 뭘하러 가시나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들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지나가시려는데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란 말은 히브리어 '차카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차카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름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일제 시대에 일본 순사들 앞잡이 노릇했던 한국인들이 세리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리장이었으니까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예리고라는 곳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목이 좋은 곳입니다. 예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 세리장은 세리장 중에서도 상당히 요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부자가 된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였으니까 으레껏 토색, 즉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아서 일부를 상납하고 일부를 착복해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삭개오의 말과 연결이 안됩니다.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산의 절반만 남는데 삭개오의 재산이 전부 토색해서 빼앗은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의 4배를 갚을 재간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 전부를 가지고도 4배를 못 갚을 건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떼어주고 남은 것으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재산이 그렇게 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삭개오가 완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삭개오의 특징 중의 하나는 키가 작은 겁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사람에게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키가 너무 작으면 곤란하겠지만 키 작은 사람들이 다부지다는 인상을 줍니다. 한국의 토종밤도 조그마한 것이 단단하고 맛이 좋아요. 키 크고 희멀건 사람이 많잖아요. 작은 사람은 야물고 다부진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키 크고 싱거운 사람보다 작지만 단단한 사람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키가 작음에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 그 자체만으로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키 작으면서 다부진 것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있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감찬 장군도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삭개오도 키는 작았지만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한 번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고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아, 미리 앞질러 가서 나무에 올라가면 볼 수 있겠구나,”란 생각을 합니다. 명색이 세리장입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는 그가 작달만한 키에 많은 무리를 헤집고 빠져나가서 앞으로 달려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체면을 생각하면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달려갔습니다. 지위를 생각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7절에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라고 말하죠. 일반적인 평가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세리장이요, 재산도 많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삭개오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지만 죄인이라고 따돌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그 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밖에 안 하셨는데 삭개오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한 마디 말씀에 삭개오가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뭘까요? 삭개오가 어디에 놀랐을 것 같습니까? 삭개오는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살고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내가 비록 이러고 있지만은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무언가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뵈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의 소원은 예수님을 한 번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한번이라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에게 오시더니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거기서 뭐하느냐?” 아니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마디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충격을 줬을까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수가성 여인은 예수

님을 메시아로 혹은 위대한 선생님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이 변화죠? “네 남편을 데려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이 말씀에 이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해 버립니다. 자신을 알 리가 없는 그 분이 자신을 보고 ‘삭개오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변해버렸을 겁니다. 삭개오를 감동시킨 것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면 삭개오의 집에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왕따보다 더 심합니다.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에게 위대한 선생님이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 어느 정도 충격을 줬는지 우리로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나름대로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삭개오의 생애에 있어서 목표는 돈과 지위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을 테고 또 세리장이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지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다니...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벌어야 합니다.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써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입니다.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벌어야 합니다. 지위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 있으면 최대한 올라가야 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지위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없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도 훨씬 유용합니다. 돈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개인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수중에 들어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수중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오히려 유용합니다. 그래서 벌 수 있다면 최대한 벌어야 하고 지위도 올라갈 수 있는 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과 지위란 것이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면 충족이 되더라도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없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채워지고 나면 힘이 없는 것이 돈과 지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저 집 같으면 걱정없이 참 잘 살겠다.” 싶은 사람 있거든 어떻게든지 알아보십시오.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옛날에 마누라 자랑하면서 총각들 잘 놀리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냈던 분이데 하루는 제가 못된 소리를 했죠. “선생님, 벌써 연세가 5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사모님 자랑하면서 총각들 놀리시지만 사모님이 총각들 놀리는 경우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죠?” 이 선생님이 멍하니 쳐다보더니만 다시는 안 놀려요. 제가 그 집을 잘 알거든요. 이 분이 밖에 나와서 총각들 놀리면서 사모님에 대해서 이리쿵 저리쿵 하지만 두 분 사이가 그렇게 다정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 잘못했다고 벌을 많이 서는 분입니다. 그런데 총각들 앞에서는 얼마나 빠기는지 몰라요.

결혼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게 얼마나 갑니까? 결혼할 때보다 10년 20년 흐른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것이 정상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고 몇 해 지나면 미혼자에게 으시대는 일 외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돈이나 지위란 것이 없는 사람에겐 대단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가진 사람에게는 별로 위력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을 위한 기초로서 돈이나 지위는 튼튼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하십시오. 좋은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애 목표였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

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는 선언입니다.

삭개오가 원했던 것은 저 유명한 선생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자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뛰어갔고 체면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건 뭘니까?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 한 번 보기를 원했던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걸 결코 황재같지 않죠? 차라리 복권 40억 당첨되는 건 황재 같은데 이걸 별로 황재 같지 않죠? 아닙니다. 이걸 놀라운 황재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삭개오가 받은 구원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뛰어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고 뛰어간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여리고를 통과해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가시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러 가겠다고 뛰어간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한 번 보거나 해야겠다고 뛰어갔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이 삭개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처음 나올 때 뭘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나올 때에도 혹시 내가 교회 가면 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얼떨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바랬던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나오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알고 보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복이 정말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로 나왔건, 예수를 만나러 나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복을 장차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한나가 울며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달라는 거였죠. 아들을 달라고 울며불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울며불며 기도했던 그녀가 나중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얻고 난 다음에 하는 그 기도를 꼭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울고불고 했던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놀라운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사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사든지 낮추사든지 죽이사든지 살리사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한나가 기도한 것은 아들 달라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럼 아들 하나 얻었으면 그 아들을 안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하고 감사헌금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한나는 아들을 얻었지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들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매달렸던 그녀가 얻은 것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따라 오라 할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이걸 버리면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따라갔습니다.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소망했던 것이 깨끗이 무너지는 듯했는데 얼마 후에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불쌍해요. 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순교했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왔습니다. 불쌍하지요?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거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죽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죽었어도 그것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한 행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만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남이 모릅니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하며 살았음에도 남에게 비할 수 없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체포되어 묶였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빼고,” 뭐요? 나의 묶인 것만 빼고, “모두가 나와 갇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제자들이 불쌍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얻어서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도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삭개오에게 찾아온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쁨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황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분이 하루벌이라도 하려고 새벽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은 먼저 팔려가고 아무도 그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점심 때를 넘습니다. 오후가 넘어갑니다. 오늘 일당이라도 벌어가야 식구들이 밥을 먹을텐데... 벌써 해는 넘어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 때 웬 사장님이 나타나셔서 지금이라도 일하러 갈테냐? 그래서 따라갑니다. 일은 한 시간밖에 못했어요. 한 시간 해봐야 얼마 주겠냐 싶은 심정으로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일을 마칠 때 사장님이 일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공사관에 일당 얼마 주나요? 한 오만원 줍니까? 그런데 자기를 먼저 부르더니 오만원 일당을 준 겁니다. 이게 황제입니다. 이런 사장님 보셨어요? 이런 사장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 일꾼을 못 구합니다. 아침 일찍 가도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오후 늦게 나오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도저히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은 원래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이 구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삭개오가 한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한 번 보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한번 보려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을 주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 참 성격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안 그래요. 전 줄서는 것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줄이 길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뭐 저렇게 서? 줄 안 섭니다. 줄이 길면 아예 밥 먹을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한 번 볼까 싶은데 사람이 많네? 그럼 말지, 뭐 꼭 봐야 되나? 이런 제게 예수님께서 일찍이 찾아오셔서 일찍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상황이 삭개오의 처지 같았으면 저는 예수님을 못 봤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놀라운 복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라는 이 말씀은 구하고 두드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구요? 그러면 천국은 굉장히 약한 곳이네요? 쳐들어가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다면 천국은 굉장히 허약한 곳 아닙니까? 천국이 허약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줄까 하는데, 침노하는 품이라도 잡는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워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입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입 안 여는데 벌리고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입 벌렸기 때문에 가득 찬 거죠? 아니요!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입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흥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누구의 능력이죠? 흥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어요? 모세는 뭐했어요? 소리질렀어요? 막대기 가지고 쳤어요? 나중에 본문을 잘 보십시오. 흥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내밀었는지 저렇게 내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좌우간 손을 내민 것은 모세입니다. 손을 안 내밀어도 흥해가 갈라졌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모세가 손을 흥해 위로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흥해가 갈라지리라는 거예요. 흥해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스 겁니다. 어떨 때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비록 늦게 되었지만 먼저 되리라고 믿고 노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훨씬 먼저 믿은 부인보다 앞섰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 된 자가 어떻게 먼저 됩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나중 된 자에게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늦게 된 것 때문도 아니고, 내 노력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게 갈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기 때문에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제게 더 갈급함이 있습니다. 자기만 열심인가요? 먼저 된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잘 모르고 전도사님을 추월하겠다는 것은 과욕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 행복합니다. 절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늦게 한 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다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오늘 우리 식구들 다 굶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던 그에게 일당이 다 주어졌습니다. 이걸 받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누가 고마웠을까요? 주인님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데 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나마 그 일당을 받게 된 것은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종일 장터에서 기다렸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나마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출석하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이 그나마 내가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냐? 설령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셔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노력에 비해서 주어진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 아니냐?” 삭개오는 결단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삶이 크게 변해 버렸습니다. 정말 크게 변했습니다. 어찌면 돈이 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목표였을텐데 그것을 절반씩이나 잘라내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씩이나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재산이 참 많았습니까? 그렇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삭개오가 진짜 부자인지 아세요?

용흥동 우방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그리로 이사가는 것이 꿈이던 시절에 제 친구가 우유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돈깨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집집마다 우유먹으라고 권했는데 우유 못 먹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우유도 하나 못 먹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집 사는데 돈 다 넣어버리고 지금 우유 먹을 형편이 안돼요.”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그 아파트 사는데 다 넣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부금 갚아야죠, 이자 갚아야죠. 우유도 못 먹는 거예요. 하, 세상에 별일 다 있다. 그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니에요. 우유도 제대로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부자인지? 좋은 집과 많은 땅을 지니고 우유도 못 먹는 사람? 부자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부동산 부자는 차라리 가난합니다. 부동산 부자는 땅을 많이 가져서 재산은 수억인데 쓸 돈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세금도 못 내서 땅을 잘라서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가 부자인지?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재산이 많았지만 움켜쥐고 앉아 있을 때는 부자가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을 때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게 부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수십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지 못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꽃동네에 현금을 했대요. 얼마요? 천원? 계속 보낸 것도 아니고 한 번 보냈나요? 거기 에다 가면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천원이 뭐예요? 천원이!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삭개오의 가치관이 변해버린 겁니다. 날마다 돈, 돈 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행복이 빌려오니까 돈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현금을 많이 하고 또 재산을 많이 떼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깝거든 주지 마세요. 아까운 돈 자꾸 나누어주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아깝거든 남을 위해서 많이 쓰지 마세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더러 누가 내 놓으라고 해서 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고 나니까 저절로 그러고 싶더라는 얘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좋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그렇게 죽으라고 그래서 죽었나요? 자원일까요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자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 길을 갔습니다. 사도바울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학력, 재력, 남에게 결코 밀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누리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보니까 버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는 행복은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돈을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소중한 것이며 복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대답은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으러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열심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찾지 않으면 그 열심이 아

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찾아오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일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갈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
 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
 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망케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밭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겔
 을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곁테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
 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
 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
 나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굶은 베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
 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의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
 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
 아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의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개역, 아모스 8:1-14]

제가 아는 분 중에 실력은 참 좋은데 면허증이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치과 기공 일을 하셨는데 일은 잘 하시나 봐요. 면허증 없이 집에서 기구를 차려 놓고 일을 하셨는데 누가 신고하면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말다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분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을 치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과 달리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요.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면허증이 없으니까 하기만 하면 불법 의료행위에 걸려드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실력은 있고 기술은 있지만 허거나 면허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원래 면허증 없이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면허증이 없다는 생각을 전혀 해 본 적도 없었고, 주일학교 교사로 혹은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을 뿐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좋은 일이었으니까 열심히 했죠. 성경 가르치는 데도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했고 재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면허증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까?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성경 가르치는 것이라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마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해 주는 것도 엄연히 성경공부입니다. 그거 면허증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면허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면허증이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국 사회가 간판을 중시하는 사회라서 이왕에 열심히 하려면 면허를 따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는 분이 있어서 면허를 따기 위해서 신학교로 간 셈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면허증도 없는 전도사한테 설교도 듣고 성경공부 한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던 셈입니다. 면허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도를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 때부터 '강도사'라고 부릅니다. 전도사는 임시로 붙여 놓은 이름입니다. 학생일 뿐이에요. 자격이 있고 없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중요한 면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배운 걸 잘 익혀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격을 논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자격의 문제로 방해받는 아주 불합리한 일이 있었던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교회에서 제게 힘을 많이 북돋워 주셨고 부족하나마 전도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격증도 없이 하던 일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전체나 이 세대 전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까운 제 주변을 돌아보면 분명히 이 시대가 말씀이 갈한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텔레비전이나 서적을 통해서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더군요. 가히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분명히 말씀의 기갈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홍수가 쏟아져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홍수같이 많은 말씀이 쏟아져도 마실 수 없는 물이라면 마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마셔 놓고 보니까 그게 물이 아니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을까요? 참 묘하지만 바닷물은 우리의 갈증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목이 갈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마셔도, 마셔도 갈함이 해결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모래 사막 가운데서 신기루 현상을 보고 물이라고 퍼 마시고 죽은 사람들이 가끔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 뱃속에는 물이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가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물인 줄 알고 모래를 먹었죠.

12절을 봅시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물을 얻기 위해서 뛰어다녀도 결국 물을 얻지 못하는 시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의 기갈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치게 된 시대를 간단하게 정돈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여러 이민족에게 침입을 당하다가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 것이 다윗 시대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이 나타나서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고 솔로몬이 막대한 부를 누립니다. 이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그 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약해지고 흔들리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남쪽 유다에는 웃시야 왕이 등장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해서 이 두 왕이 나라를 강하게 키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제 2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주변을 전부 점령해서 다윗 시대만큼 영역을 확보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도 튼튼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던 시대였지만, 문제는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늘 외쳤던 우상숭배나 종교적인 죄보다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자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한 것입니다. 왜 선지자가 종교적인 문제를 접어두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많이 했을까요? 대답이 묘하지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죄가 많을까요? 잘 사는 나라에서 죄가 많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죄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작은 죄를 짓습니다. 부자들은 죄를 지으면 크게 짓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열중하는 그들에게 아모스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것입니다.

복을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 복은 복이지만 복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건 오히려 불행입니다. 오히려 죄가 더 커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도저히 복을 받을만한 사람이 아닌

데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잔칫날 잡으려고 살찌우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복 받을 일이 없는데 복을 많이 누린다면 그만큼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시겠어요? 아니면 늘 가난하게 사시겠어요? 잘 살게 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 십일조 하기가 쉽습니까? 적게 벌 때가 쉽습니까? 많이 안 벌어서 모르겠다고요? 많이 벌어서, 십일조 많이 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봉급이 적으면 십일조 하기 쉬운데 수입이 많아지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득을 늘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죄지를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유는 약방의 감초같이 이런 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참 잘했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하더라. 그래서 두들겨 맞고 왕창 말아먹었는데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더라.” 이런 얘기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과정을 꼭 밟아야 합니까?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후 퇴보한 적은 한번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주시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이런 간증이 진짜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은 아무도 안 하시더군요. 우리 교회 간증은 전부 그런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봉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기쁨으로 십일조를 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에 아모스가 왜 이렇게 불의한 사회가 되어가느냐고 책망을 하는데 잘 산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겠다.”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면 잘못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사는 것은 부자처럼 신앙은 나사로처럼!’ 안될 것 같습니까? 뭘입니다! 정말 부자면서 신앙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목표를 거기에 두면 그렇게 닦아 가는데 늘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니 나사로의 신앙만 본받으면 좋은데 거꾸로 신앙은 부자를 닦고 사는 건 거지를 닦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의 책망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살면 잘 사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셨다’고 말씀하시고선 여름실과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우리나라 약품회사 중에 종근당이라는 회사가 있죠? 종근당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목사님이 생각나요? 종근당이 목사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름이 ‘종근’이러서요? 언젠가 목사님과 같이 가면서 종근당 얘기를 했다가 야단맞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요. 목사님과 종근당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종근당 얘기를 하면 목사님 생각이 나요?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름실과’와 다음에 나오는 ‘끝나는 단어가 히브리말로로는 발음이 같아요.

우리교회 성도들은 종근당 얘기하면 약보다는 목사님부터 먼저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실과’ 하면 ‘아하 끝이 났구나’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줬다는 말은 ‘끝났다’는 얘깁니다. 뭘이 끝났어요? 3절에 궁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뭘로 변했다고요? 애곡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궁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면 어떤 노래였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풍악이겠죠. 즐거운 잔치 소리겠지만 그것이 다 끝났다는 얘깁니다. 잔치 소리가 끝나면 남은 것은 애곡 뿐입니다.

임박한 심판 날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고 말합니다. 시체를 내다 버리는데 왜 잠잠히 내다 버려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요. 한 두 사람 죽으면 울어도 보고 슬퍼도 해 보겠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죽으니까 아예 죽은 사람 갖다 내버리는 게 일상사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고 슬퍼할 일도 못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멸망

이 다가올 것이나를 잘 말하여 줍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끝이 임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5절을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가서 우리로 곡식을 내게 하며** 이 말은 이 놈의 월삭 때문에 곡식을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하니** 안식일 때문에 장사 못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는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생각보다는 “이거 빨리 지나가서 돈을 벌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드리는 것 제끼고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못 벌까요? 못 벌어요? 장사를 그 만큼 더 하고 일을 그 만큼 더 하는데도 못 벌까요? 못 벌 수도 있지만 대체로 더 벌 수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시겠어요? 더 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벌어도 누리지는 못합니다. ‘버는 것 따로 새는 것 따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벌었다 한들 그게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봐야 끝이 곧 올텐데... 노력하고 애쓰느라고 돈을 버는 재미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 중에 주일에 근무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런 경우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주일 낮에 근무하시고 밤에 만나면 “집사님 수고하셨죠?” 하고 인사하는데 “예배도 안 오고 제가 무슨 수고했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마음 씀씀이가 전혀 다릅니다. “이 놈의 주일 때문에 맨날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돈도 못 벌겠고...” 이런 식이기에 이들이 책망 받는 것이지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하는 것과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장사하는 사람이 속이지 않고 돈 벌기 어렵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속이지 않고 돈을 벌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쳐야 할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 속이면 참기름을 강조하려고 이름 앞에 많이 붙죠? 참기름 자체가 ‘참’ 기름이잖아요. 그 앞에 ‘순’ 참기름만 해도 이상한데, 하나 더 붙여요. 순 진짜 참기름. 또 붙이는 말 있죠? 순 진짜 100% 국산 참기름. 옛날에는 국산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넣어야 되는가 봐요. 이런 현상이 믿지 못하는, 속이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생기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6절에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켈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라는 이 말씀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의 약점을 잡아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전에 언젠가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십대를 만석꾼으로 지냈다는 경주 최부자집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가령,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않는다’ 재산이 있다고 권력까지 탐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파장의 물건을 사지 않는다’ 파장에 물건을 사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잣집의 원칙이 파장에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일찍 가서 제 값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누굴 생각하는 거죠? 좋은 물건 사려고?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파장에 떨이를 하고 가야 하는 아쉬운 그 시각에 가서 헐값으로 살 것이 아니라 돈 있는 내가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얘깁니다.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흉년에 땅을 사지 않는다’ 흉년에 땅 사면 이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때는 땅을 사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누굴 위한 겁니까? 여전히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십대를 만석꾼으로 지냈는데, 말이 좋아서 십대지 십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를 40년 잡아도 400년 아납니까? 조선시대 전체 기간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동안 만석꾼으로 지냈다는 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훈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이렇게 착취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과의 관계도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곳에는 인간의 존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너희들에게 끝이 이르렀다. 심판의 이야기가 8절부터 계속 됩니다.

8, 9절을 봅시다.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땅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땅이 솟아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하수같이? 나일강은 일년에 정기적으로 강물이 불어 올라서 범람합니다. 온 천지를 뒤덮을 듯이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물이 차츰 차츰 낮아지면 낮아진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할 때 무섭도록 차오르듯이 땅이 그렇게 뛰노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그 날에 해로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해는 대낮에 밝아야 하는데 대낮에 캄캄해진다는 얘깁니다. 땅이 뛰노는 것이나 백주에 캄캄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왜 하나님 스스로 어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반칙을 하십니까? 누가 먼저 반칙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반칙을 심하게 하니깐 그렇다면 너희도 반칙을 당해봐라. 하나님께서도 반칙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10절을 보시면 절기가 변해서 애통이 되고 노래가 변해서 애곡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11절에 등장합니다.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 어찌면 천지개벽보다 더 무섭고 IMF보다 더 무서울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까? 그것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심판이 내리고 재앙이 떨어지지만, 심판이 내리고 재앙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고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다가 중세에 접어들면서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말씀이 없습니다. 설교도 없어지고 성경 읽기도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신부가 앞에서 예배 진행하는 걸 구경만 합니다. 심지어 자기나라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틴어로 합니다.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져 버린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회복시켜 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빼앗겨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는지 꼭 한 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돌려준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 삶 속에서 살아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일에 교회에 들고 오는 데만 사용합니까? 빈 손으로 오시는 분도 있으니 그나마 감사해야 하나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돌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게서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어찌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려지는 듯 한데 의외로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설교라고 말하기 곤란한 설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있죠?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가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새겨두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찬양이 풍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찬양하는 데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찬양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언젠가 탈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없이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할머니가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평소에 해나 달을 쳐다보며 했던 그 소리 그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분에게는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그만큼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하고 담뱃은 사람에게 “무슨 운동하느냐?”고 물으면 하는 대답 있죠? 숨쉬기 운동이지요. 아니, 숨쉬기 운동도 운동입니까? 숨쉬기도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에게는 운동이 돼요. 단전호흡이라고 그러던가요? 단전호흡으로 건강지킨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운동이 된답니다. 여러분, 탁구가 운동이 됩니까? 잘 못치는 사람은 운동이 안됩니다. 그런데 좀 치는 사람은 탁구 치면서도 숨이 차서 헉헉거리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모르니까 운동이 안되는 것이지 알면 숨쉬기도 운동이 되고 탁구도 운동이 됩니다. 그만큼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고 힘들고 그래요? 모를 때는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무 것도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 되냐구요? 알면 운동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굉장한 기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공식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배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히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말씀을 듣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빠뜨릴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빠질 수 없지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효자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혹시 빠지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장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공부 모임을 많이 만드십시오. 시간이 되지만 하면 어디든지 가렵니다. 이번 주부터 벌써 시작한 팀도 있고 준비 중인 팀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남자들입니다. 직장 일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특히 교대 근무하시는 남자 분들이 심한데 교대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 시간을 고정시키지 말고 교대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하면 안될까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지만 하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면 교회 나오기 어려운 이웃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배우는 것보다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 좋은 것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다 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교사를 맡아보면 말씀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도 그 일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물을 찾으러 다녀도 물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닷물에서 갈증으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와 흡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참된 생수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쉽게 찾아냅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무엇이 생수고 무엇이 바닷물인지 구별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분간할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많은 설교 중에서도 가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12절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라고 하는데 정상이라면 북에서 남으로 가야죠? 북에서 남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도 물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왜 북에서 동이라고 했을까? 참 이상하다 하며 생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에서 남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물을 찾아간 사람은 아직도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방향 정도는 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북에서 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에서 동쪽으로 가는 사람은 지금 방향도 못 찾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심한 기갈이 닥칠지 잘 보여 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분간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끝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하자면 돈 떨어지고 양식 떨어져도 진짜 끝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면 진짜 끝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닥칠 것은 영원한 고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을 다 잃은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시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허약한 곳입니까? 누구라도 쳐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허약한 곳입니까? 천국은 결코 허약한 곳이 아닙니다. 난공 불락입니다. 누구도 감히 천국을 쳐들어가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그렇게 침노해서 자기 능력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고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나중되었다고 전부 먼저 됩니까?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은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중 된 자가 먼저 될까요? 말씀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좀 안다고 느긋한 사람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중되었다 해도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앞선 사람은 추월하지 못합니다.

목표가 전도사님을 넘어서겠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좋은 목표입니다. 얼마든지 넘어가 보십시오. 어려울 걸요. 저도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살피는 일에 모든 취미를 다 접어놓고 매어달린지, 그것도 본격적으로 매어달린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정돈하고 공부해야 할 성경이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갈수록 더 재미있습니다. 제발 추월할 수 있거든 추월해 보십시오. 두 손들고 환영할 것이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할 것입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사무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그 열심 때문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죠?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무엘상 15:22)'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일 때 더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잘 아시죠? 한 사람은 부엌에서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큰 갈증은 양식이나 물이 없는 갈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기갈이고 갈증입니다. 번성하던 시대에 부자들은 정말 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바다에서 갈증을 느끼듯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유한 환경이 그

들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애깁니다.

신문을 보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주병진씨가 또 구속되었다고 하대요. 이 분이 한 두해 전엔
가 구속되어서 재판받고 나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반성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또 구속되었다고 그러네요. 뭐가 부족합니까? 한 때 이름 날리던 사람이죠. 돈도 명예도 부
도 다 얻은 사람입니다. 내의 회사 차려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또 구속이 됩니
까? 돈도, 명예도, 유명세도, 가질 것 다 가졌어도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포항) 상고를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은행을 가고 몇 명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간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워낙 힘드니까 “어설픈 대학 다니면 뭐 하나? 차라리 저 놈들 모양으로 은행
가서 월급이나 받고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대학 다녀요. 그런데 은
행 들어간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월급을 받고 있으니 공색함이 없잖아요. 은행 들어갈 때에
얼마나 어렵게 들어가 놓고서는 살만 하나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도 돈이라고? 차라리 공부나
했으면...” 대학 다니는 놈들이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제가 양쪽을 다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대학 간 친구들은 은행간 친구가 부러워서 못 살고, 은
행에 가 있는 친구는 대학 다니는 친구가 부럽고... 그래서 전 일찌감치 거꾸로 배웠죠. 돈도 없이 대학 다
닌다고 저도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날 보고 정말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
실을 기억하면서 힘든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만 진정한 행복
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
님의 말씀보다 영똥한 곳에 신경을 더 쓰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 좋고 그럴싸하다 싶으면, 재미있으면 은혜로운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열
심히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열심히 듣다 보면 건강
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만만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효자제일교회가 정말 참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이 제단에
서 선포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은 목사나 전도사들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이 일에 관심을 모으고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나를 움직이며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증
거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도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하고 더 노력합시다. 하나
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다른 어떤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기념일을 챙기시는 하나님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개역, 출애굽기 12:13-14]

성 탄절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못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아! 성탄절이란 원래 로마시대 때 로마인들이 섬기던 태양의 날, 태양에게 제사 지내던 날이다. 이 바보들아!” 그런 애깁니다. 그런 질문을 들을 때에 나름대로 대답할 수도 있어야겠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기념하라는 절기는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의 뜻이 넘어간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유를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갑시다.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 장자만은 죽이지 않았습시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두고 그 집안에만 들어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 갔습시다.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 있는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이 들어 있는지는 따지지 않고 오로지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가 묻어만 있다면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습시다.

우리의 구원이 선하고 착하고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마에 피가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 이것만 따지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 능력이 얼마나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 이마에 묻어 있어야 할 그 피는 뭘 가리키죠?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분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묻어 있기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것은 표현을 조금 바꾸어 보면, 이 날 있었던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많이 세우게 하셨고, 또 기념일을 많이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이라고 물으면 답이 어려워요. 절기 하나에 이름이 하나면 좋은데 같은 절기에 이름이 두, 세 개씩이거든요. 이게 저것 같고 저게 이것 같고... 뒤섞여서 기억하기가 참 어렵습시다. 절기 이름이 굉장히 많습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 중에서 3대 절기를 고르라면 쉽지 않을 걸요? 웬 절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죠? 이 때 돌을 몇 개 나르죠? 12개라구요? 어디에서 12개입니까? 강 한가운데서 12개를 밖으로 들어냈습니까? 밖에 있는 돌을 강 가운데로 12개 집어넣었습니까? 안에서 밖으로 맞습니까? 밖에 있는 돌을 강물 안으로는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집어넣었습시다. 그럼 옳긴 돌이 몇 개일까요? 스톤 네 개입니다. 강물 속에서 들어내서 밖에 12개를 세우고 밖에 있는 돌 12개를 강물 속으로 집어넣습시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기념하러면서 기념비를 만들어 두셨습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념일을 제정하시고 기념일을 만드시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날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하러면 되지 왜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기억하라고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낚시 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붕어의 기억력이 몇 초라고요? 3초요? 며칠전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붕어의 기억력이 3초랍니다. 어항 속에 있던 붕어가 그 소리를 듣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제목이 붕어의 분노인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그대로 외워 보겠습니다. 붕어가 “붕어의 기억력이 3초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뭐? 내 기억력이 3초밖에 안된다고? 너희들이 재어 봤어?” 한 바퀴 돌고 “뭐? 내 기억력이 3초밖에 안된다고? 너희들이 재어 봤어?” 또 한바퀴 돌고서 “뭐? 내 기억력이 3초밖에 안된다고? 너희들이 재어 봤어?” 붕어는 자기 기억력이 3초밖에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재어 봤어?” 하는 순간에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또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봉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이 모양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제법 기억을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못하도록 기념일을 만들고 곳곳에 기념 비석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제정하시고 기념물을 세우셨는데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절, 달, 년... 입니다. 일년마다 똑같은 시기가 돌아오게 한 분은 하나님 맞습니까? 사람이 궁리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계절이 때맞춰 돌아오고 해가 바뀌면 그 때 그 시기가 다시 돌아와서 그 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4절을 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는 것은 정기적인 시간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것까지 다 감안하신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신 장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상기시켜 주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그것을 챙기시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란 걸 알면서 그것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가끔 잊지 말아야 할 날을 잊어버렸다가 야단 맞으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기억 못하는 게 원래 타고난 거 아니냐?”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절대로 자량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념일을 챙기라고 하시면서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절기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에 절기가 생각할 때 “또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하겠구나” 혹은 “특별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이런 게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 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절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14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고 말하는데 이게 누구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기념일을 삼되 이 건 전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기념일을 통해서 그 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되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다’는 말은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념일을 제정하시고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국사 시간에 경기도쪽 어느 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산 위에도 기념비를 세웠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진흥왕은 여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순수비라는 말 때문에 진흥왕이 아주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순수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순수비라는 그 순수의 뜻을 대학 시절에야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뜻은 안 가르쳐주고 무슨 산에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웠다는 것만 외우게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수란 순찰이란 뜻이더라구요. 임금님이 먼 변방 지역까지 순찰 나간 기념으로 세운 비석이 순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한 것하고 이 건 관계없는 거예요. 진흥왕이 저 변방지역 산꼭대기에 그걸 왜 세웠어요? 내가 이만큼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광개토대왕비는 만주 땅에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비석이에요. 왜 거기다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토를 이만큼 확장했노라’는 뜻이죠. 왜 왕들이 멀리 가서 비석을 세우고 공적비를 세웁니까?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만한 일을 했노라 하고 비석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우신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념일이 진흥왕이나 광개토대왕이 저 멀리 나가서 비석을 세운 일들과 다른 게 됩니까? 진흥왕이나 광개토대왕이 세운 비석은 거의 다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일을 제정해서 '나를 기억하라'는 이유는 누굴 위함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날을 기억하고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리던 그 행복, 그 기쁨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의 약점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행복도, 기쁨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니면 과거에 하나님 때문에 품었던 열심, 그 사건, 그 추억들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는 그 일이 아니라 그걸 기억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내게 참된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소중한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부부는 정말 행복합니다. 현실은 어렵더라도 참으로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재생할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신혼 초에 하는 일이 대체로 실수 투성이지요. 어느 새댁이 신혼 초에 잡채한다고 당면애다가 고추장 발라 내 놓았답니다. "암만 그렇게 이걸 어떻게 먹어?" 먹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지요? 그랬더니 그 새댁이 "남자가 벌써부터 음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 못 쓴다!"고 공갈을 쳐서 그걸 다 먹였답니다. 당면에 고추장을 바르면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부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 신랑이 먹느라고 고생은 한 모양입니다.

"남자가 벌써부터 반찬투정하면 못쓴다"는 말에 그걸 꾸역꾸역 말없이 다 먹어준 신랑을 두고 그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참 좋은 신랑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추억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얼마마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절기에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잘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이 로마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끔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교회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도전적인 자세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주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일요일이라고 할 때 일(日)자가 날 일자 아닙니까? "Sunday나 일요일이나, 보라! 이놈들아! 태양의 날 아니냐? 너희들이 주일, 주일 하지만 이거 원래 태양의 날이야. 태양신을 섬기던 날 중에 가장 큰 축제일이 12월 25일이야. 그런데 그 날이 무슨 예수님 탄생이냐?" 그렇게 떠들어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실제로 태양을 섬기는 가장 즐거운 축제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우상을 섬기는 온갖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 그 날이었던 말입니다. 특별히 그 날이 예수님 탄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태어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못할 뿐입니다. 다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진짜 태양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던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태양의 축제날을 집어삼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는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또는 날짜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그런 의미로 정해서 지키면서 우상을 섬기던 그 날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럼 됐죠. 예배에 쓰는 오르간도 원래는 술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악기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오르간이라면 이제는 당연히 예배용 악기입니다.

찬양할 때 기타도 열심히 잘 치고 있습니다. 한 2,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어디 기타를 쳐요? 야단났죠. 그것이 본래 어떤 용도로 쓰였건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바꾸어 버린다면 오히려 좋은 것 아닙니까? 성탄절이 정말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고 Sunday가 다 태양의 날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전부 주의 날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잘한 일 아닙니까?

추석도 좋은 명절이죠? 다만 조상신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바꾸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

기고 노력하면 대한민국의 추석을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로 바꾸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것이 원래 무슨 날이었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한 시대에 추수를 마치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날, 무당이 굿을 하는 날, 조상을 숭배하는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로 바꾸어 버리면 잘하는 일이란 뜻입니다. 성탄절이 과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나 아니냐는 사실 여부보다는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탄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날 무슨 일을 하셨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낮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런 날이 성탄절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보다 더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 자신을 낮추어 가는 것이 성탄절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지 바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기념하라는 말씀보다 기억하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꼭 일년에 하루, 절기 때만 기억하는 것보다 매일 매일이 기념일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매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면 훨씬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열두 달 그 의미를 잘 살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라고 기념일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 기념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기억하게 하는 기념일이 뭐예요? 성탄절은 일년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 있나요? 그럼 일년에 열두번 기억하잖아요! 한 달에 한번보다 더 짧은 것 있나요? 주일이 있잖습니까? 주일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신 기념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입니다. 어떤 분이 “새벽기도만 아니면 목사노릇 잘 할텐데...” 하시더군요. 표현이 좀 험하지만 “어느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하지만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새벽기도를 날마다 잘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념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모세야 이걸 기념해서 전부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려라” 뭐죠? 성경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기념으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볍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이 ‘읽고 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기념물로 주신 것이 이 성경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좋은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벽기도보다 쉽습니다. 새벽기도야 힘이 좀 들지만 성경책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은 훨씬 쉽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어 주 전에 천안에서 늙은 전도사들만 모여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졸업 전 마지막 만찬인 셈이었죠. 식당에서 조용한 방을 얻어놓고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는 거 있죠. 조그마한 방에서 다른 분들이 다 조용해 버리니까 대화내용이 온 방에 다 들립니다. 첫 마디가 “여보, 오늘 결혼 19주년인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서 “어? 오늘 19일이야?” 하니까 난리났습니다. “홍 전도사 이번 주에 내려가면 죽었다.” 이게 화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먹고 들어와서 10시쯤 집사람과 통화가 되어서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잊어버려서 미안...”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집에 내려오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집에 왔습니다. 저녁에 우리 집사람 하는 것이 평소

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이러는데?” 하니까 “당신 기쁘게 해 드릴려고” 이러더라고요. 그 때까지도 결혼기념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당신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일주일 내내 드렸답니다. 혼자서 부흥회 한 모양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아하 결혼기념일 같은 것 잊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되는 수도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신대원에 올라갔을 때 “홍전도사 어떻게 됐나?” 누가 물으면 좋을텐데 아무도 안 묻더라고요. 자기들도 다 잊어버렸지요.

특별히 어느 날을 기억해서 선물을 하고 아양을 떨지 않아도 평소에 함께 잘 지낸다면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챙기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올 해가 19주년인데 19주년은 이름도 없더라. 20주년은 이름도 있던데 내년엔 잔치 걸게(거창하게) 한 번 하자”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입으로 다 떼우고 넘어갔는데 특별한 날에만 결혼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억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항상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야 될 한 분은 하나님이지요.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으로 치세요. 또, 성령님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셔야 하겠고 또 한 분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어디 있든지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존경한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향하여 예쁘다고 말하는 게 쪽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주책스럽다면 불행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능력있는 남자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세상에 당신만큼 예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에서 안되거든 밖에 나가 연습 좀 하고 들어오셔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잊지 않고 이 두 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싶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고 한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도 못한 채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관심이 자녀들과 부모님들까지 가야죠. 남편 혹은 아내를 잊어버리고 애들 열심히 챙기는 경우는 죄송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걸 잊지마셔야 합니다.

우리교회에도 주책 떠는 사람들 많아요. 주일 오후에 성경공부 하는데 전화가 와서 한참 받고 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눈 온다고 전하란다는 겁니다. 멀리 초상집에 조문 가다가 눈이 온다고 남의 전화에다 대고 눈 온다고 자기 마누라에게 전해달라는 소리는 뭐 하러 합니까? 이십대 삼십대라도 말 안할 텐데 사십이 훨씬 넘은 사람이 첫눈이 온다고? 그것도 자기 전화도 아니고 남의 전화를 빌려가지고? 주책이지요?

부부 사이에 그런 주책 좀 떨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년엔 첫눈 오거든 남의 전화 빌려서 하지 말고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 서로를 잊지 않고 있다든가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배운 겁니다. 기념일을 제정하고 어떤 건수를 잡아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일 끝에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대에 지키라는 말씀은 후손까지 갈 것 없이 바로 내가 맡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중한 기억들을 간직할 수 있는 추억들을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 큰 자녀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 아이들 학교 생활하는 것 보면 참 걱정입니다. 가정에 대한 기억도 없었고 교회에 대한 기억도 없을 것 같아요. 오로지 학교 가서 죽자고 공부한다고 갇혀 있었던 기억 외에는 어찌면 아무런 추억도 없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참 아름다운 추억을 갖도록 어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저절로 자라죠? 아이들은 키우는 겁니까 저절로 자라는 겁니까? 키우는 거예요?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심는 사람 있고 물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없는 아이가 부모있는 아이보다 더 잘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절로 자란다는 말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변 환경이 제대로 돌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 가만히 한 번 뒤 보세요. 주변환경이 이 아이들을 바르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무서운 환경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결코 정상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 뒀는데도 이 아이가 아주 신앙대로 잘 살 것이라고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간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념일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고 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서도 이 기념일을 정말 뜻 있고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교회 기념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아이들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저절로 전수될 것이라고요? 어렵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을 전혀 가르쳐 놓지 않고 대학가면 될 거라고요? 대학가면 부모님 노릇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지요. 어떻게 손댈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부모님들이 노력해서 많이 심어 줘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이런 절기들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 올해라고 뭐 별다른 게 있겠어?” 이런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날로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념일을 잘 지키자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형식이나 예식을 소중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꼭 해야 합니까? 아니면 마음 맞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뭐라 하든 잘 살면 됩니까? 꼭 해야 돼요? 남에게 “우리 결혼식 한다.” 꼭 광고해야 됩니까? 마음 맞는 둘이서 맞춰서 잘 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결혼식 안 했다고 누가 혼인신고 안 받아줘요? 결혼식은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과정을 밟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쉽게 만나서 쉽게 살면 그만큼 깨어질 위험도 큼니다. 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담는 그릇도 귀한 것으로 만듭니다. 안에 들어갈 것은 하나도 없는데 껍데기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것이 문제이지 안에 정말 소중한 걸 담아야 할 때에 귀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치르는 기념일이나 예식이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라면 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름다운 내용이나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 예식이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예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시지요? 제가 받는 느낌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선남선녀들이 예배당을 꽉 채우고 새벽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두 시간 넘어가죠? 부활절 새벽에 꼭 이래야 되냐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 번 겪고 나면 가슴 속에 찡하게 남는 게 오래도록 갑니다.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많지만 고생한 것 이상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 신학교 졸업생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교회 평신도 신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졸업식은 정말 거창하게 치르죠. 졸업장도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졸업식은 너무 거창하게 치워서 몸돌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참으로 소중한 추억으로 남고 감격이 되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감격하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선 소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 그 자체를 위한 조직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조직이 거기에 소속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한 수단이라면 소중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기념

일이나 예식이나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정말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우리 좀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의 선배들이 로마카톨릭에서 뛰쳐나온 이유가 뭘니까? 알맹이는 없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것에 반발해서 뛰쳐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뛰쳐나온 오늘 우리 장로교의 예배 의식은 아주 틀이 잘 짜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이 좀 없습니까?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입니까 아니면 예배형식이 꼭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지 모르겠는데 장로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형식은 형식이 거의 없는 축에 들어갑니다. 백 전도사님 표현을 빌리면 애기 목욕시키고 구정물 버린다면 애기까지 같이 버린 꼴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형식화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순서도 다 짜여져 있는데 설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시간에 늦게 들어와도 아무도 안 말리죠. 늦게 와도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미안한 것 없죠? 예배시간에 가끔 전화벨 소리도 울리고 예배 도중에도 전화 받으러 나가시는 것은 예배를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야단을 치거나 책망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느슨하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형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건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예배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형식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배나 기념일을 조금 무겁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자는 뜻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할 때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은 친근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또 한편으로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기념일이 그 자체를 위함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일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좀 더 소중하고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예의도 없이 부모를 상대하는 건지 친구를 상대하는 건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허물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의를 갖추어서 부모님을 대할 때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일을 제정하시고 기념비를 많이 세운 것은 하나님을 기억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형식과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탄절의 가장 핵심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한 번 내려다 보십시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어 가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성도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기본은 대립절, 곧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흉내라도 내는 것이 성탄절을 바르게 맞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우리 평생에 어떤 성탄절보다 더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낮고 낮은 땅에 왜 보내셨는지 기억함으로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와 모든 기념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을 뻔했다!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嫩的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개역, 여호수아 1:1-9]

민 물고기는 날로 못 먹지요? 그러나 바다 물고기는 날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민물고기는 못 먹는데 바닷고기는 그냥 날로 먹을 수 있죠? 안전하니까요. 왜 안전하죠? 소금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짜지만 소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바닷물 100g이면 소금이 한 3g정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에는 인체에 해로운 기생충이나 균들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다 물고기는 그냥, 날로 먹어도 되지만 민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100g중에 3g이 그 역할을 해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100명 중에 3명만 있다면 이 3명 때문에 이 사회가 썩지 않고 정화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100명 중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믿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니다. 20% 넘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적은 탓이겠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고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아마 이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실까요?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야 하는지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끌어 갔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민족을 이끌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번 성질 부린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는 할 수 있을망정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철자가 같고 뜻도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밭바닥으로 밟는 땅은 전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그 약속은 실현이 미루어지다가 다윗의 시대에 가서 거의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전부 차지한 것으로 알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6절 중간쯤에 보면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합니다. 이 땅이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인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엄청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완수하고 땅을 차지하지만 이미 400여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 것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노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우리가 믿지요?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 고백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건 전부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투를 치르고 땅을 차지하지만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땅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혹시 겁이 많았던 건 아닐까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지도자가 새로 들어섭니다. 이 지도자는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다!”는 기쁨보다 어쩌면 두려움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선거에 이겼다는 승리감보다는 모르긴 몰라도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음만한 사람에게 다 물어가면서 온갖 머리를 다 짜내고 있을 겁니다. 선거공약이야 부담없이 말할 수 있죠. 이를 수 없는 공약이라도 그냥 발표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과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해야 할 일이 됩니까? 7절을 봅시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강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율법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받아서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해야 할 일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지도자로 선출이 되었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전계획부터 짜야되지 않을까요? 바로 강 건너에 적군들이 성을 단단하게 지어놓고 훈련이 잘된 군사들로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걸 정복해서 이길려면 군사 훈련도 시켜야 되겠죠? 무기도 구입을 해야 되겠죠? 구입할 데가 없으면 만들기라도 해야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것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하라고 하시죠?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종일 읽으라는 거죠. 또,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작전계획은 뒷전이고 “성경공부 합시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누구라도 전쟁터에서 그런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교생이 주일에도 학교에 출석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고3 학생이 주일이라고 교회 와서 성경공부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다면... 여호수아한테 비하면 별 것 아니죠? 그럴 가능성을 한 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나가기 전에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에 나올 얘기지만 여호수아가 전쟁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함부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저런 작전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부임해서 며칠 안 되어서 왕신초등학교에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포크댄스 대상을 뒀습니다. 얼마나 잘 했으면 대상을 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불쌍해서 드리는 것 같아요. 박자가 맞나 스텝이 맞나, 전혀 안돼요. 우리 목사님더러 예배 인도하고 신학 강의하라면 아마 하루종일 기쁨으로 하시겠지만 포크댄스는 잠시라도 고역일 겁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도 종목이 바뀌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바보되기, 일도 아닙니다.

전 평생에 바다에서 고기라고는 조그마한 것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냥 낚시대를 담가놓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고기가 무는 것 같은데 당기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저건 분명히 고기가 건드리는 것 같은데 왜 안되냐?”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당기세요.” 그러니까 걸려 올라오네요. 그것 참, 왜 하나 둘 셋 해야 되냐? 고기에 따라서 까딱까딱하면 바로 당겨야 하는 놈이 있고, 하나 둘 셋 하고 당겨야 되는 놈도 있고, 찌를 물고 속 내려가면 당겨야 하는 놈도 있고... 다 다르다네요. 아, 낚시가 복잡한 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고기 따라 다르고 미끼 따라 다르고 장소 따라 다르고 다르답니다. 얘기를 한참 듣고 나니까 낚시도 간단한 게 아니더군요.

낚시에 대해서 신이 나서 설명해 주는 그 집사님은 낚시 얘기만 나오면 신이 나죠.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는데 여기 와서 설교 한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이 달라지면 사람이 힘을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가야 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종목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아니 낚시 하러 가려면 낚시대 들고 밑밥 챙겨야 하는데 그것 놓아두고 성경책 들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장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 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일에도 다들 학교에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공부하고 있다면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거든 교통사고 내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누군 내고 싶어서 내나요? 물론 안 내고 싶죠. 그러나 사고가 날 때 나더라도 본인이 피하려면 사고의 상당 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속도 조금 줄이고, 조금 양보하고, 줄리면 쉬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면 사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자꾸 당부를 드리느냐 하면, 전 여러분들을 아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싸움을 잘 못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소리부터 질러야죠. 그 다음 안면에 철판 깔아야죠? 무조건 잘못된 것 없다고 우겨야죠? 그럴 자신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우리에게겐 없기 때문에 그런 싸움은 아예 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싸울 능력도 없는데 싸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한쪽에서는 주먹으로, 목소리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덤빉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항상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거든요. 싸움이 애시당초 안됩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전문 분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얼굴에 철판 깔고 덤비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질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도 안되는 어

거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 성질도 못 부리고 어거지도 못 부립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인내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겐 인내와 사랑밖에 없는데 저 사람에게게는 성질에다 어거지에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출세를 합니까? 손도 잘 비벼야 되고, 줄도 잘 서야 되고... 이번 선거에 줄 잘못 서 가지고 큰 일 난 사람 있잖아요. 아침도 잘 해야 되고, 남자들은 술자리도 잘 가야 되고, 이게 출세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 우리는 그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논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면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방식으로 살 것이냐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혼하면 두 달 내에 꼭 잡으라고 하는데 실천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죽도록 사랑하고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데 이거 괜히 말씀대로 하다가 두 달만에 잡혀서 평생 잡혀 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잘 못하면 평생 잡혀 사는 거예요.

“정경 말씀이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하니깐 말씀대로 한다고 나는 절대 복종하는데 혹시 저 남자가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자기가 잘난 것으로 착각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경우에 따라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가 어렵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0명 중에 있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 3명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일을 감당해 내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적 앞에서 전쟁 칠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걸 목상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생겨 날 건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은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그 예를 한 번 찾아봅시다.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앞 날이 창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버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죠? 가는 곳마다 쫓기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엄청난 수모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었던 세상의 원리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중간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꼭 속이는 자 같아 보일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말하는데 무명한 자 같아 보여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마치 죽는 자 같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다음, **가난한 자 같으나** 그 다음, **아무 것도 없는 자** 같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걸 철저한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바울의 자기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론 어떤 사람이죠? 9절부터 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제로 유명한 사람이죠?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산단 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참 좋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바울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것이 참된 그

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패배자 같으나 실상은 엄청난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저께 월간 고신을 잠깐 봤더니 우리나라 이혼율이 42%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42%라는 것은 10가정에 4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걸 잘 못 봐서 그렇겠지만 불신 이웃들 중에는 깨어지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주었던 세상의 원리가 조금 흔들리자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마구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밤길을 걸어갈 때 후레쉬를 저 앞에 비추니까? 발 앞에 비추니까? 발 앞은 캄캄해도 괜찮습니다. 저 앞쪽을 비추야 되죠? 운전할 때 속도가 한참 나는데 차 바로 앞을 보고 가면 당장 사고납니다. 이게 차선이 맞나 안 맞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 앞을 보고 있으면 똑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눈 앞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저 앞을 잘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는 앞이 캄캄하더라도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당장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조그마한 어려움에 부닥쳐도 쉽사리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바보 같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 같고 죽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짧게 보면 실패자 같아 보여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맥없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랬던 그 분이 나중에 만왕의 왕이 되어서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요? 따라 다니면서 출세한 것 뭐 있어요? 너무나 불쌍하게 다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불쌍하거나 헛되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탄절 전야 연극에 손양원 목사님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들도 순교했지만 자신도 끝내 순교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겠나구요?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서 후에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안이숙씨 생각나죠? 안이숙씨가 누구 본을 보았을까요? 에스더의 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원조가 성경에 따로 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건 아니에요. 야곱은 ‘잃으면 잃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굴 잃어요? 베냐민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 애는 안된다.”고 버티던 그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내 보냈습니다. 그렇게 내 보내서 결국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내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새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삽니까? 아니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삽니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싹이 나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많이 맺으라고 해서 만원짜리 땅에 한 번 물어보세요. 열매 많이 맺혀요? 안 맺힙니다. 생명이 있는 걸 물어야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생명 없는 것은 아무리 죽어도 헛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단순한 오기는 확률의 문제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살려다가 죽을 뻔한 이런 체험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나가노라면 그것이 죽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 너무 실망할까 싶어서 반대되는 이야기도 한번 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높이 들어올리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이나 요셉, 다윗처럼 높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아주 높은 자리에 들리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제가 보기에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어디 있냐?'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 말을 쓰고 있는 한 '먼지 날 짓을 하면서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 날 일이 없다는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 들어서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이나 제자들처럼 쓰실지, 아니면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리실지 그건 모릅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모습으로 가든 저런 모습으로 가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들어내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지 전쟁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니다. 문제를 전쟁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쟁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살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다가 한 번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이 험통하고 험통 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선으로 생각한 다음 그 뜻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전쟁 준비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걱정이 되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 혼자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보기에 안될 것 같지? 걱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살펴보고 그 뜻대로 행하라. 그것이 결국은 험통한 길이요 네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이 한국에서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만사행통의 복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복은 우리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희생과 죽을 뻔한 고통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맞습니까? 맞죠? 송충이가 뭘 먹어요? 솔잎 먹어야죠.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선 먹고 봐야 되고 우선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송충이라고 다 같은 송충이로 아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는 진짜 송충이고 하나는 송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저 지옥에 갈 놈들' 이러면서 불신자들과 끊고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슬퍼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의 원리대로 살겠느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렇게 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을 뻔했다." 이 말이 우리들 입에서 많이 나와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더 이상 기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살러니 정말 죽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

오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닦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일제시대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해도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생애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말씀대로 살려고 작심을 하고 해 보면 조그마한 일이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성질나는 것 죽어야죠! 조금만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 싶은데 포기해야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실천하는 사람에게에는 정말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또 실천하기 어려운 일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소리질러서요? 만약에 소리질러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투에 가서 소리질러야 하죠. 뽕뽕이를 많이 들어서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전쟁에서도 또 뽕뽕이 들어야지요.

그들이 성을 돈 것이나 소리를 지른 것이나 그것은 성이 무너진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왜 무너뜨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없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재미가 정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고역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이 고백이 우리교회에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터에서 전쟁 준비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